



6

199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0. 6호

(루계 512)

◇◇◇◇◇◇◇◇◇◇

차 례

◇◇◇◇◇◇◇◇◇◇

김일성 동지께 영광을.....	5
김정일 동지께 노래를 드립니다.....	5
조국을 생각할 때면	6
백두밀영고향집을 떠나며.....	7
그 정다운 자장가소리.....	7
극장에 새로 만든 조명장치	8
새벽	9
가장 행복한 그날이 오면.....	10
우리 집	11
병사의 집.....	13
위대성형상과 흙모의 정서.....	14
산정의 랑만	17
나의 처녀시절.....	29
아들의 마음	29
위훈의 자리	30
탄부의 퇴근길.....	31
아들에게	31
홍계수때물이군	32
언제나 보고싶던 사람들	39

얼굴 (외 1 편)	40
나는 가슴에 불을 안고 산다	40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41
전투적소설문학	41
희열	46
물이 오는 소리	53
빈자리	54
젊음이란	55
전사 민홍기	56
나무리벌과 나	60
분노한 조선의 6 월에	61
상승	62
담벽의 말	71
검차의 마차소리는 작아도 (외 1 편)	72
《통표》와 함께	72
《힘들지 않습니다》	73
나는 탄부 (외 1 편)	74
탄부의 주먹	74
군사분계선에서	75
주추돌	76
강감찬의 위엄	77
제 4 차 《3.23 방송문학작품상》 창작경기요강	80

영원히 주체의 기치따라

문성락

푸르러 설레이는 강산에
해빛도 찬란해라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숲을 이룬 대기념비들

위대한 사변,
경사로운 명절도 많아
폐사로운 보통날이
뜻깊은 기념일로 흐르는 이 땅

세월이 갈수록
행복이 넘길수록
그 행복 가슴벌게 안으며
잊지 못한다 력사의 그날을

60 년전
풍파사나운 길우에
혁명의 진로 밝게 열리던
아 카툼의 그 밤이여

번개를 불러 우뢰를 불러
총갈 삼엄한 철창을 짓부시며
휘몰아치던 혁명의 폭풍,
그 폭풍 시대의 숨결로 안으시고
우리 수령님 지펴올리신 주체의 화불이여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
무장한 적은 무장으로!

력사의 그날 그밤에
우리 수령님 안겨주신
주체의 뜻을 올리고
승리의 항로 따라
자옥자옥 빛나게 아로새긴 우리 행군길

강철의 당을 이끄시고
자위의 무력을 거느리시고
혁명의 천만리를 헤쳐
영광의 천만리를 펼쳐놓을 60 성상

그 길우에
사나운 제국주의 두 강적 쳐부시고
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솟아올랐거니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한 세대에 그리도 큰 위업,
남들이 세기를 두고도 못할 공헌
한생에 이룩한 위인 그 어데 있으랴

걸어온 길
그리도 멀었어도
걸어갈 길 바라보니
신심은 넘쳐라

력사의 전환기를 맞은 90 년대
우리 진군길에
신심과 락관에 넘친 우리 앞길에는 언제나
그날의 화불 타오르거니

주체는 생명
그 빗발 안아 우리 힘 떨치고
그 기발 놓으면
노예의 멍에 다시 걸머지리

주체는 행복의 열쇠
틀어쥐면 이 땅 재부의 주인
인간의 존엄 떨치고
그 열쇠 잃으면
피눈물로 얼룩진 과거 되풀이하리

아 놓지 않으리 그 기치
우리의 운명
조국의 운명
주체의 기치
이 땅 한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김일성동지께 영광을

마엘레스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의 아버지

조국광복 안아오신 인민의 은인

김일성 그이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 동지께 영광 영광을

위대한 수령님은 인류의 아버지

자주시대 펼쳐주신 인류의 태양

김일성, 그이는 자주시대 향도자

김일성 동지께 영광 영광을

위대한 수령님은 천선의 기치

남남협조 새 력사 열어주신분

김일성 그이는 탄자니아인민의 벗

김일성 동지께 영광 영광을

(필자는 탄자니아 민족복무대예술단
문화부국장임)

김정일동지께 노래를 드립니다

마리오 에프 베지나

주체의 기치 높이 드시고

세인이 우러르는 예술의 화원도 펼치시는

그이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언제나 몸가까이에서 보좌해드리시는 그이께

내 드리옵니다 축하의 노래를

지평선 저 멀리에서 반짝이는 새벽처럼

비범한 예지와 혁명정신을 지니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용감성과 헌신성의 귀감이신 그이께

내 드리옵니다 축원의 노래를

비상한 지략과 리론 빛나는 사상을 지니신분

뛰어난 재능과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그이께

내 드리옵니다 칭송의 노래를

내 드리옵니다

그 이름 빛나는 **김정일** 동지께

영광의 노래를

끝없는 힘모의 노래를

만수축원의 노래를

(필자는 말파 시인임)

조국을 생각할 때면

허일

흘러간 먼 세월에도
새들이 우짖었고
내물이 흘렀어도
조국, 조국은
그 자연의 세계만이 아니었다

대대손손 조상의 뼈가 묻힌
그 땅만도
꿈많은 학창시절
지구의를 돌리며 선생님 짊어준
어느 한 지점만도 아닌것

태를 묻은 땅이 있어도
식민지 노예의 피땀만이 흐르던 그 땅에
정녕 있었던가
인간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이

침략의 정박한 구두발에
꺼져가던 이 땅의 숨결이
정녕 참된 소생의 숨결이 이어진
그날은 언제부터였던가
진정 어디서부터
자주의 삶을 꽃피운 따뜻한 해빛이
이 땅에 비쳐왔던가

이 땅의 숨결도
인민의 운명도
백두의 눈보라 불바다를 헤쳐
개선의 광장으로 안고오신
어버이수령님 그 품이 아니던가

태양의 그 빛발 아니면

이 땅의 눈부신 오늘이 있으랴
낮에도 밤에도 조국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과 은정으로 가꾸어주시는
우리 수령님 아니시면
존엄높은 내 조국의 모습이 있으랴

포화에 타고 재만 남은
이 땅 끝까지 다 걸으시며
인민의 락원을 가꾸신 어버이수령님
아버이 사랑의 그 해빛은
외진곳 그늘진곳 하나도 없이
은혜로운 빛발을 뿌려주어
이 땅에 행복의 꽃바다를 펼쳐주셨어라

아, 수령님
어버이수령님 아니시면
꿈에나마 우리 생각할수 있으랴
행복한 우리의 모습
위대한 내 나라의 무궁한 래일을
아, 조국을 두고 때없이 생각할 때면
그 품에서만 이어지는
끝없는 삶의 박동을 안고
그 품에서만 바라보는
미래의 하늘가에 눈부신 그 빛발이
한가슴 가득히 안겨와

흘러간 먼 세월이
애타게 기원했던것
이제는 그 어디 하늘끝에 가도
내 조국이라 소리높이 웨칠수 있는
크나큰 민족의 긍지를 노래하노라
어버이수령님 높이 모시여
내 조국이 무궁번영하라고

백두밀영고향집을 떠나며

방금속

찾아갈 때에는
그리움에 천리도 한달음이더니
떠나올 때에는
백두밀영고향집 떠나올 때에는
산악같은 의지를 안고옵니다

고향집 추녀아래
함께 섰던 짧은 동무
어찌하여 나의 배낭 벗어달라 합니까
내게는 이 길에 배낭도 힘겨울거라고

힘겹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생을 다시 받아안은듯
나이 반백에 백두의 딸로
새로이 태어난듯

마음속에 한생
소백수 맑은 물 흐르도록
그 물끓
내 마음속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혹 심장 한구석 티라도 끼면
그 물로 깨끗이 씻어내려구요

누리를 향해 열린 고향집 창문
그 문도 마음속에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내 걷는 길
그 길이 눈보라에 헛갈리면
나는 다시 그 창문에서 내다보고
헛디딤없이 한길 곧게 찾아걸으려구요

준엄한 총포성 들이시며
여기서 그이 떴신 첫걸음이
내 삶의 큰길을 열었기에
나와는 이미 오래전에
운명의 피줄이 하나로 이어진 백두밀영의 고향집

그 피줄 없이는 못살아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가는 길에 폭우 내려도
오직 그 한길-
다른 길 모르는
나는 평범한 이 나라의 딸

여기 고향집
백두의 행군길에 누구나 메고가란듯
귀틀벽에 정히 걸어놓은 그 배낭
내 마음의 어깨에 벗겨메고

영생이라 이름하는
생의 가장 높은 언덕
그 한끝까지
향도의 손길 따라 걸어갈 한마음
혁명의 려장으로 쟁겨넣은
나의 이 배낭

벗을수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놓으면
나는 나의 한생을 잃어버립니다

가사

그 정다운 자장가소리

염득복

포연이 날리던 준엄한 날에도
다정히 울리던 자장가소리
어머니 품처럼 당은 나를 안아
부모잃은 설움을 가져주었네
아, 정다운 자장가소리
나를 안아키워준 사랑의 노래여

어린 날 요람가에 울리던 그 소리
다 자란 오늘에도 잊을수 없네
푸른 꿈 키워주며 정답던 그 노래

내 한생 듣고사네 당의 사랑으로
아, 정다운 자장가소리
나를 안아키워준 사랑의 노래여

어제도 오늘도 먼 래일에도
내 삶을 지켜주는 정다운 그 소리
우리 당 그품은 이 몸을 안고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네
아, 정다운 자장가소리
나를 안아키워준 사랑의 노래여

극장에 새로 만든 조명장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완성되어 아버지 수령님을 모시고 첫 공연을 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공연을 하루 앞둔 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작품을 지도해주시기 위하여 평양대극장에 나오시었다.

그런데 이날 웬일인지 그이께서는 작품지도에 앞서 일군들을 데리고 1층 객석으로 먼저 들어가시는것이였다.

그때는 무대련습이 한창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불을 끈 객석은 몹시도 어두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의자들사이를 손더듬하며 걸으시다 한참씩 멈춰서시어 무대에서 울리는 음향에 귀를 기울이군하시였다.

드넓은 객석의 여러곳에서 이러시기를 몇번...

그이께서는 마침내 객석중앙의 어느 한 위치에 머무르시더니 바로 여기가 무대음향이 제일 잘 들린다고 기뻐하시였다.

일군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왜 그 자리를 선택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선뜻 가늠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의아한 표정으로 그저 덤덤히 서있기만 하였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번에는 극장의 기술일군들을 부르시더니 무대음향을 기구로 측정해보게 하시고 자외선조명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가도 알아보시였다.

일군들의 의문은 점점 더 커졌다.

잠시후였다.

모든것을 과학적으로 측정해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드디어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바로 그자리에 아버지 수령님의 관람석을 정해야 한다고...

순간 일군들은 서로 얼굴들을 마주보며 놀란 기색을 머금었다.

사실 아버지 수령님을 모시는 좌석은 2층귀빈석에 이미 정해져있었고 또 그때까지 수령님을 그 자리에 모신것만도 이루 해야할수 없었다.

그리고 세계의 이림있다는 극장들에 가보아도 수반급초대석은 2층 정면이 아니면 측면 란간에 정해져있었으며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 움직일수 없는 하나의 기정사실로 되였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모든 기존관념을 깨뜨리시고 공연을 관람하는데 가장 좋은 자리인 1층 한복판에 아버지 수령님의 관람석을 새롭게 마련하시는데것이였다.

일군들이 커다란 감동을 안고 서있는데 그이께서는 아버지 수령님 좌석을 잘 꾸릴데 대하여 구체적 가르쳐주시였다.

무대마이크는 어디에 놓고 효과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며 극장안의 온도와 습도는 어느 기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것과 지어는 객석의자에 씌운 흰천이 조명빛에 반사되어 주위를 분산시킬수 있으니 그것을 벗기는것이 좋겠다는것까지도 놓치지 않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수첩에 받아적는 일군들의 가슴은 마냥 뜨겁기만 하였다.

이때 무대에서 관현악음악이 장중하게 울렸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음악소리도 일군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

이 이야기는 새로 일떠선 만수대예술극장의 개관공연준비를 하던 때에 있는 일이다.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친히 새로 건설된 만수대예술극장에 나오시어 개관공연준비 상태를 보아주시였다.

세상사람들이 하나와 같이 찬탄하듯이 만수대예술극장의 무대는 신비로울만큼 희한하였다.

공연도중 장면이 바뀔 때마다 무대전환을 위해서 잠깐씩 불을 끄곤하는데 순식간에 무대우에는 황홀한 세계가 펼쳐지곤하였다.

불과 몇초사이에 파도치는 포구의 아름다운 저녁풍경이 금강산의 일만이천봉우리로 바뀌고 오색비단필이 쏟아지는 방직공장이 쇠물폭포 쏟아지는 제철소구내로 변하곤하였다.

락원으로 전변된 조국의 모든 아름다움을 련이어 펼쳐보이는 무대를 바라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동안 무대가 어두웠다 밝았다하면 수령님의 시력에 피로를 줄수 있겠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밤깊도록 일을 보신다...한평생을 이렇게 일해오시다니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안경을 끼시게 되었는데 참 가슴아픈 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수령님의 시력을 보호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제야 일군들은 그이께서 무대형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 수령님을 더 잘 모시겠는가를 심려하고계심을 깨닫고 마음이 그지없이 숙연해졌다.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안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으면 좋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더니 일군들에게 이런 의견을 내놓으시였다.

공연을 보시는 아버지 수령님께서 불을 켜올 때에도 어둠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수령님의 좌석앞부분에만 약간 흰광 정도로 빛을 주면 되지 않겠

는가 하는 의견이었다. 순간 일꾼들의 눈빛이 빛났다.

말씀을 듣고보니 정말 놀라운 묘안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런 방향에서 특별조명장치를 해보라고 이르시고는 그날은 그냥 돌아가셨다.

그런데 며칠후였다.

극장에 또다시 나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사이 극장일꾼들이 만들어 설치한 특별조명장치를 주의깊게 살펴보시었다.

그 조명장치는 어버이수령님의 좌석맞은편 관현악연주석벽면에서 불빛이 비쳐나오게 설치된 것이었다.

그이께서는 객석의 불을 끄게 하시고 자신께서 직접 조명을 받아보시며 빛의 세기도 가늠해보시고 빛이 비치는 거리며 각도도 측정해보시었

다.

그러시고나서 일꾼들에게 이 조명장치도 괜찮기는 하지만 빛을 정면에서 받게 되어 흠이라고 하시면서 조명장치를 천정에 설치하여 빛이 내리 비치도록 하라고 이르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시력을 보호해드리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그이의 품모앞에 일꾼들은 진정 다시한번 고개를 깊이 숙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극장은 불을 켜는 때에도 객석에 불빛을 비치는 특별조명장치를 가지게 되었다.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할 때마다 비치는 그 불빛은 단순한 조명빛이 아니라 수령님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를 백마디 천마디 말보다도 더 생동하게 가르쳐주는 실로 뜻깊은 불빛인것이다.

새벽

박창화

해치면 새벽안개
물결처럼 출렁일가봐
다치면 새벽이슬
방울처럼 소리날가봐

젖빛안개 자욱한 정원
이슬맺힌 숲사이로
어머님은 소리없이 걸으시네
조용히 나무장대 휘저으시며

그러면
귀따갑게 조잘대던 새무리
포르릉 포르릉
하늘가 저 멀리 날아가버리고

그러면
노을을 앞세우고 서둘러오던 새벽도
장대끝에 걸려
그자리에 멈춰서신듯...

자정이 넘어서야
제철소에서 돌아오신 수령님
인민의 첫 헌법을 다듬으시며
그대로 새벽을 맞으시었으니

홀려간 밤을 되돌려
그이 계신 창가에 세우고싶으신 마음
정원의 고요를 두손에 담아
그이 계신 방안에 채우고싶으신 마음

아, 간절한 소원을 안고
훨훨, 새무리 날리시는 김정숙어머님!
비오고 눈오고... 일년열두달
언제나 새벽을 이렇게 맞으시거늘

새벽은 어머님에게
하루중 제일 귀중한 시간
수령님의 마감일과를 보좌해드리시는
어머님의 어김없는 일과시간이여라!

가장 행복한 그날이 오면

김호진

하루에도 몇번
내 가슴속에 차오르는 생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문득 우리 양덕땅에 오신다면

우리 군의 세멘트로 흰추녀를 하늘가에 올린
락동강전투참가자들의 새집에 들리신다면
온종일 웃음소리 골안에 메아리치는
저 아이들의 물놀이장에 들리신다면...

아 정녕 행복의 그 순간이 온다면
사랑의 슬하에서 자라난 이몸
아들의 도리 다했다고 할수 있을가
전사의 의리 다했다고 할수 있을가

내 여기서 일을 시작하여 어느덧 다섯해
산천도 사람도 몰라보게 변하고
군의 살림살이 부쩍 늘어났어도
양덕땅에 첫 배낭을 풀던 그날처럼
해야 할 일만 가슴속에 무겁나니

내 탓하지 않노라
오늘도 마흔번째 발전소의 뚝을 쌓으며
썩살박혀 두터워진 손이 더 두터워져도
내 탓하지 않노라
일년열두달 마를새없던 나의 작업신발이
새로 푼 저 논물에 젖고 또 젖어도

사람은 한생을 철든다 하였거니
내 이제 철들기 시작하였던가
당에 하나라도 보람을 못주고
내 버릇없이 손만 내밀던 응석받이였기에
무엇인가 일을 더해놓고
친애하는 그이앞에 땀땀이 서고싶은 마음

그 마음 자욱자욱 수놓으며
저 물맑은 룡개천 기슭을 따라
가로등 환한 유보도를 펼치고
그 마음 충충이 쌓으며
세상문명도시 부럽지 않게

극장도 경기장도 번듯이 세우리라
산마다 푸르려 설레이는 잣나무숲에
더 실한 열매 주렁지우고
사슴땀을 늘이고 늘여
골안마다 양떼처럼 흐르게 하리라

친애하는 그이께서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그 모든 행복을
이 땅에 가득 채워가며
내 백번다시
저 험한 산밭을 타고간들 어떠랴
내 천번다시
사나운 눈사태를 막아 가슴 내넨들 어떠랴

나는 그이의 높은 뜻을
가장 앞장에서 받들어야 할
군의 호주-군당책임비서
나는 그이의 크나큰 구상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워갈
영원한 아들이며 친위전사!

어려우면 어렵다고
힘겨우면 힘겹다고
버릇없이 내밀기만 하던 이 두손에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꽃핀 이 양덕땅을
효성어린 선물처럼
그이께 소중히 떠받들어올리리니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문득 우리 양덕땅에 오신다면...

한생에 가장 행복한 그날을 그리며
나는 오늘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쥐여주신
황금산을 가꾸는 그 묘술의 열쇠를 튼튼히 쥐고
공산주의 리상촌을 꽃피워갑시다

어머니당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우리 집

리수덕

이제는 눈에 익고 귀에 익어서 보통때에는 범상히 보고들으며 스쳐보내던것도 때로는 같은 말 한마디, 레사롭게 보아온 하나의 현상을 놓고 어느때없이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활속엔 종종 있다.

뜻깊은 4월의 명절을 얼마 앞둔 어느날 막내딸이 별생각없이 꺼낸 집에 대한 이야기가 줄기를 뻗치고 아지를 쳐서 온 집안은 한동안 류다른 감회와 걱정엔 휩싸였었다.

하루일을 마치고 퇴근한 저녁이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서던 나는 몹시 기다렸던듯 들가방을 받아안으며 반갑게 맞아주는 막내딸한테서 느닷없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줘요. 뭔가구요? 아주 중요한거예요. 아버지, 꼭 도와주는걸 약속하지요?》

《에그, 애두 참, 냉큼 말을 떼렴, 뭘 도와달라는건지. 아버지가 언제 한번 너의 부탁을 안들어준적 있더나?》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다가 막내딸의 밀도끝도 없는 당부를 두고 편잔섞어하는 안해의 말이였다.

이어 말길을 단 안해의 설명을 들어보면 막내딸의 학교에서는 뜻깊은 명절을 맞으며 글짓기경연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래일까지 결속한다느것, 그래서 딸애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바람으로 책상을 마주하고 벌써 몇시간째 애를 쓰고있지만 학습장에 적어놓은것은 아직 제목뿐이라는것, 이것이 내가 들어서기전까지 집안에 《조성》된 정황이었다.

나는 어린 딸애가 이끄는대로 앓은뱅이책상앞에 다가가앉았다.

지금껏 딸애가 붓방아를 찢고있었을 책상우에는 《우리 집》이라는 세글자만이 누운 글씨로 또렷이 새겨진 글짓기학습장이 펼쳐져있었다.

《<우리집>이라?! 거 제목이 아주 좋구나, 시작이 절반이라구 좋은 제목을 단걸 봐서 글짓기는 그닥 힘들것 같질 않구나. 그래 제목은 네가 찾은거겠지?》

나의 질문에 딸애의 얼굴엔 아쉬움의 그늘이 비꼈다. 글제목은 학교에서 통일적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그대신 같은 제목을 달고 시나 동요, 동시, 작문 등 여러가지 종류의 글을 제 마음대로 짓게 되어있었다.

《아버지, 제 맘대루 제목을 달구 글을 쓰라면 좋겠어요...》

금희만 좋게 됐어요. 금희네 집이야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있어요?》

나는 딸애의 심정이 심분 리해되었었다.

앞집 금희라면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30 여년전에 친히 다녀가신 집의 손녀로서 내 딸과 한학급에서 공부하고있는 애였다.

서해기슭 항구도시에 자리잡은 한 이름없는 노동자의 집을 몸소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방안의 살림살이와 부엌 세간까지 친어버이사랑으로 살뜰히 보살펴주시며 물맛까지 보아주시고 주인집 학생의 앞날까지 깊이 헤아려주신 감명깊은 사연을 안고있는 뜻깊은 집이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집》, 《영광의 집》을 《우리 집》으로 쓰고사는 금희야말로 더없이 행복하며 은정넘친 집에서 사는 끝없는 자랑과 기쁨을 그대로 적기만 해도 금희의 글은 갈데없는 《명작》이 되리라는것이 내 딸의 소박한 생각이였다.

《아버지,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집에도 찾아오실수있겠지요?》

머루알같은 두눈에 희망과 기대를 담뿍 비껴담고 어린 딸이 하는 말이였다.

《아무렴, 이 저녁에라도 문득 찾아오실수 있지 않구. 늘 인민들속에 계시는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구 인민들이 사는곳이라면 그 어디나 찾아주시는분들이시니까.》

금시 붉은 꽃봉오리가 피어나는듯한 밝은 미소가 딸애의 얼굴에 피여났다.

순간 나는 어린 자식의 가슴속에 더 큰 기쁨과 기대와 신심을 불러일으켜주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애야, 너는 우리 집에도 그 얼마나 크나큰 행복과 영광이 깃들어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나는 무늬고운 벽지를 바른 채광밝은 벽면에 정중히 모셔진 사진액틀을 가리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15 여년전 나의 초소를 실무지도하실 때 함께 찍은 더없이 소중한 사진이었다.

이것은 내가 받아안은 다함없는 행복과 더불어
대를 두고 물려줄 한가정의 귀중한 가보였다.

뜨거운 마음을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자
애로운 영상을 우러러보는 나의 눈앞엔 감회롭던
그날의 생동한 화폭이 주마등처럼 펼쳐졌다.

환호! 만세소리! 격동적으로 울리는 환영곡! 흥
모와 걱정, 물결위에 답례의 미소를 보내시며
나의 일터를 찾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우
리가 만들어낸 미숙한 창조물을 보아주시며 과분
한 치하를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길을 환히 밝혀
주시던 예지로우신 그 모습!

오매불망 그이를 단 한번만이라도 뵈고싶던 그
소원이 그리도 빨리 이루어진것이 노상 꿈만 같
아 스스로 살점을 꼬집어보던 일이 사뭇 어제만
같다.

나는 어린 딸애의 가슴속에 그날의 그 환희와
행복을 그대로 안겨줄수 없는것이 무등 안타까왔
다.

《옛말에 이르기를 숲속에서 숲을 모르고 복속
에서 복을 모른다고 했다.

우린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것
이 어떻게 차례졌는가를 늘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구 이런 행복, 이런 영광이 우리 집만이 아
니라 동네방네 이웃들에도 다 차례지고있다는걸
잘알아야 해. 그래야 공부도 더 잘할수 있구 글
도 더 좋은 글을 쓸수 있다.》

나의 말에 귀를 강군채 벽에 모셔진 기념사진
을 점도록 바라보던 딸애가 신기한 발견이라도한
듯 찰싹 손뼉을 치며 말짓을 달았다.

《아버지! 우리 동네엔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
의 배려를 받은 집이 정말 많아요. 아래층 해영
언니는 서해갑문 건설때 지원사업 잘했다고 친애
하는 지도자선생님의 표창장을 받구 옆집 정순이
아버진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냈다고 시계를 선
물받구... 아마 그 애들은 그걸 다 글에 담겠지
요?》

우리의 이야기는 차츰 가치를 쳐서 인민반을
벗어나 동과 구역으로 변져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영웅적인 최후를 마
친 이고장 한 수산사업소의 평범한 선장에게 공
화국영웅칭호를 안겨주시고 그 자녀들을 혁명학
원에 불러주신 은정깊은 사연이며 구역안에서 태
어난 네쌍둥이의 출생을 온 나라의 경사로 소문
내주시고 그들에게 번듯한 2층 살림집을 새로 지
어주신 이야기들.

참으로 사랑과 배려의 사연은 끝이 없을상싶었
다.

이것이 한갓 내 집 이웃들과 한 동네, 한개 구

역안의 집들에 꽃피난 일화의 일단이거늘 전국적
인 판도에서 수천만 가정들과 못사람들에게 안겨
진 행복과 영광이야 그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
으랴.

되새길수록 나의 상념은 깊어만갔다.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의 빗발이 산간오지로부
터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골고
루 비치고 은정깊은 사랑이 공기처럼 짙 차있어
사람마다 복된 삶을 누리는 요람!

온 나라 인민을 친형제로 무어 혁명가로 키워
주는 자애로운 품!

이 위대한 당의 품이야말로 인민이라는 대가정
이 안겨사는 《우리의 집》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흥분과 걱정으로
부푸는 가슴을 억제할수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쉬운 말로 어린 딸을 깨우쳐
글짓기에 도움을 줄가 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이
생각 저 생각 굴리고있었다.

이때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맏아들이 의외로
나를 도와주었다.

대학 1학년생인 그는 강의가 끝난후에 학부별
예술소조경연에 출연할 음악소품훈련을 하다가
뒤늦게 돌아왔었다.

《아니 왜 이렇게 방안이 조용해요. 텔레비존도
켜놓지 않구?》

여느때없이 방안에 깃든 정적에 의아함을 느낀
맏이의 말이였다.

《오빠! 말시키지 말어, 지금 아버지 나의 글짓
기를 돕고계셔.》

막내딸이 곧추 세운 두번째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대며 짜증을 섞어 하는 말에 맏이는 오히
려 속이 누그러졌다.

그는 한눈을 찡긋해보이고나서 동생의 학습장
을 던지시 굽어보더니 한마디 희떠운 소리들 했
다.

《거 작문제목이 신통하다. 내가 이번에 담너 2
중창에 출연하는 노래제목하구 비슷한걸! 뭐가구?

응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

《뭐? 당의 품? ... 우리 사는 집?》

뿔로통했던 막내딸의 얼굴이 삽시에 밝아졌다.

그러자 맏이가 옷방에 올라가 기타를 가지고
내려오더니 제법 멋지게 전주를 켜고나서 구성진
목청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세상에 태어나 안기는 요람

정답게 키워주는 품이 있어라

아 노래부르자 은혜로운 그 사랑

영원한 행복속에 우리 사는 집

아 당의 품

풍만한 정서를 띠고 은은히 울리는 노래소리는
나의 가슴속에 다감한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일편단심 당을 믿고 어머니당의 품속에 삶을
꽃피워가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신뢰의
절절한 감정이 그대로 맥박치고있었다.

내가 어린 딸에게 깨우쳐주려고 한것도 바로그
것이였다.

《아버지 됐어요. 이제 나두 <우리 집>이란 제
목으로 작문을 멋지게 지을수 있어요.》

과연 어린 딸애의 목소리엔 신심이 어려있었
다.

《오냐 그럼 됐다. 꼭 좋은 글을 지어서 경사로
운 명절을 계기로 열린 이번 글짓기경연에서 상
을 받도록 하거라

그리구 만이야, 넌 그 노래를 대학예술소조경
연무대에서만 부를테냐? 우리 가족예술공연종목

에다두 그 노렐 더 넣자꾸나.》

어린 딸이 손벽을 치며 지지해나서자 만이가
다시 기타를 타는것으로 응수했다.

만이의 선창에 이어 노래가 시작되였다. 처음
은 3중창, 그다음은 혼성 4중창이 되였다. 부엌에
서 저녁을 다 짓고난 안해까지 목청을 합쳤던것
이다.

나라엔 아들딸 천만이어도
우리가 사는 집은 오직 하나뿐
아 노래부르자 당중앙을 따르며
대대로 운명을 함께 하는 집
아 당의 품

행복에 겨운 우리 집 창가에서 울리는 노래소
리는 경사로운 4월의 명절을 앞두고 더욱 화려하
게 단장된 불빛 밝은 항구도시의 하늘가 저 멀리
로 정답게 메아리쳐갔다.

병사의 집

진철현

정다운 고향의 산천이런가
수정같은 샘도 여기에 솟고
산새도 노래불러 반겨주는곳
하루의 전술훈련 끝마친 병사들
떠들썩, 숲속에 천막을 치네

어제는 이름 모를 강기슭에서
숙영의 한밤을 단잠으로 보낸 우리
투지와 용맹의 마음 다지며
높은 산, 험한 령 달려왔구나

해별에 그슬린 구리빛 얼굴들
자랑찬 훈련길에 웃음도 많은데
밤하늘의 별들이 천막가에 속삭이고
둥근 달 솟아올라 우리와 마주웃네

천막은 날마다 이슬에 젖고
이름 모를 숲속
주소없는 언덕에 세워져도
장령동지가 어김없이 찾아주고
명량한 협주단배우들이
노래 안고 춤 안고 찾아온다네

하루밤 지새면 다시 옮겨가는 집
병사의 집주소는 천만번 변해도
조국을 지켜가는 우리 병사들
충성의 자리에 영원히 서있는 집

인민의 뜨거운 당부를 안고
강물도 산악도 헤쳐넘으며
병사들이 사는 정든 집
집은 날마다 옮겨앉아도
조국을 떠메고 갈 기둥들이
날마다 함께 커가는 집

아, 백두의 그날에 시작되여
공산주의 그날까지 옮겨갈 집
우리 헤쳐온 그 길우에서
언제나 신념을 안겨주는 병사의 집

불속을 헤쳐 불속을 헤쳐
그 집에서 배운 혁명의 노래 안고
한생을 변함없이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리라!

위대성형상과 흙모의 정서

김성철

위대한 인간은 사람들로부터 흙모의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우리의 주체적 시가문학에서 기본정서의 하나로 되고있는것은 바로 이 흙모의 감정이다.

이 감정은 오늘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 품모에 완전히 매혹된 우리 인민들의 계급의식의 최고표현으로서 력사적으로 축적된 가장 진실하고 순결한 감정이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앙양되며 강렬해지고 지속되는 불변의 사상감정이다.

시인들이 바로 우리 수령, 우리 당에 대한 우리시대 인민들의 이러한 흙모의 감정을 깊이 체험하고 서정적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를 시적으로 천명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품만한 서정으로 더욱 돋구어낼 수 있는 근본고리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이 일정한 대상에서 생겨나고 표현되며 반작용하기때문이다.

흙모의 감정은 위대한 인간에게서 생겨나고 표현될뿐아니라 그 위대한 인간을 더욱 부각한다.

서정시문학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시인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열화같은 흙모의 세계를 깊이 체험할 때 품만한 서정을 안아낼수 있으며 그 정서적화폭우에 그 위대성을 더욱 빛나게 구가할수 있다.

그런데 이 흙모의 감정을 생활론리에 맞게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하기 위해서는 그 흙모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감정의 색깔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흙모의 감정은 시대와 체험에 따라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정서적색깔을 띠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의 양상은 결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언제나 력사적인 성격을 띠고 변화발전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흙모의 감정은 대를 이어 계승되고 시대와 생활의 변화발전에 따라 더욱 뜨거워지고 고조되는 감정이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우리 시인들의 일부 서정시들에서는 위대성에 대한 흙모의 세계를 피상적으로 대함으로써 흙모의 감정의 구체성, 다양성, 섬세성들이 무시되거나 그 색채를 정확하게 가늠하지 못한 까닭에 소재와 주제가 다를

뿐 시적형상의 개성과 독창성을 찾아볼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시인들은 《흙모》라는 개념에 대한 리해정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 감정을 진지하게 파고들어 정황과 체험에 따라 그 감정의 고유한 색깔로 특징화한 시적형상을 창조할 때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시가를 참다운 인간학으로, 위대성 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할수 있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완전히 매혹된 우리 인민들의 흙모의 감정은 시대와 생활의 변화발전에 따라 그 색깔도 한결같지 않다.

사람마다 체험하는 감정은 현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것이다.

현실이 감정의 바탕이고 감정이 현실의 특수한 반영형식이라고 할 때 변화발전하는 다양한 생활에 따라 그 감정의 색깔도 결코 일매질수 없다.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조국광복이 이룩된 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 당과 수령을 칭송하는 시가문학에서 우리 인민들의 흙모의 감정은 한색갈로 형상되지 않는다. 물론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흙모의 감정이 본성적으로는 변함이 없고 더욱 깊고 폭넓어지는것이지만 그 표현색채는 시기마다 꼭같은것은 아니다.

이것은 명작창작경험이 잘 보여주고있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칭송한 명작들은 모두 흙모의 감정을 구현하고있다. 다만 이 흙모의 감정을 소재와 종자의 요구에 따라 형상의 바탕에 깔았거나 형상의 전면에 내세웠을뿐이다. 그러면서도 이 명작들은 변화발전하는 사회력사적시기에 따라 당과 수령에 대한 흙모의 감정을 다양한 색깔로 특징화하고있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항일혁명투쟁의 초기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수천년 조국사에서 처음으로 솟아오른 민족의 향토성, 민족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끌어넘치는 흙모의 감정을 노래한것이다. 그런데 이 흙모의 감정을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활감정과 결합시켜 시화한데 그 특색이 있다.

그 전통적인 감정이란 무엇인가.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에게 새별은 행복과 념원의 상징으로 리해되어왔고 불행과 경난 속에서 인민을 구원할 불세출의 위인의 출현을 계시하는것으로 파악되어왔다.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의 서정적주인공이 체현한 우리 인민들의 흙모의 감정이 바로 이

전통적인 감정과 결합되었을 때 어떠한 의미 색채를 띤 것이겠는가.

이 흠모의 감정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천기를 타고난 위인, 해방의 구성으로 믿는 절대적인 신념의 감정, 온갖 주의주장으로 오염된 시대의 흐름속에서 갈길 몰라 헤매이는 우리 인민을 이끌어주는 향도성으로, 망국노의 처지에 빠진 인민의 해방과 조국의 찬란한 래일을 밝혀주는 광명성으로 길이 빛나리라는 확신적기대와 념원이 얹혀져 있다.

이리하여 명작의 서정적주인공의 흠모의 감정은 항일혁명투쟁의 첫 기슭이라는 역사적시기에 맞게 구체화되고 독특한 색깔을 구현하고 있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된 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흠모하여 노래한 것이다.

이 흠모의 감정은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맞이한 우리 인민의 기쁨과 영광, 긍지와 자랑, 절절한 경모와 심장으로 체득한 신념과 의지에서 피어나는 칭송과 제찬의 감정과 결합되어 있다.

장백산 줄기줄기와 압록강 굽이굽이에 새겨진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한 이 시적형상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한 민족의 태양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이 담겨 있다.

또한 말 못하는 만주벌 눈바람과 밀림의 긴긴 밤에 호소를 부치며 만고의 빨찌산이, 절세의 애국자가 다름아닌 위대한 장군님이시라는 것을 긍지와 자랑에 넘쳐 확인하고 있다. 혁명송가는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상징한 피어린 자욱을 눈바람과 밀림의 밤에 굴절시켜 인민대중에게 해방의 은인이시고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인민적, 전민족적 흠모와 제찬의 뜨거운 열정을 분화구처럼 터치고 있다. 혁명송가는 이러한 감정을 태양의 빛발아래 새 사회 건설에 펼쳐나선 시대의 약동하는 정서로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충성의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여나가야 할 시기에 창조된 작품이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완성된다. 이로부터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야 하며 수령의 혁명업적을 끝까지 고수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하여야 한다. 수령의 위대성을 칭송한 시가작품에서 형상되어야 할 필수불가결의 사상감정이 바로 이 충성의 감정이다.

이것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매혹된 우리 시대인간들의 흠모의 감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가장 진실한 감정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시가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내용의 하나는 다름아닌 수령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사상정서이다.

충성의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는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신 수령님의 품속에서 오늘의 이 행복이 마련되고 꽃피었으며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모시고 받들며 하늘땅의 끝까지 따르리라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의지, 신념의 세계를 장중하고도 웅심있게 노래하고 있다.

이 충성의 송가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우리 인민의 흠모의 감정을 인민들의 최대의 념원인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감정과 결합시켜 노래함으로써 새로운 감정의 색깔로 우리 시대 인민들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특색있게 일반화하고 있다.

이처럼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흠모의 감정은 시대와 생활의 변화발전과정에서 다양한 색깔을 띠고 형상되고 있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그 흠모의 감정이 전통적감정과 결합되면서 확신적인 기대와 희망의 빛갈로 밝게 형상되고 있으며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그 흠모의 감정이 영광과 긍지, 약동하는 숨결로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는가하면 충성의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는 그 흠모의 감정이 만수무강 축원의 감정과 융합되어 위대성을 무게있고 장중하며 웅심있게 노래하면서도 밝고 뜨겁게 형상하고 있다.

확신적인 기대와 희망, 영광과 긍지, 축원의 감정들은 모두 밝은 정서와 잇닿아 있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시가창작에서 이 밝은 정서도 당과 수령에 대한 흠모의 감정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이 밝은 정서는 흠모의 감정과 다양하게 결합되어 위대성 형상을 특색있게 구현하는데 바로 거기에 자기의 형상적몹이 있다.

우리 시인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뜨겁고 절절하고 고조되는 흠모의 감정을 시대를 특징지을수 있는 시적형상으로 다양하게 담구해나가야 한다.

여기에 바로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명작창작의 방도의 하나가 있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시가작품에서 우리 시대 인민들의 흠모의 감정은 시대와 생활의 변화발전에서만 아니라 그 체험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띠게 된다.

물론 시대와 체험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러나 한 시기, 한 대상에 대한 생활체험에 따

라 그 감정은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그것은 위대한 인간에 대한 흠모의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위대한 인간에 대한 체험의 계기, 체험하는 인간의 사상정신적높이에 따라 흠모의 감정의 농도와 색깔은 달라지게 된다.

가사 《그 품 떠나 못살아》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감정을 따스하고 자애로우며 친근한 정서로 노래한 작품이다. 이 가사는 당과 인민의 혈연적관계로 조성되는 계기들에서 체험하는 서정적주인공의 흠모의 감정을 그에 맞는 정서적색갈로 정확히 감각표현하고있다.

인간의 감정가운데서도 첫번째 감정이 기쁨이다. 기쁨은 인간의 감정가운데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며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기쁨의 감정은 그 갈래도 수없이 많다.

가사의 서정적주인공이 체험하는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혁명전사들을 손잡아 이끌어 키워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안은 기쁨이다.

흘러가는 생활우에 기쁨의 꽃을 많이 피운 인간에게는 추억도 많다. 그 추억가운데서도 잊을수없는 추억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시며 크고작은 잘못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타일러 일깨워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그 은정에 대한 추억이다. 그런데 그 추억은 지난날에 대한 추억으로만 남아있는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보람으로 더욱 활짝 피어나고있는 추억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자식들에게 피출처럼 흘러드는 사랑이 아닌가.

이처럼 가사는 서정적주인공이 체험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어머니품처럼 따스하고 친근하며 자애로운 감정과 결합시키면서도 《그 품 떠나 못살아》에서 표현되는바와 같이 심장에서 남몰래 폭발하는 강렬한 감정으로 승화시키고있다.

가사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와 함께》는 언제나 인민의 마음속에 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처음부터 환호와 감격의 감정과 결합시키면서 심장으로부터 밖으로 분출시키고있다.

친애하는 그이를 온 나라 가정의 아버지로 모신 그 행복, 세상이 모두 다 아는 그이를 지도자로 모신 그 영광으로 하여 서정적주인공의 흠모의 감정은 드디어 만세로 터져오른다.

가사 《그 품 떠나 못살아》, 가사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와 함께》가 노래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의 감정은 정황과 체험에 따라 그 하나는 심장속의 내적인 폭발로 표현되었고 다른 하나는 그 심장속의 외적인 분출로 터치고있다.

참으로 이 두 가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흠모의 감정을 노래하면서도 체험에 따르는 각이한 정서적색갈로 특색있는 시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서정시 《만수대》와 《기쁨의 담시》는 다같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탄복의 정서로 뜨겁게 노래한 작품들이다.

일반적으로 경탄과 탄복감은 가장 존엄있고 권위있는 위대한 인간에 대한 태도의 반영이다.

당과 수령의 위대한 위업, 불멸의 업적, 위대한 품모는 끝없는 경탄과 탄복을 불러일으킨다. 이 정서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시가의 서정적주인공의 흠모의 감정을 더욱 양양되게 한다. 그러나 그 탄복의 정서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에 따라 다른 색깔로 구현된다.

서정시 《만수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집대성되어있는 만수대언덕을 우러러 서정적주인공의 한없이 숭고한 흠모의 감정을 노래하고있다. 서정적주인공은 쳐다보며 오를 때엔 모래알처럼 느껴지던 자신의 존재도 돌아서 내릴때엔 산악보다 거창함을 깨닫게 하여주는 만수대, 이 만수대를 인간만세의 무궁한 령마루로 체험한다.

여기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탄복감이 터져오르고있다. 그러나 이 탄복감은 곡절많은 한생을 매듭짓고 새 투쟁의 전구로 영생하는 진리를 안고가는 영광을 지닌 전사의 탄복감인 까닭에 서정적주인공의 흠모의 감정은 극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기쁨의 담시》는 낚시터에서 만나주신 학교리 발사로인에게 장한 일을 맡았다고 치하해주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흠모의 감정을 탄복감의 정서로 더욱 끓어오르게 노래하고있다.

그러나 이 시의 서정적주인공의 흠모의 감정은 《만수대》와는 또 다른 탄복의 정서적색갈로 둔구어지고있다. 《기쁨의 담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의 흠모의 감정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직업의 영예감에서 환기된 만족감, 행복감과 결합되면서 보다 부드럽고 황홀한 정서로 한껏 무르녹고있다.

이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흠모의 감정은 시대와 생활의 변화에 따라 또는 동시대인간들의 체험에 따라 다양한 정서적색갈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흠모의 감정에 대한 정서적색갈을 정확히 가늠하고 형상할 때 생활의 본질을 뚜렷하게 표현할수 있다.

우리 시인들은 당과 수령을 칭송하는 시가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흠모의 감정을 생활의 본색에 맞게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주도적 감정을 더욱 풍만한 서정으로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산정의 랑만

석남진

동무들은 천천히 자동차를 타고가자고 했지만 금희는 철길을 따라 걸어가겠다고 했다.

《우리가 건설한 철길을 마지막으로 밟아보고 싶어요. 차를 타고 훌 지나가버리면 철길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철길에 그 어떤 감정이라도 있는듯이 말하는 금희의 눈빛에는 정말로 정든 그 무엇과 헤어지는 듯한 아쉬움이 깃들어있었다. 어쩐지 가슴이 따듯해진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왜 섭섭해하지 않겠소? 금희동무가 떠나면 철길이 틀림없이 눈물을 툭툭 흘릴거야.》

《아이참.》

금희는 곱게 눈을 흘겼다.

나는 금희와 함께 역까지 나가기로 했다. 아무런 구속도 느끼지 않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눌수 있는 이런 기회는 우정 만들자고 해도 힘들것이다.

청년돌격대 숙소에서 새로 생긴 역까지는 두시간 착실히 걸어야 한다. 나와 금희는 열차시간을 타산하여 일찌감치 길을 떠났다. 나의 등에는 금희의 터질듯 뻗뻗한 배낭이 지워져있었다.

《둘이 걸어간다고 동무들이 놀려대지 않을까요?》

《까짓, 놀려댈테면 대라지. 하지만 중요한건 그게 아니지, 중요한것은.》

나는 금희를 쳐다보았다. 푸른 숲을 배경으로 철길위에 서있는 금희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좀 작을사한 키였지만 균형이 잡힌 날씬한 몸매, 찬바람과 해별에 타서 가무스레해진 얼굴에 머무알처럼 반짝이는 까만 눈,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칼은 뒤로 묶어서 흰목이 상큼하니 드러나보인다. 선이 명확한 입술은 아래입술이 약간 부을사해보였다. 보위색의 청년돌격대복장은 그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나는 아직 그가 고운 샤쓰에 치마를 받쳐입은것을 본적이 없다.

《그래 중요한게 뭐예요?》

금희의 호기심어린 눈초리가 나를 지켜보며 다 음말을 재촉하고있다.

《그게 뭐가 하면.》 나는 히죽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금희를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올수 있다는거야.》

《아이참, 또 허튼소리.》

금희는 금시 새침해지며 돌아섰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처녀다운 태가락이라는것을 알고있다. 저것 보지. 옥문 입술사이로 가늘게 웃음발이 내번지고있는것을.

《금희동무.》

나는 조심히 금희의 어깨를 건드렸다.

금희는 시끄러운것을 털어버리듯 어깨를 흔들었다. 나는 흠칫하며 손을 움츠렸다. 그러다가 정색해서 말했다.

《진짜 성났소?》

《몰라요. 거짓말쟁이.》

책 돌아서는 금희의 얼굴에 언제 성났던가싶게 기쁨이 남실거린다.

《허허.》

나는 어깨를 들썩이며 크게 웃었다.

《다시 한번 그런 소리하면 알지요?》

금희는 위협하듯 작은 주먹을 흔들며 엄포를 놓았다. 그 주먹에 맞으면 아프기는커녕 간지럼을 탈것만 같다.

《그러지. 누구 명령이라구. 자 이젠 걷지요.》

우리는 다시 걸었다.

철길은 울창한 수림속을 뚫고 두줄기의 떠오리처럼 멀리 굽인돌이로 아득히 사라져갔다. 아침 해빛이 무수한 은빛화살처럼 뜨겁게 철길위에 내리쬐린다. 그 해빛을 받아 철길은 도금철을 한것처럼 번쩍번쩍 푸른 숲에 반사광을 던진다.

《이제 저 굽인돌이를 돌아서면 학교개지요?》

금희가 발랄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학교개지.》

우리 러단은 후창부근의 30 여리구간에 로반을 담고 철길을 건설하였다.

러단이 맡아 수행한 공사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공사가 4 만립방미터에 달하는 암석을 까부셔야 하는 학교개절토공사와 100 메터차굴공사였다. 러단의 《돌격중대》로 소문난 우리 중대는 처음부터 저

학교개절토공사의 일익을 담당하고 기세를 올렸었다.

나의 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졌다. 학교개에서 그 어떤 기쁨이 나를, 금희를 기다리고있을것만 같다. 굽인돌이를 돌아서니 깎아지른듯한 학교개가 천연의 병풍처럼 눈앞에 다가선다.

학교개, 저 바위의 중턱에 허공중 매달려 함마를 휘두르며 발과구멍을 뚫던 그 나날에 나는 수리개였다. 귀전엔 사나운 눈바람이 뽀뽀 소리내며 울부짖고 주위엔 온통 은빛가루같은 눈보라가 일었다. 발밑 저아래 두텁게 얼어붙은 압록강마저 눈보라에 가리워 보이지 않고 몸은 허공을 날고있는것만 같았다.

《정만이, 정대를 단단히 잡으라구.》

나는 나의 짝패인 정만을 건드리며 소리쳤다. 바람소리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지 정만이 큰 소리로 되묻는다.

《뭐라구?》

《정대를 단단히 잡으란말이야.》

대흥산골에서 감자농사를 짓다가 돌격대에 나 온 정만이는 함마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계공장에서 몇년 로동을 한 경력이 있는 나는 이런 일에는 자신이 있었다.

땡땡...청춘의 피를 끓이고 강추위속에서도 이마에 콩알같은 땀방울을 땀히게 하는 함마질...

허리를 휘감은 바줄이 흔들릴 때마다 한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 같았지만 나는 청춘의 날개를 달고 날으는 수리개였다.

북방엔 눈이 많이도 내린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던 어느날 작업의 실참에 나는 깜빡 잠이 들었다. 어제밤 휴식명령을 어기고 몰래 《도적작업》을 하다나니 어지간히 피곤이 몰렸던것 같다.

얼마나 잤는지... 《동무!》, 《동무!》하며 누군가 어깨를 마구 흔드는바람에 나는 눈을 떴다. 웬 낯모를 처녀가 겁질린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있었다.

《무슨 일이요?》

내 말에 처녀는 《어마나?》하고 놀라더니 어이 없는 표정을 지었다.

《모두 작업을 올라간지 언제라구...》

《뭐요?》

나는 벌떡 일어서며 두덜거렸다.

《이치를 깨우지두 았구...》

내 몸을 덮었던 눈이 발앞에 한삼태기나 되게 쌓이였다.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며 처녀가 나무라운 어조로 말했다.

《그렇게 눈이불을 덮고있으니 누가 알겠어요. 제가 발에 걸려 넘어졌으니 망정이지...》

《아하, 일이 그렇게 됐는가?》

나는 비로소 사태를 짐작하며 새삼스럽게 처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있었다. 내리는 흰눈속에 처녀의 모습은 홀로 핀 만병초처럼 아련해보였다.

《그런데 동무는... 누구요? 처음 보는데...》

처녀는 수집음을 머금고 조용히 웃기만 하는데 대답은 왕창같이 어꺼내머에서 들려왔다.

《이름은 김금희, 직업은 xx 호텔 접대원.》

작업장에서 나를 찾아내려온 정만이었다. 그의 소개에 처녀는 부끄러운듯 낯을 확 붉히더니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고개를 외로 약간 숙인채 총총히 눈발속을 걸어가는 처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선 나에게 정만이 설명해주었다.

《에이 이 둔자, 동무가 끼고있는 그 장갑도 어제 저 처녀가 지원물자로 가지고온거란말이야.》

나는 숨을 두툼히 둔 따스한 벙어리장갑을 내려다보았다. 로동보호물자겠거니 했더니 그런 지성이 깃든 장갑이었다.

《휴가기간을 다 여기서 바치겠다고 하더군. 벌써 우리 중대 돌격대원으로 등록했네.》

정만은 처녀에 대해서 잘 알고있는것을 은근히 자랑이라도 하는것 같았다.

나는 정만의 어깨를 쥐어박으며 말했다.

《잠자바우가 날쎄데. 어느새 벌써...》

나는 이렇게 금희를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3년전 저 학교개우에서였다.

귀기울이면 저멀리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다. 폭풍과도 같은 우렁찬 합창소리, 씩씩한 독창소리,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던 혼성 2중창, 손풍금, 기타, 북소리...

우리는 언제나 노래와 함께 살고 노래와 함께 일했다. 맡겨진 과업이 어려워도 힘겨워도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사기를 올렸다. 다시한번 여기서 듣고싶다. 그날의 그 노래 그 웃음소리를...

금희가 우리의 오라회에 처음 참가하여 땀을 뻘뻘 흘린 일이 어제런듯 눈앞에 삼삼하다. 그날도 작업의 실참에 오라회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처녀지원자의 노래를 듣고싶다고 요청하였다.

오라회책임자는 정만이었다. 산골내기지만 그의 비위와 익살은 누구도 당하지 못했다.

《자자, 나오시오. 말씨꼭고 얼굴 또한 기닥막히게 고운 처녀동무, 노래 한마디 잘 부르면 내 기닥막힌 신랑감을 얻어주리다.》

《어머나!》

금희는 새빨개진 얼굴을 폭 숙이며 비명을 질렀다.

《전 노래를 못해요. 아이 속상해.》

우리는 정만의 편을 들어 박수를 치면서 목소리를 합쳤다.

《빨리빨리 나오시오. 안나오면 머저리...》 누군가 《안나오면 할망구.》하고 소리치는바람에 웃음판이 터졌다.

금희는 정만이가 무작정 손목을 잡아이크는통에 하는수없이 청년들앞에 나섰다. 정만은 손풍금수 처녀와 나를 앞으로 불러냈다.

《자, 여기 리도령이 반주하러 나갑니다.》

나는 중대의 기타수였다. 그러나 숨씨는 홀로한 편이 못되었다. 고등중학교시절 음악소조에 들어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으나 도무지 전진이 없어 스스로 나오고말았던것이다. 그래도 음악을 좋아하여 공장에서 로동을 하면서도 제멋대로 기타를 뚱뚱거렸고 돌격대에 나오면서도 잊지 않고 기타를 메고왔었다.

《아이, 전 노래는 못해요.》

금희는 번쩍거리는 손풍금과 기타를 보자 기겁하여 두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전 차라리 시를 하나 읊겠어요.》

《안되오. 노래를 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난 동무를 책임못져.》

정만이는 자기가 마치 금희의 보호자라도 된듯 심각해지며 말했다.

어찌된 일인지 정만은 자기를 장가도 들고 산전수전 다 겪은 년장자로 행세하기를 좋아했다. 불편에 수염이 거뿔한데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지라 처음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를 정말 아이

아버지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나와 동갑이었다.

정만은 나를 가리키며 금희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녀동무, 어서 노래를 멋드러지게 불러 이 동무에게 점수를 좀 따오. 내 장담하건대.》 정만은 나의 어깨를 툭툭 치며 선언하듯 소리쳤다.

《은 세상을 살살이 훑어도 이만한 총각은 없소. 음-그렇지 않구.》

금희는 어처구니없는듯 얼굴을 외로 돌리고 한 손으로 입을 감싸며 웃었다.

나는 목덜미가 뜨끈하게 달아올랐다. 놀림가마리에 든것 같아서였다. 내 혼자 생각에도 나는 남자로서 그다지 잘난척이 못된다. 체격은 다부졌지만 얼굴에 드문드문 박힌 주근깨가 늘 나의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유쾌한 오락회관에 성을 낼수도 없어 허허 웃고말았다.

정만의 승벽과 우리들의 요청에 지고말았는지 금희는 노래 《젊은 기관사》를 부르겠다고 했다.

이윽고 웃음소리는 가라앉고 조용해졌다. 잠시 눈을 감박거리며 발끝을 내려다보던 금희는 머리를 쳐들고 먼산을 바라보며 보르르한 숨털에 둘러싸인 귀여운 입을 벌렸다. 동무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금희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고 나는 신명이나서 기타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을 비낀 철길 우에...》 하고 울려나오던 노래소리는 보이지 않는 구멍속으로 스며들듯 점점 작아지더니 푹 끊어졌다. 그다음 《아이 속상해. 전 온찌예요.》 하는 말을 남기고 금희는 끈질긴 정만이라도 어쩔새없이 도망치고말았다. 나도 동무들도 끝내 금희의 노래를 들을수 없었다. 그후 우리는 금희를 《온찌동무》라고 불렀다. 그래도 그는 그저 웃을뿐이었다.

보름이라는 그의 지원기간도 다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학교개절로작업의 나날에 중대에서는 매일이다싶이 작업현장에서 이동식사를 조직하곤 하였다. 작업장에서 숙소까지 오고가는 시간이 아까웠던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산마루에 우등불을 지피고 그곁에 둘러앉았다. 처녀돌격대원들이 식사를 이고지고 고개길을 올라왔다. 고개길은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는통에 눈이 팡팡 다져져 얼음판처럼 미끄러웠다.

하지만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좋았다. 오를 땀 서로 넘어지라고 밀치고 당겼으며 한사람이 넘어지면 와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또 고개길을 내려갈 땐 스키를 타듯 썰-미끄러져내리는것도 하나의 재미였다. 그런데 그 고개길이 일을 칠줄이야.

국바께쓰를 들고 올라오던 금희가 미끄러져 넘어지며 국을 몽땅 쏟아버리고만것이다. 나는 흠칠 놀라며 엉겨주춤 몸을 일으켰다. 금희는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몸둘바를 몰라하며 망연히 국바께쓰만 내려다보고 서있었다. 그는 두손을 가

슴에 모두어잡고 《이걸 어찌나...야, 정말...》 하고 안타까이 중얼거렸다.

어쩐지 나의 잘못으로 금희가 국을 쏟친듯한 죄의식이 갈마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때 정만이가 다가가서 손을 쑥 내밀며 말했다.

《금희동무, 악수합시다.》

금희가 어리둥절해 정만이를 보는데 그는 억지로 금희의 손을 잡아흔들며 큰소리로 말했다.

《동무 오늘 국을 쏟길 정말 잘했소. 수고했소. 난 원래 국을 좋아하지 않소. 그래서 사실 이자까지 그 뜨거운 국을 어떻게 먹나 하고 걱정하던 참에 동무가 넘어지더란말이요.》

와-웃음이 터져올랐다. 금희도 어쩔수 없이 한 손으로 달아오른 볼을 감싸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정만이가 고마왔고 어떤 정황에서도 유쾌하게 웃음을 끌어낼줄 아는 그의 익살이 부럽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자 우리는 또다시 오락회를 벌렸다. 정만이가 나서서 쉰 목소리로 노래 한곡조 뽑더니 주위를 휘돌러보며 소리쳤다.

《오늘따라 지원자처녀동무 덕분에 맛있게. 점심식사를 했은즉 목구멍도 활 열렸겠다 자, 누구든지 나오시오, 무대는 넓고 공기도 좋고 이 오락회책임자의 기분도 좋소. 자 누가 나오겠소?》

정만은 나를 먼저 끌어냈다.

《자 철수동무, 소대장동무가 먼저 본패를 보여야지. 어서 나오시오.》

그날아침 나는 소대장으로 임명되었었다. 그러니 인사차림을 하라는 소리다. 나는 동무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나섰다. 기타를 타며 어렵지 않게 한곡조 뽑아넘겼다. 다음은 내가 누군가를 지명해야 했다. 나는 웃으며 동무들을 둘러보았다. 앉아있기가 갑갑해난다는듯 엉치를 들썩거리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저 눈동자들, 저건 자기를 불러달라는 신호이다. 그런가 하면 우정 무관심 하듯한 표정을 짓고 다른데 헛눈을 파는척하는 저기 저동무에게선 자기를 지명해도 좋고 안해도 좋으나 만약 지명받으면 남못지 않게 훌륭하게 노래를 부를수 있다는 배심이 엿보인다. 나의 눈길이 금희의 눈길과 마주쳤다. 금희는 황황히 눈을 내리칸다. 나는 그를 지명하고싶었다. 그의 노래를 듣고싶기도 했지만 그보다 딱히 설명할길없는 그 어떤 감정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싶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신의 이런 심정을 엿보이는것이 창피하였고 노래를 할줄 모른다는 그를 난처한 처지에 빠뜨릴가봐 두렵기도 했다. 나는 눈길을 돌렸다.

《에 누구를 지명하겠는고 하니 김...이름이 뭐드라. 잘 생각나지 않는군. 어험...》

헛기침을 짓던 나는 또다시 금희와 눈길이 마주쳤다. 그는 이번엔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다만 얼굴이 빨기우리해지는것 같았다.

《자, 이렇게 답답하다구야. 왜 말을 못하나?》

정만이는 두덜거리며 나에게 다가오더니 귀가에 손을 오그려 붙이고 내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는 알았다는듯 머리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알겠소, 알았다니까. 소대장동무가 이렇게 부끄럼을 탈줄은 몰랐군.》

정만은 금회를 소리쳐불렀다.

《자, 지원자처녀동무, 일찌기 자랑스럽게도 <온찌>라는 칭호를 받은바 있는 금회동무를 지명하고 싶단누만.》

박수가 와 터져오르는데 정만은 시치미를 뻗 따고 얼굴이 벌개진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 김금회라고 찾기가 그렇게도 힘이 든단 말인가?》

일은 참 우습게 되었다. 이건 벽도 문이라고 내미는 판이다. 그래도 할수 없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부끄러워 어디론가 몸을 숨길줄만 알았던 금회가 조용히 웃으며 일어섰던 것이었다.

《자, 박수! 평양대극장에 가셔도 들을수 없는 처녀명가수의 독창!》

나는 기타를 내던지고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박수를 쳐댔다. 정만이가 거짓말(그러나 노상 거짓말은 아닐것이다.)은 했지만 금회가 나의 이름을 건 그 요청을 받아들인것이 기뻐다. 한편으로 금회가 노래를 하다가 또 도망치지 않겠는가 불안하기도 했다. 금회는 자신없어하는듯하면서도 결단성이 느껴지는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사나운 추위속에서 철길을 놓느라 수고하는 청년돌격대원동무들을 위해서... 온찌지만 노래를 부르겠어요.》

금회는 나와 눈길이 마주치자 따뜻한 눈웃음을 보냈다. 이윽고 처녀의 노래소리가 서서히 나래를 펴고 날아올랐다.

노을비낀 철길위에 젊은 기관사

기적소리 울리며 기차를 몰았네

정말이지 금회의 목소리는 탁 트이지 못했고 너무 긴장한탓인지 노래가사도 몇군데 틀렸지만 누구도 웃음을 터뜨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의 노래를 들었다. 얼굴이 고운 처녀가 노래를 잘못한다는것이 어딘가 잘 조화되지 않는감을 주었으나 처녀가 우리들, 돌격대원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 나에게 귀중했고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그날밤 나는 잠들수 없었다. 고개길에서 넘어져 국을 쏟아버리고 어쩔바를 몰라하던 금회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왔다.

나는 자리에서 슬며시 일어났다. 조용히 sap을 찾아들고 학교개쪽으로 걸어갔다.

스적스적 고개길을 향해 올라가던 나는 깜짝 놀랐다. 한 처녀가 곡괭이로 고개길에 얼어붙은 눈을 까내고있었던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금회였다. 틀림없이 금회였다. 가슴이 기쁨과 환희로

가득찼다. 바다물처럼 뒤설레이는 환희가 어디서 온것인지 명백히 표현하기는 어렵다. 깊은밤 산길을 홀로 가던 고독한 나그네가 친근한 길동무를 만난 반가움과 같은 감정일수 있다. 혹은 금회와 우연히 마음이 꼭 맞았다는 신비스럽게까지 느껴지는 신통함에서 온것일수도 있다. 그리고 좀 부끄러운일이지만 인적없는 고요한 밤에 매혹적인 처녀(나는 이렇게밖에 달리는 표현할수 없다.)와 단둘이 만났다는 기쁨일수도 있었다. 나는

《금회동무.》하고 소리치며 달려올라갔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불러본 그의 이름이었다. 금회도 허리를 펴고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 기쁨과 의욕이 한꺼번에 스쳐지나갔다.

《아니 소대장동무가 어떻게?》

좀 섭섭하였다. 철수동무라고 찾아주었으면 싶었다. 하지만 괜찮다. 소대장이든 철수든 마찬가지.

내가 고개길에 계단을 만들려고 나왔다는것을 알자 금회는 강충 뛰다싶이하며 손뼉을 쳤다.

《야, 정말 좋네. 난 그저 얼어붙은것만 까내려고 했는데 ...》꼭 어린 소녀같았다. 친누이동생을 대하는것 같은 친근감이 나의 가슴을 몽쿨하게 했다. 이 순간엔 금회와 나 사이에 어떤 간격도 있어보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허물없이 할수 있을것만 같았다. 나와 금회는 한참 신고하여 계단이라고 할것까지는 못되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숙소로 돌아오던 그 길을 잊을수 없다. 휘영청 밝은 달이 머리위에 높이 떠있었다. 강산을 덮은 흰눈의 투명한 빛과 푸르고 은근한 달빛이 어둠속에 차흐르며 청춘의 가슴을 마냥 설레이게 했다.

《소대장동무.》

이런 말 저런 말끝에 금회가 물었다.

《소대장동무는 북부철길 건설장에 나온지 몇해나 됐어요?》

《이젠 2년이 됐소.》

《자원했는가요?》

《그렇지 않구.》 나는 어느 시구절에서 본 멋있는 말마디를 생각해내느라 애쓰며 시를 읊듯 말했다.

《청춘의 불타는 심장이 우리를 여기로 불렀거니, 그 누가 우리 앞길을 막을수 있으랴!》

금회는 내 노는 모양이 우스운듯 가르르 웃었다. 그러더니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동무들의 그 열정과 담력이 부러워요. 만약 누가 나더러 이제부터 너도 여기서 청년돌격대원이 되어 일하시오 라고 한다면.》 처녀는 한동안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난 섣뽕 <예.> 하고 대답하지 못할거예요.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처녀는 내 눈치를 살피더니 침울하게 말했다.

《용서하세요. 제가 쓸데없는 말을...》

무엇인가 가슴을 쿵-치는바람에 나는 다시 한번

처녀를 쳐다보았다. 나의 눈앞에는 미끈한 체격에 얼굴이 불깃불깃한 한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다. 북부철길 건설장으로 떠나는 나에게 그는 말했었다.

《심사숙고하라구, 후퇴하게 될수도 있으니...》

그 친구의 말에서는 분명히 외면과 조소가 느껴졌지만 이 처녀의 말에선 따뜻한 긍정과 그러면서도 선뜻 한몫을 내대지 못하는 피로운 심증이 느껴진다.

이 처녀는 솔직하다. 누가 그것을 탓할수 있겠는가? 나는 머리를 숙이고 걷는 처녀에게 말했다.

《난 누구나 다 여기와 일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소. 북부철길 건설을 진심으로 돕고 지원하려는 그 마음이 귀중한거지요.》

이윽하여 나는 궁금하여 물었다.

《언제 떠날 생각이요?》

처녀는 호-한숨을 내쉬었다.

《전 래일 떠나야 해요. 휴가기간이 다 됐거든요.》

나는 눈이 멍글해졌다. 어느새 벌써 그렇게 됐는가.

놀라움끝에 찾아든것은 섭섭함과 야릇한 애수였다.

그런데 왜 이 처녀는 꼭 가야만 하는가? 가지 않으면 안된단 말인가?

부드러우면서도 묵중한 그 무엇이 가슴을 압박하는것 같았다.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고싶어 나는 우정 밝게 웃으며 물었다. 후에 편지하면 회답해주겠는가고.

금희는 그게 참말인가고 묻는듯 나를 쳐다보더니 웃음을 날렸다.

《소대장동무가 뭐 저같은 너자에게 다 편지를 쓰겠어요?》

믿지 않는다는 태도갈기도 하고 일부러 대답을 피하는것 같기도 하였다. 물론 내가 정말 금희에게 편지를 쓰게 되겠는지 그것은 나 자신도 똑똑치 않았다. 다만 그렇게 쉽사리 잊어버릴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을뿐이었다.

금희는 허리를 굽혀 눈을 한줌 두손에 그러모아 뽕뽕 빗기 시작했다. 마치 그의 자그마한 두손에서 동그스름하게 빛어지는 눈덩이처럼 그 어떤 결심을 뽕뽕 다지는듯싶었다.

이튿날 금희는 떠나갔다. 동무들과 함께 금희를 배래우면서 나는 생각했다.

다른 지원자들처럼 결국 금희도 떠나가는구나. 평범한 처녀였지만 류달리 인상이 깊었다. 하지만 그 인상도 날과 달의 흐름속에 희미해지고 어느때가는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지고말것이다. 잘가라, 귀여운 처녀야.

×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금희의 맑고 깨끗한 눈동자가 짙금히 나를 쳐다본다. 그 눈에는 내 마음속까지 환히 비쳐질것

만같다.

《동무가 저 학교개에서 노래를 부르던 생각을 했소.》

나는 웃으며 아찔한 학교개를 가리켰다. 학교개를 바라보던 금희는 참지 못하겠다는듯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창피해서 혼났어요.》

나는 그러는 금희를 여겨보며 응글은 목소리로 노래 《젊은 기관사》의 첫 구절을 뱉다. 금희가 주저없이 노래를 따라불렀다. 호젓한 길이다보니 부끄러울것도 없다는듯한 태도였다. 내 노래가 출렁이며 흘러가는 강물이라면 금희의 노래는 그 물결을 스치며 날으는 제비와 같다고 할가? 우리의 노래소리는 거침없이 푸른 하늘가 멀리로 울려퍼진다. 하늘엔 흰구름 두둥실 떠가고 압록강 물결우엔 폐목이 흐른다. 폐목우의 류벌공청년이 우리를 향해 《여-》 하고 소리치며 손을 흔든다.

《저것 보세요. 폐목을 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가요?》

금희는 이렇게 말하며 류벌공청년을 향해 마주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나의 추억은 끝없이 이어진다. 나는 벌써 우리 중대에 다시 나타났던 그 날의 금희를 바라보고있다.

학교개가까이에서 웅벽쌓기작업을 진행하던 어느날 뜻밖의 기쁜 소식이 작업장에 전해졌다. 배당을 댈 금희가 중대부에 나타났다는것이였다. 그소리를 듣자 나의 가슴은 놀뛰기 시작했다.

그동안 금희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편지도 오고간것이 없었다. 가끔 금희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나는 머리를 흔들며 그 모습을 지워버리곤했었다.

그랬던 금희가 꼭 석달만에 다시 이곳에 왔다. 어떻게? 무슨 일로? 당장 중대부로 달려가 금희를 만나보고싶었다. 금희의 웃음짓는 그 얼굴을 가까이 보며 《안녕하세요?》 하는 그 다정한 인사말을 듣고싶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지으며 떠들썩하는 동무들에게 소리쳤다.

《왜 이렇게 들떠서 그러오? 자 하던 일을 마쳐 끝냅시다.》

그런데 이때 중대장과 함께 금희가 나타났다. 낮익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푹 멎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동무들이 환성을 지르는통에 마음속에 준비해두었던 인사말도 하지 못했다.

중대장이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말했다.

《금희동문 이젠 우리 중대 대원이요. 청년돌격대원이란 말이요.》

금희가 청년돌격대원이라니? 처음엔 잘 믿어지지 않았고 다음엔 가슴에 깃들이는 기쁨의 종달새가 이 순간이 지나면 저 멀리로 훨 날아가버리 지나 앓을가 하는 두려움이 머리속에 갈마들었다. 금희자신의 말을 듣고싶었다.

《정말이요?》

금희는 눈을 깜박거리며 정색하여 대답했다.

《정말이에요.》

나는 금시 환성이 터져나오려는 입을 애써 꼭 다물었다. 아마 기쁜일은 겹치는 모양이다. 중대장은 금희를 우리 소대에 배속시켜주려고 작업장으로 데리고나왔던 것이다.

《오늘은 작업준비랑 하면서 꼭 쉬라고 하는데도 종시 듣지 않누만. 할수 없지.》 하며 중대장은 어딘가 좀 딱딱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하였다.

《금희동무를 철수동무에게 맡기겠소.》

《알았습니다.》 나는 금희가 깜짝 놀라리만큼 큰 소리로 대답했다.

중대장은 돌아가고 금희는 그대로 작업장에 뛰어들며 들것채를 잡았다.

금희가 돌격대생활을 시작하지 보름이 가까와오던 어느날이었다. 정대를 가지러려 단에 들렀던 나는 마침 우편통신원을 만나 우리 소대원들 앞으로 온 여러통의 편지를 찾아냈다. 비록 나한테 온 편지는 없었지만 편지를 받아보고 입이 벌글벌글해질 동무들을 그려보는 나의 마음은 즐겁기만 했다. 집을 멀리 떠나 객지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부모형제들과 다정한 친우들로부터 보내온 편지를 받아보는 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수 없이 큰 것이다. 금희에게도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다. 아마 이것이 돌격대원이 되어 그가 받은 첫 편지인지도 모른다. 금희가 얼마나 좋아할까?

소대의 작업장에 도착하니 한쪽에서 동무들이 웃어대고있었다. 놀랍게도 금희가 자기도 함마질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동작이 서툴기 그지없었던 것이다.

《어얏사.》

《어얏사.》

정만이가 금희가 함마로 내려칠 때마다 소리를 먹이고있었다. 금희는 입술을 옥물고 안간힘을 쓰며 함마를 내려치곤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함마질열번에 여덟번은 정대를 헛때리곤했다.

《안되겠어. 아직 돌격대뺨을 더 먹어야겠어.》

정만이가 웃으며 금희에게서 함마를 빼앗아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며 금희를 나무랐다.

《아니 뭘 함마질을 다 한다고 그래? 그러다 사고치겠소.》

금희는 얼굴을 붉히며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이제 두고봐요. 내 꼭 배우고야말겠어요.》

《오 용감한 처녀여.》

정만이의 우스개소리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러는 동무들에게 편지를 내흔들며 소리쳤다.

《자 편지가 왔소. 재식이, 영철이, 금희...》

와-환성이 터졌다. 편지를 받아든 금희는 가볍게 손벽을 치며 《야, 엄마...》 하고 기쁨에 넘쳐 외쳤다.

우리는 잠시 휴식했다. 금희는 혼자서 조용히 편지를 읽고싶는지 동무들과 떨어져 잠관목뒤로 가앉았다. 나는 마음이 흐뭇했다. 기타를 타며 동

무들과 노래부르던 나는 문득 금희를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슬그머니 금희의 뒤로 다가가서 《어힘.》 하고 크게 기침을 짓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돌아보는 금희의 얼굴에 두줄기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있었다.

《아니,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대오?》

금희는 당황하여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아니예요. 어머니의 편지를 보니 눈물이 나오는군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금희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퍽퍽히 닦아냈다. 그제야 나는 영문을 알아차리고 크게 웃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무엇인가 따뜻한 말을 해주고싶었다.

《집도 그렇고 어머니도 보고싶을거요.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그래요. 막 보고싶어요.》

금희는 또다시 눈물이 글썽했다.

《그런데 금희동문 어떻게 돌격대에 나올 생각을 했소?》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 묻고싶던 말이었다. 금희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봉투속에 정성껏 넣더니 봉투의 집주소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마치 거기에 내가 알고싶은 그 사연이 다 썩여져있는듯이... 이윽고 금희가 머리를 쳐들며 물었다.

《봉익동무라고. 알지요?》

《봉익이라니?》

나는 크게 놀라 금희를 쳐다보았다.

《아니 봉익이를 어떻게 아오?》

《제가 있던 호텔에서 운전사로 일해요.》

《그런가?》

나와 봉익이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기계공장에서 선반공으로 함께 일했었다.

공장에서 북부철길건설에 참가하는 청년돌격대 탄원모임이 있는 날 저녁 나는 그와 고향도시의 석달천 기슭을 거닐며 말다툼을 했다.

《봉익이, 나와 함께 북부철길 건설장에 가자구. 가서 한번 세상사람들을 놀래울 위훈을 세워보잔말이야.》

나는 딱친구였던 그와 헤어지는것이 섭섭하여 절절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지 묵묵히 걷기만 하더니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난 네가 돌격대에 탄원할 때 너무 경솔하다고 생각했어, 이런 문제에선 심사숙고해야 하는거야.》

마치 년장자가 손아래 사람의 철없는 행동을 충고하는것 같아서 나는 대뜸 기분이 상했지만 감정을 눌렀다.

《물론 심사숙고해야지. 그러나 지금 당에선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 대건설장으로 부르고있어. 난 당의 그 부름을 구호나 노래로만 들을수 없다고봐.》

《그렇다면 나도 할말이 있어.》

봉익이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네 말대로 하면 우리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다 북부철길 건설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건데... 그건 너무 단순한 사고가 아닐까? 사람마다 다 제 리상과 포부가 따로 있는거야.》

한순간 나는 대답이 궁해졌다. 그의 말이 옳지 않다는것을 알면서도 명백하게 반박할 론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한걸음 후퇴해서 어조를 농쳤다.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이 당의 호소를 외면할 수있니? 봉익이, 넌 뭐가 무서워 그러니?》

봉익의 어조도 순해졌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하지만 난 몸이 약해서 거기선 견디여내지 못해. 선반일도 몸에 맞지 않아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데...》

불시에 봉익이가 늙은이처럼 느껴지고 가련하게 생각되었다.

《우는 소리 작작해라. 사내자식이 패기가 없어.》

《흥, 넌 지금 큰소리치는데 인차 후회하게 될게다.》

《난 후회안해!》

그다음엔 서로 말없이 강변을 지나 집으로 향했다. 침묵은 고통스러웠으나 그 누구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침묵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북부철길 건설장에 나와서 나는 봉익이가 자동차운전사양성소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얼마후엔 장가를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몇살이기에 벌써 장가를 갔는가!

그때 그의 나이는 23 살밖에 안되었었다. 그후 봉익이에 대한 회상은 불쾌감을 자아내기만 했고 나는 애써 그를 잊어버리자고 했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도소재지에 가서 호텔자동차운전사로 되었다는것이다.

《그래 봉익동무가 일잘하오?》

《일이요?》하고 손뚱여물을 썰던 금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잘하지요 뭐.》 심드렁한 어조로 보아 분명 금희는 봉익이에 대한 말을 꺼낸것을 후회하는듯싶었다. 무엇때문일까? 작업을 시작할 때가 되어 더 계속할수 없었던 우리의 대화는 하루작업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는 저녁무렵에 다시 이어졌다.

《...봉익동무는 일하는데서 별로 제기되는것이 없었어요. 철수동무는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눈에 크게 두드러지는것이 없는 동무더군요.》

그렇다. 봉익이는 고등중학교시절에도 별로 두드러지는것이 없었다. 말이 적은 성격이었다. 공부는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락후한 편도 아니였고 그저 쓸쓸한 축이었다.

《그러면 봉익동무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면 좋을까요?》하고 금희는 말을 이었다.

《난 이전에는 그 동무를 두고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없

었다면...》

금희는 잠시 말을 끊고 생각에 잠겼다. 주위에는 벌써 어둠이 깃들었다. 개울물소리가 소란스럽게 산골짜기를 뒤흔드는데 어디선가 소쩍새가 울었다. 금희는 답답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여기 북부철길 건설장에서 휴가를 바치고 돌아간지 두달이 좀 지난 어느날이었어요. 나는 봉익동무와 함께 서해안의 수산사업소에 가서 물고기를 실어오게 되었어요.》

인수원이 사정이 생겨 호텔을 뜨고 없었고 마침 그 수산사업소에 우리 외삼촌이 부지배인을 하고있었기때문에 나를 따라 보내더군요. 외삼촌이 도와주어서 우리는 인차 계약된 물고기를 받고 돌아설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부실부실 눈이 내렸는데 저녁무렵에는 눈바람이 썰썰 일었어요. 그런데 수산사업소를 떠나 한참 달리던 자동차가 높지 않은 령길을 앞에 두고 멎어서더군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하고 나는 물었어요. 봉익동무는 눈이 많이 쌓여 길이 미끄럽기때문에 차가 령길을 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기 가까운 마을에서 폭 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자는거예요. 아니 이만한 눈길도 못가다니? 운전칸에서 내다보니 다른 차들은 전조등을 켜고 잘만 달리더군요. 나는 안타까와 말했어요.

<빨리 가자요. 갈수 있는데두 그래요.>

난 그때 철수동무랑 여기 청년돌격대원들이 떠올라 이렇게 말했어요.

<북부철길 건설장에선 이만한 눈, 이만한 령길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눈이 허리를 치게 내린 산속에서 짐승도 발붙이기 어렵다고 하는 벼랑을 타며 철길을 건설해요.>

봉익동무는 아무말없이 담배를 꺼내 피우더군요. 그러더니 히죽이 웃으며 말했어요. <금희동무, 사실은 이 앞마을에 우리 처가집이 있소. 그래서 좀 들렀다가자는거요. 내 섭섭치 않게 대접하겠소. >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난처해졌어요. 처가집에 들렀다가겠다는 사람에게 그냥 가자고 요구하는것도 미안한감이 들었고 그렇다고 령길을 넘으면 인차 호텔에 들어서겠는데 밤을 거기서 보낼수도 없었어요. 봉익동무는 계속 나를 설복하더군요. 우리가 여기서 하루밤 쉬고갔다고 해서 알사람도 없고 또 안다고 해도 탓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게 바로 생활이라는거요. 이런 생활을 모르고 무슨 살 재미가 있는가> 하는거예요. 그 말에는 참을수 없더군요. 나는 격분해서 쏘아붙였어요.

<그럼 북부철길 건설자들은 생활을 몰라서 령하 30 도의 강추위속에 밥을 날라다먹으며 일하겠군요. 생활을 몰라서 눈속에서 노래부르고 춤을 추며 철길을 건설하겠군요.》

그러자 봉익동무는 사납게 나를 흘려보더니 <

그만해!>하고 소리치더군요. 그리고 뺨이 풀린다
는듯 괜히 운전칸문을 열었다 뿡 하고 닫더니 부
르릉 발동을 걸었어. 말없이 차를 몰아가는데
운전하는 동작이 어찌나 신경질적이고 그 얼굴은
어찌나 무섭게 이그러졌던지 나는 꼭 바늘방석
에라도 앉은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어쩐지 자신
이 너무나한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운전칸의 무겁고
답답한 분위기도 끌고싶어 나는 웃으며 말했어
요.

<북부철길 건설자들은 정말 수고가 많아요. 얼
마나 집이 그림겠어요. 18 살난 한 돌격대원처녀
는 닭울음소리를 듣거나 굴뚝에서 솟는 연기를
보아도 고향생각, 집생각이 난다고 하더군요. 그
래도 웃고 노래부르면서 일하는데 난 얼마나 감
탄했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우린 너무 안전한
생활을 하는것 같어요.>

마침내 봉익동무가 소리치더군요. <듣기싫소!>
그리고는 입술에 쓴웃음을 지으며 야유하더군요.

<동문 말끝마다 북부철길 북부철길 하는데 평
장한데 갔다왔구만. 그까짓 휴가나 바쳐 일하다
온걸 가지고 우쭐해서...그들의 생활이 그렇게 부
러우면 거기서 오긴 왜 왔소. 아예 거기 눌러앉
고말것이지.>

나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화끈 달아올랐어요.
너무 분해서 눈물이 쏟아질것 같았어요. 나 자신
이 모욕당한것도 분했지만 우리 시대의 훌륭한
청춘들, 북부철길 건설자들이 모욕당하는것이 더
분했어요. 그 순간엔 그 동무가 철수동무와 친
구기간이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더군요.

<어쩌면 동무는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더 말을 이을수 없었어요. 나를
비난하는 봉익동무의 그 모욕적인 말에는 어느정
도 진실이 깃들어있었기때문이에요. 무엇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운 북부철길 청년건설자들과 한대
오속에 서지 못하는가? 나는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는 울음을 가까스로 삼켰어요.>

달빛이 갑자기 밝아졌다. 검은 구름에 가리워
졌던 달이 어느새 흰한 공간으로 나오고있었다.
쳐다보니 밤하늘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별들이 나
타나 보석가루처럼 반짝이는것 같았다. 금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떻게 자동차가 호텔에 도착했는지 나는 알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달려와 수고했다고 인사
말을 하였지만 나는 그들에게 변변히 대답도 못
했어요. 봉익동무의 그릇된 말에 몇몇이, 담담하
게 반격을 가하지 못한 연약한 나 자신에 대한 불
만과 회의로 그날밤 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나는
자신을 돌이켜보았어요. 그리고 그 불만과 회의
가 그날밤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라 북부철길
건설장에서 휴가를 보낸 그날부터 나의 가슴속에
깊이 잠재해있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어
요. 며칠동안 모태기던끝에 나는 북부철길 건설
장으로 가자고 결심했어요. 그것이 들끓는 우리
시대가 가리키는 참다운 청춘의 길이며 그길에

용감하게 들어설 때만이 삶의 행복과 기쁨을 맛
볼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나와 함께 호텔에
서 두명의 동무들이 돌격대에 나왔어요. 어머니
는 역두에서 나를 배려해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더군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
무 걱정마세요.> 어머니는 나를 꼭 그러안으며
말하는것이였어요. <네가 너무 기특해서 그런다.
>

난 이렇게 되어 북부철길 건설장으로 나오게
된거예요. 그런데 일을 해보니 정말 힘들어요. 온
실의 꽃이 세찬 들바람을 맞는격이지요.>

그밤은 아름다운 밤이였다. 푸르른 달빛은 나
무와 나무사이로, 나무아지와 나무아지사이로, 그
리고 검푸른 잎새와 잎새사이로 은은하게 안개처
럼 스며들었다. 밤과 함께 더욱더 아름답게 나의
가슴속으로 침투해들어오는 금희, 그의 말을 들
으며 나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정화되는듯한 느
낌이 들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와 금희는 건설장에
서 봉익이와 뜻밖의 상봉을 하였다. 봉익이는 자
기네 호텔에서 마련한 지원물자를 싣고 찾아왔다.
봉익이는 한 일주일간 우리와 함께 현장에서 일
하다가 돌아갔다. 떠나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
다.

《철수. 지나간 일은 다 잊어주게. 내 비록 호텔
운전사로 일하지만 마음만은 너와 금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주게.>

어쨌든 우리는 달리는 살수 없는 이 땅, 이 시
대에 태어난 청춘들인것이다.

×

《백메터차굴이에요.》

금희가 나의 팔소매를 잡아당기며 감회에 젖어
말했다.

멀리 높은 산이 막아서고 그밑으로 두줄기 철
길을 삼켜버린 아치형의 차굴이 바라보였다.

백메터차굴,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의 자랑찬 위
훈이 깃든 차굴... 학교개절토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후 우리 중대는 이미 한창 진행되고있던 이
차굴공사에 인입되었었다.

굴앞에 다가서니 물기를 머금은 서늘한 굴바람
이 확 몸에 마쳐온다.

우리는 전지불을 켜들고 심연같이 캄캄한 굴안
에 들어섰다. 금희가 내옆에 꼭 붙어서며 말했다.

《무시무시하군요.》

속삭이는듯한 음성이었으나 굴안에 공명되어
피아노의 음향처럼 맑고 크게 울린다. 전지불빛
에 희슬희슬한 콘크리트피복이 언뜻거리고 물기
가 번들거리는 새까만 철길이 드러난다. 천반에
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똑똑...똑똑...

시계의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쉬임없이 울리는
물방울소리, 추억은 나의 가슴에 마를줄 모르는

호수처럼 가득차있는데 물방울은 바로 그우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키는것 같다.

착암기소리가 이 굴안에 메아리치고 우리들 청년돌격대원들의 열정의 웨침소리 드높던 그 나날에도 천반에서는 석수가 떨어져내렸었다. 아니, 그때에는 쏟아져내렸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것이다.

...

《젠장!》

석수를 맞아 온통 물참봉이 된 재식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웃도리를 활활 벗었다.

《저리 목욕을 하고말아야지.》

그는 벗은 옷가지들 광차에 걸쳐놓더니 쏟아지는 석수밑에 들어가 서며 사나이의 호기를 뽑았다.

《어-종구나! 생각있는분네들은 모두 오시구려, 평양 창광원 못지 않은 백메터차굴 사와탕이요-오》

《재식이 잘한다.》

《멋있다, 멋있어.》

해학과 웃음은 우리들의 친근한 길동무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어떤 난관앞에서도 웃을줄 알았고 우리는 거기에 습관되었다. 동발목이 미처 보장되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한숨을 쉬지 않았다.

우리는 숲속의 나무를 찍어 동발목을 자체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동발목생산전투에서 나는 부상을 입었다.

도끼를 휘두르다가 그만 실수하여 엄지발가락을 쳤던것이다. 송진을 듬뿍 곁어내어 피가 솟아오르는 상처자리에 붙였더니 곧 피가 멎었다. 그러나 얼어드는것 같은 아픔이 계속 발끝에서 뻗쳐올라왔다. 나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작업은 계속했다.

(이만한 상처는 팬찮은거야.)하고 나는 생각했다. 중대별 경쟁총화가 당장 래일모레로 박두했던 때였다.

그런데 하루작업이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서 나는 상처입은 오른쪽 발에 신은 장화를 벗을수 없었다. 차굴공사때 우리는 모두 장화를 공급받았었다. 발이 퉁퉁 부어올라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뽑아지지 않았다. 나는 정만이에게 장화를 좀 뽑아달라고 했다. 정만이는 꾀하고 힘을 주며 장화를 잡아당겼다.

《아야야.》

나는 무서운 아픔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하수는 없었다. 칼로 장화를 쭉 찢고야 겨우 발을 뽑아낼수 있었다.

《아니 철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만이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동무들이 큰일났다고 떠들어댔다. 나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장화를 벗으니 날아갈것 같군.》

나는 누군가 가져다주는 봉대를 발에 감으며 동무들에게 엄포를 놓았다.

《도끼에 엄지발가락을 약간 다쳤을뿐이야. 한데이건 절대비밀이야. 의사선생에게도, 중대장에게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되겠소. 비밀을 누설하는 동무는 용서안하겠어.》

다음날 나는 큼직한 신발을 얻어신고 작업장으로 나갔다. 상처보다 장화를 못쓰게 만든것이 아쉬웠다. 아직 몇달은 잘 신을수 있었는데.

그런데 한낮에 의사가 작업장에 나타났다. 얼굴에 언제나 근엄한 표정을 짓기를 좋아하는 중년의 의사는 다짜고짜 내 신발을 벗기고 상처를 들여다보더니 불을 본 어린아이처럼 흥분하여 떠들썩하게 불집을 일구었다. 그는 중대장을 불러 호된 꾸중을 하고나서 당장 작업을 중지시키겠다고 소리쳤다. 초보적인 안전대책도 취할줄 모르는 이런 무질서한 중대가 또 무슨 일을 칠지 모른다는것이였다. 내가 빌다싶이 사정을 하고 중대장이 설복하여 의사의 노여움도 가라앉았지만 나는 그 즉시 군의소에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군의소에 붙잡혀 주사를 맞고 처치를 받다가 다음날 오후에 겨우 도망쳐나오니 불행한 소식이 나를 맞이했다. 오늘 경쟁총화가 있었는데 우리 중대는 꼴등을 하고말았다는것이였다.

그것은 나의 부상때문이었다. 아니 부상을 숨기고 계속 작업에 참가했기때문이었다. 철길건설의 나날에 로동안전문제는 이처럼 청년돌격대의 작업과 생활의 절대준수사항으로 엄격하게 상정되군하였던것이다.

하지만 나는 격분했다. 누가 비밀을 누설했는가? 가만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것을 누가 곁어부스름을 만든단말인가?

그런데 일은 참 맹랑하게 되었다. 알아보니 의사에게 말한 사람은 금희였던것이다. 나는 발끈했던 김에 금희를 불러내어 좀 맵싸게 추궁을 했다. 그런데 나의 추궁이 그렇게 그의 감정을 살 줄은 몰랐다.

금희는 숨을 호 내쉬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약간 축축해진것 같은 눈가엔 오연한 빛이 번뜩이였다. 얼음같이 쌀쌀한 목소리가 나를 향해날아왔다.

《난 우리 중대를 걱정해서 군의소에 갔댔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에게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리고는 책 돌아서 뛰어갔다. 금희는 언덕너머로 사라지고 나는 홀로 남았다.

방망이에 한대 얻어맞은것처럼 머리속이 뻥해졌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통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다만 금희의 도고한 음성만이 전류흐르는 소리처럼 웅웅거렸다.

그러니 내가 어리석단말이지? 내 말이 귀에 거슬린단말이지?

자신이 너무했다는 생각보다 금희에 대한 고까운 감정이 굴뚝처럼 솟구쳤다.

금희가 어쩌면 그럴수 있는가? 어쩌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단말인가. 좋다! 나에게는 자존심이있

다!

다음날 점심시간이었다. 우리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길옆에 펴 두마리가 내려앉았다. 동무들속에서 금희가 먼저 펴를 발견하고 손벽을 쳤다.

《야, 저 펴를 봐요.》

장끼와 까투리였다. 두놈은 다정하게 오고가며 풀씨를 쪼아먹고있었다. 금희가 천진스럽게 나에게 졸랐다.

《철수동무, 저놈 좀 잡아줘요, 네?》

금희가 벌써 어제일을 잊었던말인가? 아니면 그저 잊은척하는가? 나는 의아해서 금희를 보다가 물었다.

《아니 펴를 잡아서 뭘 하자는거요?》

《뭘하다니요? 기르지요 뭐. 살기좋은 집까지 지어주고...》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금희에 대한 불만을 삭이지 못하고있던 나는 통명스럽게 말했다.

《똥을 기르다니. 철도 없군.》

그리고 《후여!》하고 펴를 날려버렸다.

야속한듯 나를 쳐다보는 금희의 눈초리가 따갑게 얼굴에 마쳐왔다. 나는 애써 금희쪽을 보지 않았으나 그가 나를 외면하고 돌아서는것을 육감으로 느꼈다.

다음순간 금희는 식당쪽으로 뛰어갔다.

바라보니 머리를 꼭 숙이고 뛰어가는데 한손을 얼굴로 가져간다. 분명 우는듯싶었다. 금희에 대한련민의 정이 가슴을 메우면서 쓸데없이 심술을 부리는 나자신이 웅졸하게 생각되었다.

이때 정만이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금희동무와 무슨 일이 있었나? 왜 그래?》

나는 자신때문에 기분이 나빠 풀이 죽은 어조로 말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허, 모를 일인걸. 어제밤 금희가 홀로 우는것을 봤는데 오늘은 또...》

정만은 머리를 기웃거리더니 정색하여 말했다.

《철수동무, 남자가 그렇게 공하면 못써. 너그럽게 새길줄도 알아야지. 순진한 처녀에게 그게 뭔가? 금희가 군의소에 동무를 일러바친것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사실 금희가 잘못한게 뭔가말이야》

그러나 나는 벌써 정만의의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제밤 금희가 홀로 울었다. ...》 정만의의 이 한마디가 나의 가슴을 아프게 허벼내렸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말인가?

내가 금희의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오후에 우리는 굴속에서 버럭운반작업을 했다. 나는 묵묵히 곡괭이로 벽에 쌓인 버럭을 끌어내고있었다. 그러면서도 눈길은 자꾸 금희에게 갔

다. 금희의 입술은 고집스럽게 꼭 다물려있었는데 얼굴은 그 어떤 시름이 그늘을 지어놓은듯 컴컴했다. 나는 다시한번 가슴이 비틀리는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때에야 나는 자신이 금희를 뜨겁게 사랑하고있음을 똑똑히 깨달았다. 또한 그때에야 나는 금희와 떨어져서는 살수 없다는것을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아, 그러나 금희는 다시는 나에게 정다운 웃음을 보내지 않을것이다. 머저리! 바보!

그 순간 쨍-하며 열벽에 금이 가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귀전을 쳤다. 아니 귀전을 쳤다기보다 온몸으로 느꼈다고 하는것이 더 정확할것이다.

(락반이다!)하고 생각할 사이없이 나는 커다란 바위돌이 움썰하는것을 포착하였다. 언뜻 금희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피할새가 없었다. 피하느라면 모두 무너지는 바위돌들에 묻히고말것이다. 나는 어쩔새없이 《피하라!》 하고 소리치며 두발을 번디디고 그 바위를 잔등으로 힘껏 지지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눈깜박할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시계의 초침이 한번 똑딱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동무들이 후닥닥 피하는 소리, 눈앞에 얼씬거리며 사라지는 그림자들...그때 《악-》하고 귀청을 켜는것 같은 외마디 비명소리가 울렸다. 찰막하면서도 가슴을 박 굵어내는것 같은 처녀의 울부짖음이었다. 피할 생각도 잊고 입을 두손으로 감싼채 온몸을 사시나무떨듯하며 나를 쳐다보는 금희가 눈에 띄었다. 다음순간 금희는 《철수동무.》하고 웨치며 나를 향해 달려왔다. 돌에 걸쳐도 넘어질듯하더니 그냥 달려온다. 날카로우면서도 뜨겁고 열렬한 그 부름소리, 뒹겨나듯 나를 향해 날아오는 그 불덩어리앞에서 나는 사지가 가드려지는것같은 무서운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나자신때문이었나 아니었다. 사랑하는 처녀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속으로 서슴없이 뛰어드는것이였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무서운 벼락이 머리우에서 내려치는것 같았다.

《악-》

자신도 모를 비명이 내 입에서 터져나갔다. 나는 금희를 안전한곳으로 뺄 뻔했던지며 힘껏 뛰었다. 그런 힘이 어디서 솟아났는지 알수 없었다.

그다음엔 쾅-하고 균열이 갔던 벽이 무너져내리는 소리...커다란 바위돌이 나의 다리를 쳤다. 나는 얼굴을 땅에 내려박으며 쓰러졌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별찌들이 어지럽게 날았다. 그속에서 금희의 웃는 얼굴을 본것 같았다. 두번째의 타격이 어깨에 가해졌다.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말았다.

내가 정신을 차린곳은 병원이었다.

눈을 뜨니 낮익은 얼굴들이 망막에 비쳐들었다. 려단장, 중대장, 정만이들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나를 지켜보고있었다.

친근한 그 얼굴들속에서 나는 금희의 모습도 발견하였다. 우선 금희가 무사하다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안정되었다.

금희의 파리한 두볼로는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리고있었다.

《우리 영웅이 살아났구만.》

려단장이 나의 두손을 잡으며 하는 말이였다. 하지만 내가 무슨 영웅이겠는가. 나는 평범한 돌격대원이다. 나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했을뿐이다.

그리고 나에겐 동무들이 귀중했다. 금희도 정만이도 재식이도 모두 귀중했다. 그런데 금희는 왜 우는가? 내가 불쌍한가? 나를 동정하는가? 나는 웃는 동무 얼굴이 더 보기 좋지만 지금은 그 눈물이 가슴을 뜨겁게 적신다. 나는 동무에게 용서를 빌고싶었다. 나를 이해해주겠지? 금희동무.

온몸을 불로 지지는것 같은 아픔에 나는 눈을 감고말았다.

×

차굴의 저쪽 입구가 흰하게 바라보였다. 빛을 느끼자 마음은 더욱 상쾌해지고 밝은 날개가 돋친듯 가벼워졌다. 우리는 손바닥만한 그 빛을 향하여 약속이나 한듯이 달려갔다. 어둠은 뒤로 벌어지고 따듯한 빛이, 희망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왔다.

압록강가에서 우리는 잠시 다리섬을 하였다.

달아오르고 지친 발을 강물속에 잠그니 맑은 물결이 순식간에 피로를 씻어버리는듯 온몸에 세힘이 솟아오른다.

우리는 발로 물장구를 치며 해빛아래 검게 일렁이는 강물을 바라본다. 물결은 물결과 서로서로 손을 잡고 서로서로 어깨를 겹고 정답게 포옹한다. 그 물결우로 어디서 날아왔는지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오고있다.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사랑으로 충만되어있는듯싶다. 가볍게 불어오는 미풍조차 사랑의 속삭임처럼 정답다. 문득 잊을수 없는 입당의 그밤이 나의 주위를 둘러싼다.

…눈보라, 눈보라, 온몸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던 그밤의 눈보라…

중대부의 귀틀집 창가에서 눈보라가 우우 소리를 내며 울부짖는데 한껏 긴장되고 흥분한 나는 그 모든것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것은 방안에 들러앉은 중대의 심여명 당원들의 엄숙한 물음과 자신의 뉘뛰는 심장의 박동소리뿐이였다.

어떻게 조선로동당 입당청원서를 읽었으며 어떻게 입당심의를 받았는지 꿈결같은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나는 똑똑히 알수 없다. 그러나 나의 조선로동당입당이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당

세포비서의 근엄한 음성을 들었을 때의 뿔어오르던 환희만은 아직도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지금도 때없이 나를 격동시키곤 한다. 아, 그때…나는

자신의 가슴이 더 넓어지고 키도 훨씬 커지고 심장은 더욱 억세어진것 같이 느껴졌다. 그다음엔 이것이 과연 현실인가 하는 두려운 감정이 뒤따랐다. 내가 어떻게 저 당원들과 나란히 한대렬에 설수 있단말인가! 과연 그렇게 될수 있단말인가? 그러나 나를 축하해주는 당원들의 웃는 얼굴이 이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말해주고있었다. 아직 단련이 부족하고 사상정신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나자신을 이렇듯 믿어주고 포옹해주는 어머니당의 품에 진정으로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입당심의가 끝나 중대부를 나서니 어느덧 깊은 밤이였다. 눈보라가 눈앞이 뽕얇게 일며 태질을 한다.

숙소를 향해 몇걸음 걸어가던 나는 저 앞의 이 짙나무뒤에서 누구인가 얼얼하는것을 본듯하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걸음을 옮기는데 그 나무뒤에 숨어있던 조그마한 사람이 내앞에 조용히 나타났다.

《누구요? 과연 그렇게 될수 있단말인가?

나는 흠칫 놀라며 물었다.

추위에 얼어든 처녀의 음성이 울렸다.

《저예요.》

그 처녀는 금희였다. 그는 무엇을 주저하는듯 몸가짐이 자신없어보였고 자칫하면 다시 나무뒤로 숨어버 리려는듯 주춤거렸다.

금희가 이 눈보라치는 밤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러나 의문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크나큰 기쁨이 나를 휩쌌다.

가슴이 뭉클하니 젖어들었다. 어쩐지 금희가 여기서 나를 기다렸을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아니 그렇게 확신했다고 하는것이 더 옳은것이다.

《입당심의가 끝났어요?》

금희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자 방금 끝났소.》

《어떻게 됐어요?》

처녀의 기대와 불안이 스민 그 목소리는 어딘가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행복감에 휩싸인 나는 걱정애 넘쳐 말했다.

《입당이 결정됐소.》

금희는 알릴듯말듯 탄성을 질렀다. 눈보라속에 금희의 환한 미소가 해빛처럼 빛났다. 그 다정한 미소가 나의 얼굴에 향긋한 입김처럼 날아오는듯하였다. 금희는 크나큰 기쁨으로 현훈증이 오는듯 이빨나무에 몸을 실었다. 나무가 흔들리며 뽕얀 눈가루가 날렸다. 솟겨운 처녀의 목소리

가 울렸다.

《축하해요. 철수동무.》

그 짧은 한마디말은 불화살처럼 내 가슴을 툭 꿰어 뜨끔하게 지저놓고 멀리 날아간듯하였다. 정다운 그 말을 다시한번 듣고싶었다. 나는 기다렸다. 눈보라의 울부짖음때문에 금희의 말을 놓쳐버릴가봐 겁나기도 했다. 그러나 금희는 더는 말이 없었고 썩근거리리는 숨소리만이 심장에 느껴졌다. 나는 처녀를 향해 한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줍지 않소?》

말해놓고보니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녀는 무슨 말인가 하려는듯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두눈에서 그 어떤 신비스럽고 눈부신 불꽃들이 날아올라 나의 주위를 감도는듯하였다. 잠시 머뭇거리던 처녀는 별안간 책 돌아서더니 눈보라치는 어둠속으로 내달렸다. 한순간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서있었다. 다음순간 그 무엇인가 가슴속에 타끓으며 세차게 분출하려 하였다. 나는 자신을 다잡을수 없었다.

《금희동무.》

나는 목청껏 소리치며 금희를 따라 달려갔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이 거치장스러웠다. 온몸은 화끈 달아올랐다. 신발바닥은 차거운 눈이 아니라 뜨거운 불판을 밟는듯하였고 나는 해빛을 따라 달리는듯하였다. 그러나 금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눈보라만이 우우 소리지르며 사납게 회오리치고있었다. 이 모든것이 꿈이 아닌가싶었다.

금희는 꿈결에서처럼 내 눈앞에 나타났다가 꿈결에서처럼 사라져버렸다.

눈보라, 눈보라...그속에서 《축하해요.》하는 금희의 목소리가 크게 메아리쳐오는것만 같았다.

×

혜산만포사이 새 철길이 개통되어 북부철길 1단계건설은 끝났다. 북부철길건설에 참가한 각청년돌격대의 일부는 새로 개통된 철길구간에 전기화공사를 위해 남았고 일부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투장으로 떠나갔다.

우리 려단은 대렬을 다시 편성하였다.

절반의 인원이 전기화공사를 위해 남고 나머지 절반인원은 우리 나라 중부지대에 새로 건설되는 세멘트공장건설장으로 떠나가게 되었다.

나는 금희와 헤어지게 되었다. 오늘 금희가 속한 대대가 세멘트공장건설장으로 떠난다.

역이 저 멀리 바라보이는 철길우에서 금희와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금희가 속삭이듯 조용히 말하였다.

《여기서 헤어지자요.》

나는 말없이 금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금희가 악수를 청하듯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꼭잡고 흔들었다. 아, 나는 이렇게 처음으로 금희의 손을 잡아본다. 나는 신기한듯 그의 자그마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해별에 타서 감실감실하면서 기쁨을 바른듯 윤기가 흐르는 손등, 그밀의 손바닥은 로동속에 굳은살이 배겨 저으기 탄탄하다. 따뜻하고 정다운 그 무엇이 그 손을 통하여 나의 혈관속으로 흘러들며 가슴을 들레이게 한다.

우리는 아직 누구도 사랑한다는 말을 입밖에 내지 못하였다. 헤어지는 이 순간에조차...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그것을 읽었고 지금은 꼭잡고있는 서로의 손을 통하여 그것을 느끼고있다.

《잘 가요. 금희.》

나는 목이 메여 말하였다.

《잘 있어요. 철수동무.》

금희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있었다.

아, 정말로 헤어지기 싫구나. 나는 언제나 금희와 함께 일하고싶었었다. 그러나 금희는 떠나간다. 렬차시간이 다 된것이다.

한걸음 한걸음 점점 멀어져가는 금희, 점점 작아져가는 저 모습...금희가 다시 돌아서 손을 흔든다. 나의 눈앞은 뿌연게 흐려진다. 석별의 정을 누를길 없어 나는 철길우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였고 희망에 넘쳐있었다. 그것은 나와 금희가 사랑으로 굳게 결합되어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결합되어있을것이기때문이다.

그것은 나와 너의 사랑이기전에 이 땅의 푸른 산과 푸른 강에 대한 사랑이었으며 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었다.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난 청춘에 대한 사랑이었으며 그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다. 우리는 먼곳에 떨어져있어도 언제나 함께 있을것이다. 이 땅을 오고가는 바람이 나의 사랑의 노래를 금희에게 실어다줄것이며 하늘높이 날으는 새들이 금희의 사랑의 속삭임을 나에게 전해줄것이다. 철길을 타고 달리는 렬차의 기적소리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느낄것이다.

드디어 렬차는 역을 출발하였다. 나는 떠나가는 렬차를 바라우며 오래동안 철길우에 서있었다.

두줄기 철길은 저 멀리로 점점 좁아지다가 렬차가 사라진 아득한 산굽이쪽에 가서는 하나의 점으로 합쳐졌다.

나의 처녀시절

박명숙

나도 모르게
시작되었구나
좋은 때라 부르는
처녀시절이

칠부지 그때엔
내 멋모르며
기다리까지 했던
아, 이 시절
어쩌면 이리도 조용히 찾아왔느냐

나는 누구보다
꿈이 많아
해보고싶은 일 많았어라
그러나
동네애들 모아놓고 해를 지우던
그 《선생님놀이》 때문이던가
교단우에서 흐르는 나의 처녀시절!

행복이여라!
수양버들 늘어진 유보도 거닐 때도
별빛 밝으며 돌아오는 가정방문의 길
입속으로 정든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하나
내 가슴에 별처럼 새겨보는것은...

기쁨이여라!
누구는 봄바람같은 후더운 속삭임 나눌 때도
방울소리 같다면 내 목소리 석심해지도록
열변을 토하며

칠부지들 눈동자에
지혜의 불을 달아주는 순간들은...

장난으로 마사뜨린 의자에
서툴게 못을 박으며
끼니를 잊던 그 나날들이
소박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아, 교원의 처녀시절이여!

나에겐 진정 기쁨이더라
사랑의 고백보다 고마운
내 아이들 칭찬하는 소리 듣는 때가
정문앞 크지 않은 속보판
퇴근길에 슬그머니 다가서 보는 때가

후회가 없으리
수십명 아이들 어머니되어
좋은 일 궂은 일에 속탄적 있어도
름름하게 자라는 그 모습 대견해
제 나이조차
잊고보내는 이 시절

아!-
머리에 흰서리 서둘러 내린다 해도
두렵지 않노라!
꽃나이 다 흘러가도
아쉽지 않노라!
조국의 미래와 바꾸어
값죽지 않은 나의 처녀시절이여!

아들의 마음

계훈

쉽지 않아라
정깊은 부모앞에

낳아기른 어머니앞에
아들로 산다는것은

시인도 영웅도 이름난 학자도
 자주 말하며 살더라
 자식구실 하기가
 더 어렵더라고...

우리 세상 귀한것
 다 섬겨드린대도
 진정 떠나 다른것 아니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거짓으로 그 마음 살바에는
 아픈 때도 맞아 좋아라

죄중에 제일 큰 죄는
 어머니를 잊는것이기에

아 어머니를 속이는 사람
 사랑도 우정도 저버리고
 어머니를 잊는 그 사람
 조국도 배반하거니

내 일생토록 머리숙여 감사하리라
 어머니를 따르며 사는 이 날과 날에
 생활이 그리도 아름다워지고
 내 정직한 사람이 되기에...

위훈의 자리

김국용

산더미같은 흙을 밀어가는 불도젤
 한바가지로 대형차 적재함을 채우는 굴착기가
 건설장일을 도맡아하는 여기서
 지원자 내가 나르는 흙집이 큰 일을 치련만
 어서 더 퍼올리게 어깨가 빠근하게

저 무리등들이 별들과 동무하는
 강반의 화강석계단이며
 대안의 층층높은 창문들이
 천리마시절에 흘린 내 땀방울
 구슬로 꺾여올린것이건만

젖은 질통을 짊어진채 들던
 쪽잠같이 달디단 잠 없었고
 용접면 벗으며 맞이하던 아침처럼
 금지로 가슴부풀던 때 없었다고
 자식들에게 자랑이나 하라나

해놓은 일을 놓고 자랑이나 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일했다고
 버릇처럼 말이나 한다면
 전 세대를 욕되게 한 죄로
 어떻게 바라보라나 90 년대의 창조물을

어렵던 그날 내리던 찬눈을
 벗어젖힌 뺨은 어깨로 다 녹이었고
 허리넘는 감탕을 헤치며 교각을 세운
 저 행복의 다리에 청춘을 남겼다고
 머리에 내린 흰서리 재세하라나

아니 짊어지고 또 저도
 뛰고 또 뛰어도 성차지 않아
 심장에서 충성의 우뢰가 울던
 그날의 청춘을 보내지 않고 사는
 천리마기수의 심장이 오늘도 뛰네

나에게도 다오, 그날처럼 살 위훈의 자리
 기체가 파올리는 흙이 큰산이라면
 내 저나르는것은 그아래 한삼태기 흙
 하지만 피로 지킨 조국을 일떠세우던
 그날의 정신 여기 새 거리에 새기고싶네

젊은 날처럼 내 걸음 빠르지 못해도
 천리마 타고 내달리던 그날처럼 살라고
 우리 수령님 우리 당이 불러준 이 길
 래일을 앞당기는 이 길을 나도 계속 걷도록

아 한삽의 흙이 많아서겠나
전후의 그날처럼 온 나라가 다시 한번
비약의 나래 펼치고 내달는

대진군의 대오에서 내 자리 비울수 없어
어깨가 뻐근하게 달리려네
자! 어서 듬뿍 퍼올리게!

탄부의 퇴근길

조영식

저녁교대를 마친 밤
하늘의 총총한 별들도
행복의 등불을 켜듯
제대군인 탄부들
퇴근길에 나섰네

군대식으로
오각별 빛나는 탄부모 쓰고
군화마다 별빛도 미끄러지게 닦아신고
검탄공 우리는 아니본척
높이 쌓은 석탄산만 쳐다보며 지나네

아이참 속상해
고속도굴진의 나날
영예게시판을 혼자 독차지하던
혁신갱의 그 총각마저

달빛에 취한듯 하늘만 보며 웃네

이런 때면 쿵쿵-지축을 울리는 발걸음소리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그네들 심장의 박동은 아닌가
내 가슴은 왜 이리도 높뛰는가

검탄공, 엄격한 우리건만
그들을 바래우는 이 시각엔
어째선지 가슴절로 몽클해지는 길

아, 제대군인 탄부의 퇴근길은
온 나라에 불을 주고 나선 길
검탄공처녀의 심장에도
사랑의 불꽃을 지퍼주는 길이라네

아들에게

한길초

아들아, 내 너처럼
철없던 어릴적엔
이 세상 제일 무서운것이
죽음인줄로만 알았단다

민들레꽃 노랗게 피는
고향의 언덕우에서
조국이란 무엇인가
작문을 지으며
알았단다 나는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것이
나에게 있는줄을
죽음보다 더 무서운것이
이 세상에 있는줄을

그것은 바로
우리모두 어머니라 부르는
그 이름
신성하고 아름다운 조국앞에
아! 죄를 짓는것임을...

아들아,
똑똑히 새겨두어라
너를 낳아 길러준 어머니와
이 아버지앞에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수 있어도

조국앞에 지은 죄는
죽어서도, 죽어서도
영원히
용서받을수 없음을...

흥계수떼몰이군

허선재

수리를 끝낸 기관단총을 둘러메자 김이돌은 병기수리소의 반토굴을 나섰다. 밖은 이미 새까맣게 어두웠다.

《원 제기, 날도 빠리는 저무는군...》

이제 열시에는 적후로 들어가야 하는데 온종일 별치도 않은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눈한번 붙이지 못한것이다.

런대지휘부가 지리잡은 단층 벽돌집앞을 지나 매미들이 요란스레 울어대는 밤나무숲쪽으로 그가 발걸음을 돌릴 때였다.

《여, <돌>하사!》

궁글고 느린 목청이 그를 멈춰세웠다. 《돌》하사란 김이돌이라는 그의 이름때문에 생겨난 변명이다. 이젠 또 웬 싱검등인가 해서 돌아다보니 통신참모실의 열려진 창문으로 키다리 상위가 싱글싱글 웃으며 내다보고있었다.

《게 좀 서라구, 길동무가 생겼어.》

조금후 통신참모는 웬 처녀와 함께 돌층계를 내려고있었다. 처마밑에 걸린 촛수낫은 전등불빛이 상등병 견장을 단 처녀의 얼굴이 비치는 순간 그는 놀라움으로 눈살이 굳어졌다.

(저 너자를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어둠속으로 두사람의 발자국소리가 다가오고있었다.

《동무네 대대 무전수로 가는 동무요. 말을 너무 많이 시키면 안돼. 그런데 밤이 너무 어둡다야.》

날씨를 가늠하듯 하늘을 살펴보건 상위는 무슨 말인가 더 하려다말고 하사의 옆구리를 툭 치며 빙긋 웃은 다음 저벅저벅 가버렸다.

《이 고개를 넘으면 대대부라지요.》

밤나무숲을 벗어나 생당쭈냄새가 물씬 코를 찌르는 언덕길을 오를 때 처녀가 하는 말이였다.

《여기는 최전선이요. 밤길은 말없이 걸어야 하는거요.》

전선길에서 한고장 사람을 만나면 꾀웃이나 앞선사이라해도 인사가 요란한것이 자연스럽다. 가령 《이게 누구요. 내가 아무개요. 흥계수떼몰이군 김이돌이란 말이요.》 하며 두손을 맞잡고 마구 흔드는 식으로...

그러나 김이돌은 그런 말이 나가질 않았다. 한고향 사람을 만난 기쁨에 무엇이 무거운 추를 매달고있는지.

마천령산줄기의 중허리를 가로 지른 계곡을 따라 멀리멀리 가느라면 봇나무들이 류달리도 많이 들어선 분지들이 나진다. 숲을 찍어내고 앉은듯 달구지길과 우물가에조차 키높은 봇나무와 아름

드리 가문비들이 들성들성한 동네, 골개물을 마주향해 띠엮띠엮 집들이 널려있는 거기가 바로 김이돌이 살던 마을이다.

전쟁이 일기전 그는 이 처녀를 두어번 만나본 적이 있었다.

처음 알게 된것은 지난해 늦여름 어느날 저녁이었다. 물동가에 자리잡은 귀틀집 마당가에서 장작을 패느라고 한창 도끼를 휘둘러대고있을 때 웬처녀가 나타났다.

《저... 말씀 좀...》

이돌은 일손을 멈추고 검은 바탕에 흰줄이 간썬라복을 입은 낯선 처녀를 놀란 눈으로 훑어보았다.

《누굴가?》

면소재지에서 퍼그나 떨어진 여기, 류벌공들이 낮에는 휴계실로, 밤에는 숙소로 쓰는 이 집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드물었다. 날씨가 좋을 때에는 닳다니질을 즐기는 닳시군들이 이따금 나타나고 때동의 경치구경을 오는 사람도 더러 있었지만 어두워만지면 집주위의 으스스한 봇나무숲이며 물건너 산중턱에서 침울하게 내려다보는 선바위 들때문인지 늘 다니던 사람들도 발길을 덜 돌리는곳이었다.

《어디서 왔소?》

별에 탄 그의 얼굴처럼 꺼슬꺼슬한 소리로 이돌은 물었다.

《면우편국에 있어요.》

빠르고 차분한 말씨로 대답하는 처녀의 얼굴은 사그려져가는 노을빛을 등지고있어 선명치는 않았지만 짙은 눈썹밑의 커다란 눈이며 물기를 머금은 머리칼이 흰볼에 차분히 달라붙은것을 가려볼수있었다.

《어째서 왔소?》

돌맹이를 내던지는것 같은 그의 물음에 처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생긋 웃더니 인차 정색하며 말했다.

《오늘밤 무더기비가 내리고 태풍이 일겠대요. 도기상관측소에서 알리기에... 그럼 가보겠어요.》

《...》

봇나무숲사이로 난 오솔길로 종종 걸여가는 처녀의 뒤모습이 멀어져갈 때에야 그는 무슨 말인가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 동무. 고맙소-오.》

그 누구를 부르는것처럼 높이 웨치는 소리에 산울림이 얼핏 일다가 사그라졌다.

(넌장, 난 왜 말주변이 이렇게도 없담.)

그는 도끼를 모래에 쿡 박은 다음 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귀틀집안에는 래일아침 첫 때를 물고 갈 사람 몇이 되박같은 재털이를 가운데 놓고 이야기판을 벌리는중이었다. 그는 들어서자바람으로 처녀가 전하고 간 소식을 알렸다. 제일 놀란 것은 형만반장이었다.

《뭘라구! 무더기비가?》

카바이드등잔에 성냥을 켜대던 반장은 가치가 거의 타들어가는데도 이들의 얼굴만 쳐다보며 눈을 습벽이었다.

《큰일났군. 수문을 터놓아야겠는데. 헌데 건 어떻게 알았나?》

《우편국에 있다는 웬 처녀가...》

《그래 그 처녀 어디 있나?》

《갔수다.》

《갔다? 밤길에 너자를 그저 보냈단말인가?》

《그럼 어찌겠소. 자구 가랴수두 없는게구.》

《저것 보지. 그것두 말이라구 하나. 저 백성이 언제면 철이 들가. 그러니 여태 장가두 못갔지. 자, 이거라도 가져다주라구.》

형만반장은 두번째 성냥을 그어 얼른 불을 달더니 굴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간데라처럼 생긴 등잔을 내밀었다. 이들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으나 받을수밖에 없었다.

《왜 우두커니 서있나, 꺾은 보리자루처럼... 빨리 갔다오지 못할가.》

누구에게 화를 내듯 문을 광 닫고나온 그는 그 처녀가 사라진쪽을 향해 반달음을 놓았다. 질척한 보나무숲을 한참 헤치고 신작로까지 나와서야 그는 처녀를 따라잡을수 있었다.

《자, 이걸 가지고.》

이들은 카바이드등불을 처녀에게 내밀었다.

《건 왜요? 이젠 큰길을 따라가면 되겠는데요.》

처녀는 약간 치뜬 눈으로 그의 아래우를 훑어보더니 어딘가 모르게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두 가지구 가요.》

《일없어요. 들어가보세요. 등불이 없이 거기선 어떻게 밤을 새겠어요.》

《뭘, 이제 담배질이나 하다가 밝을 때까지 자면되겠는데.》

그는 처녀를 마주 볼대신 눈길을 떨구며 말했다. 숲을 빠져나오며 발을 헛디딘 모양 흙탕물에 젖은 처녀의 신발에 시선이 미치자 더욱 미안하고 송구스러워났다. 그는 다시 용기를 내어 《어서 들구가라는데두요.》라고 말했다.

《일없다지 않아요.》

처녀는 돌아서더니 빠른 걸음으로 큰길을 따라가버렸다.

등불을 든채 다시 귀틀집에 나타난 그는 흑독한 룡담과 결죽한 핀잔을 뒤집어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저 사람이 배짱도 있구 담이 큰줄 알았더니 체네앞에선 원 고양이를 만난 쥐모양이란말이야.》

형만아저씨가 말머리를 떼자 좋은 이야기거리를 만났다고 저마다 열을 올리며 《험담》을 들씩었다.

《무더기비가 온다는데 이젠 나가서 수문을 열어놓으라구. 이젠 처녀앞에서 총각구실을 못한 책벌로동이야.》

형만반장이 이렇게 말하며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그 불도가니같은데서 이들은 오래동안 시달릴번했다. 류벌공들속에서 나이가 그중 어리다보니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것도 김이돌이었고 욕을 많이 먹는것도 역시 그였다.

밖으로 나온 그는 수십개의 반디불들이 기관차의 불찌마냥 날아에는 언제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두덜거렸다.

《헛참, 물촉새같은 처녀가 하나 포르릉 날아왔다가더니 하루저녁사이에 사람이 꼭 깎이우는 군.》

하지만 그 일로 하여 생겼던 울적한 기분은 얼마가지 못했다. 며칠후부터는 그 처녀를 다시한번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때없이 불쑥불쑥 머리를 드는것이였다. 물론 만나서 특별히 할말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를 한번 보고싶었다.

(우편국에서 무슨 일을 할가? 배달부갈지는 않아. 그러면 교환수일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의 빈구석을 채우며 하루이틀 지나는동안 어느덧 김이돌의 몸차림새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 늘쌍 이마에 동이고다니던 토목수건을 풀어던지고 원가리마를 낸 머리에 피마주기를 발랐으며 모시적삼의 목깃에는 그때 류행에 따라 흰당목천을 댔다. 게다가 증산경쟁총화때 상으로 받은 고무장화를 반들반들 닦아서 척 신으니 그만하면 이 아근에서 보기도문 멋쟁이가 되였다.

얼마후 이들은 면에 있는 친구를 통해 그 처녀의 이름이 리수영이며 우편국 전신수라는것을 알아냈다. 그리고보니 매일 때를 타고 그 처녀결을 스쳐지나가면서도 모르고있은행이였다. 면소재지한복판을 꿰지른 강은 바로 우편국건물을 몇발자국 사이두고 흘렀다. 좀 과장해 말하면 리수영이 앉아있는 전신실 창턱밑으로 그가 탄 때가 지나가는것이다. 높은 목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대답할수있는 거리였다. 그렇다고 흐르는 물결우에서 《수영동무!》 하고 그를 불러볼 용기는 아직 나지 않았다. 샷대를 휘여잡은채 멋드러진 노래가락을 한곡조 뽑아 처녀를 창문쪽으로 꼬드겨낼 희떠운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것은 더욱 안될일이였다. 우편국 가까이에 이르러 물결은 갑자기 심한 여울을 이루고 그 여울목우로 키낮은 다리가 지나갔기때문에 날쌔게 허리를 굽히며 다리밑을 빠져나와야만 했다. 그러니 노래가 다 무엇이랴. 부르던 노래도 쑥 기여들어갈 판이다. 그럴때면 그는 자동차운전수들이 부러워났다. 그치들은 차를 몰고가다가도 마음만 내키면 소비조합앞

이건 가게방앗이건 덤취세우고 제불장을 볼수 있다. 때로는 길바닥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경적을 울려 그를 돌려세운다음 한참 이야기장단을 피우다가 달아빠기도 하는것이다. 그런데 때물이 굳은 일단 떼동에서 출발하면 무심히 흘러가는 물결과 함께 다음 물동까지 단숨에 가야 한다. 바람처럼 소리도 없이.

그런데 어느날 전혀 생각지도 않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그 처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날 오후 첫 떼를 타고내려간 그는 고기잡이에 정신이 팔려 통근차삼아 타고다니던 뽕뽕이차를 그만 놓쳐버렸다. 그날따라 털닭시에 고기가 어찌나 잘 걸리는지 굵직굵직한 산천어며 이고장 사람들이 《판파이》라고 부르는 팔뚝사리같은 고기들을 수십마리 잡았다. 물고기는 버들가지에 한꺼미 목직하게 들었으나 그대신 40 리길을 걸어야 했다. 그릴바엔 차라리 낚시질이나 술금술금 하면서 강변을 따라 마을까지 가려고 맘먹었다.

털닭시를 물위에 부지런히 던지며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그가 먼소재지 어구의 바위굽이를 돌아서자 이집저집에서 저녁연기가 피어오르는것이 보였다. 집까지 가닿자면 아직 퍼그나 걸어야 했다.

(국수집에 들러 한그릇 하고 갈가? 내친 걸음에 그냥 갈가?)

우선 다리쉽이나 하려고 앉을 자리를 살피고있을 때였다.

강변 기장발사이로 난 오솔길로 빨래함지를 인 전신수처녀가 사뿐사뿐 마주오고있었다.

김이돌은 저도 모르게 자기의 차림새를 살펴보았다. 옷주제가 말이 아니였다. 고무장화에는 흙물이 게발린데다가 먼지가 뿌영게 올라 덕지가 앉았고 축축히 젖은 옷설에서는 고기비린내가 풍겼다.

(하필이면 이런데서 만날건 뭐람. 젠장, 그런데 저 처녀가 나를 알아볼가?)

그는 뭇수룩 덤덤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처녀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그를 덤취세울만한 수완이나 담력이 있는지 가늠하지도 못한채.

《안녕하세요.》

밝고 부드러운 처녀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의 기분은 단번에 황홀해졌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참, 오래간만이요.》

김이돌의 어조는 생각과는 달리 처음부터 굳어지기 시작했다.

빨래함지를 돌등에 내려놓은 리수영은 반가운 낯색으로 샘물같은 웃음을 지어보이더니 《아이, 많이두 잡았구만요.》하며 검은 바탕에 붉은 점이 곱게 박힌 산천어며 배때기가 새하얀 참고기들을 재미나게 구경하는것이였다. 그러는동안 이들은 전번날 밤에 미처 몰랐던 처녀의 안장코며 얼굴에 다문다문 박힌 주근깨들을 유심히, 무례하

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 곱게 생긴 녀자는 아닌데.)

하지만 처녀의 얼굴생김은 그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그늘이나 실망도 던져주지 못했다. 무엇때문인지 그것이 더 친근감을 자아내는것이였다.

물고기구경에 정신을 파는 리수영을 이윽히 지켜보던 그는 《오텔!》하며 물고기를 껴미채로 처녀앞에 불쑥 내밀었다.

《어마나! 그건 왜요?》

그러자 처녀보다 더 당황해난것은 이돌이였다. 저도 모르는사이에 내민것인데 이처럼 놀라와하니 대답할 말이 없었다. 하긴 그때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말한다면 《그저 동무한테 무엇인가 주고싶어서.》라고 해야 옳을것이다.

그러나 그렇게야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지난번에 우리를 위해서 밤길에 수고랑 많이 했는데 ...》

《아이참, 내가 뭐... 값을 받고...》

모욕이나 당한듯 얼굴이 새빨개진 처녀는 빨래함지를 도로 이더니 강웃목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그제사 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를 했는가를 깨달았다. 처녀의 뒤모습을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던 이들은 그만이야 물고기껴미를 사품치는 강물에 힘껏 던져버리고말았다.

그 일이 있은후 그는 처녀에 대한 생각을 짝 잊어버리리라 맘먹었다. 그 처녀와 만났댔자 오히려 골탕만 먹기때문이었다. 어쨌든 그와 두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두고두고 후회될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우선 떼목우에서 우편국쪽을 돌아보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떼를 물고내려오다가 하얀 회칠을 한 우편국울타리가 보일때면 가슴이 설레이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잡으리라.

그렇지만 닻새도 못되어 그는 도저히 실천할수 없는 결심을 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우편국쪽을 보지 않으려고 떼목우에서 고개를 외로 돌리면 반대쪽 물결우에 처녀의 얼굴이 얼른 거리고 잠자리에 누우면 전신실 창턱우의 꽃병에서 하느적이던 나리꽃 이파리들이 쫓을길없이 눈앞에 사물거렸다.

생활에는 맘먹으면 먹은대로 되는 일도 있고 되지 않는 일도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결심과는 정반대로 거침없이 기어들어가는 일도 세상에 있다는것을 스물네해나 살아온 오늘에야 처음 깨닫게 되었다. 놀랍고 이상스러웠다.

마침내 한주일후 그로서는 실로 믿기 어려울만큼 엉뚱한 일을 해놓았다. 처녀에게 장문의 편애편지를 썼던것이다. 난생처음 하는 일이다보니 술한 종이장들을 없애며 골머리를 앓은끝에야 드디어 그럴듯하게 마무리할수 있었다.

밥상처럼 생긴 얇은팽이책상위에 편지를 놓은 다음 벽에 몸을 기대니 고역을 치르고난것처럼 맥이 풀리고 나른해졌다. 물러드는 피곤을 못이겨 기지개를 켜며 하품을 하던 그의 눈길은 편지 결봉에 씌여진 자기 이름에 닿는 순간 기지개도 하품도 갑자기 똑 멎어버렸다. 노상 들어오던 김이돌이란 이름 석자가 새삼스레 눈에 거슬렸던 것이다.

(이거 어디 아이들의 이름같아 이런 편지에야 헛참, 쓰겠나.)

그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두고 시비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편에편지결봉에 쓸 이름으로는 확실히 적당치 않았다. 결봉에 쓴 이름이 불합격이면 편지내용 역시 마음에 들리 없으리라는 생각이 집요하게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그렇다고 당장 이름을 고칠수도 없는게고.

하긴 썩 오래전 일인데 뒤집에 사는 귀동이와 함께 좋아 한나절이나 머리를 뺀끝에 《돌》자를 《석》자로 고쳐 《이석》이라고 고쳐본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석이라 불러주는 사람은 없고 여전히 《이돌이, 이돌이》 하였다. 그래서 툭툭 불만을 터뜨리던 어느날 고개넘어 배나무골에 사는 그의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애, 이돌이 있나?》

성이 똑같이 난 할아버지는 사립문을 열자 고함지르기 시작했다.

《네 이놈, 이름을 고치려 들었다면서? 그 이름을 어떻게 지은 이름이라고 함부로 고쳐, 되지 못하너석.》

할아버지는 짙고온 천년죽 지팡이로 널마루바닥을 광광 내리쳤는데 그때마다 마루짚새기로 뜬 김같은 먼지가 폴락폴락 일었다.

《맑은 물에 큰고기 없다구 이름이 번지르르해가지구 큰일을 치는걸 내 원 보질 못했다. 이놈, 다시 그따위 장난질을 했다간 정경일 분질러놓겠다.》

그후부터 이들은 한번 지은 이름은 영영 고칠수 없는것이라고 단정했다.

저녁먹이를 찾아 부지런히 날아에는 제비들을 창밖으로 내다보던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었다.

(차라리 지금 당장 처녀를 찾아가서 편지를 내손으로 주고말자. 그러면 그자리에서 대답을 받을수도 있지.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언제 올지 모를 회답을 세월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성미도 용키는 용커든.)

김이돌은 봉투안의 편지를 끄집어내어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결봉을 복복 찢어버렸다. 옷을 갈아입은 그는 서둘러 사립문을 나섰다. 강아지가 따라오는것을 발길로 쫓으며 얼마쯤 가던 그는 머리를 대충 빗질이나 하자고 손거울을 꺼내들었다. 순간 이들은 그만 실망하고말았다. 어느새 자랐는지 머리가 풋밤송이처럼 푸시시한게 꼴

불견이었다. 총이 센 그의 머리는 조금만 자라도 이 모양이 되고마는것이였다.

(안되겠는걸, 이런 더꺼머리론 처녀한테는 고사하고 읍거리를 지나가기도 메사하겠는데. 머리를 깎고 래일 찾아가는수밖에 없군.)

이돌은 배나무골의 할아버지네 집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어릴적부터 할아버지한테서 머리를 깎군했다. 산기슭 외딴 집에서 산림보호원을 하는 할아버지는 의례히 손자의 머리를 자기가 깎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머리가 길무렵이면 리발기를 가지고 고개를 넘어오는것이였다.

래일은 일요일이니 틀림없이 리발도구를 싣는 보자기를 어깨에 걸치고 노루뿔 손잡이가 달린 천년죽 지팡이를 끌며 나타날것이다.

그는 배나무골을 향해 시적시적 산길을 뚫아올랐다.

다음날.

머리를 깎고 개울가에서 목욕까지 하고난 그는 늦은 아침녘에 배나무골을 떠났다. 리수영을 만날 그 순간을 그려보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고개마루를 넘어 쉼나무숲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마을로 향하던 그는 그만 우뚝 걸음을 멈추지 않을수 없었다. 소비조합 앞마당의 키높이 자란 황철나무중허리에 걸린 고성기가 뜻밖의 소식을 알리였다. 전쟁이 일어났던것이다...

장달음으로 마을에 와보니 동무들은 하나도 없었다. 군으로, 군사동원부로 갔다고들 했다.

《나를 빼놓고 이것들이 저희끼리만...》

이돌은 때동을 향해 뛰었다. 물가에 이른 그는 무작정 수문을 열어제끼 다음 때목우에 올랐다.

물을 앞세우는동안(산골 때들은 수문을 더친다음 물을 한동안 앞세운후 출발한다.) 숨을 돌리며 주위를 둘러보니 마을은 보리이삭이 물결치는 언덕마루에 가리워 쑥대들이 드문드문 자란 동기와 지붕들만 보이고 이 동네 아이들이 《말잡자리》라 부르는 길이가 한뼘이나 되는 푸른 잡자리들이 때동의 잔잔한 물판을 스룩스룩 무심히 누벼가고있을뿐이였다.

이제 이 길을 떠나면 탄우가 쏟아지는 전선길에서도 야전천막의 잡자리에 누워서도 늘 보아오던 범상한 저 풍물들이 사무치게 그림고 못건디게 정다워질 꿈속의 요람으로 될줄을 생각이나 하는지. 고향마을 사람들한테, 정든 산천에 하직 인사조차 올리지 못한채 숨가쁘게 <내뻥> 자기를 두고 《젊은이들의 미덕에는 분별이라는데 없어 탈이거든.》 하고 마을의 좌상로인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입을 다실수 있다는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김이돌이였다.

하지만 물기슭의 바위너설밑에 무덕무덕 피어난 들나리꽃 떨기들이 눈에 띄이자 우편국의 전신실창턱에서 빠금히 웃던 나리꽃이 생각났고 며칠전에 본 그 꽃이 지금쯤은 시들지나 않았을가 하는 걱정마저 들었다. 순간 때에서 허양창 뛰어

내려 물을 침범침범 밟으며 그쪽으로 달려간 그는 나리꽃을 한줌씩 모아쥐며 부지런히 꺾기 시작했다. 아름이 벌게 꺾은 꽃을 싫나무단처럼 묶어 들고 폐목우에 다시 오르자 끝개떼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군으로 향했다.

면소재지의 여울목우로 지나간 다리미를 빠지자마자 이들은 재빨리 허리를 펴며 묵직한 꽃단을 우편국 올라리너머로 힘껏 뿌려던졌다. 포물선을 그으며 허공으로 날아간 들나리꽃단은 널판자 울타리의 옷모서리에 꽂 부딪치자 뿔뿔이 확 풀리었다. 다행히도 두어송이만 울타리밖에 떨어졌을뿐 다 안으로 넘어갔다.

그 소리에 놀랐는지 전신실 창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나 리수영의 얼굴은 울타리에 가리워 보이지 않고 창문에 드리웠던 흰 문보만이 산전막의 하얀 점심연기처럼 바람결에 나뭇기며 멀어지더니 마침내 멍기마냥 작아졌다.

(차라리 꽃단속에 이 편지를 찢어넣었을걸 잘못했거든.)

하지만 우편국 건물은 이미 강변 버들숲사이로 얼른거리다가 벼랑끝이 저쪽으로 사라지고 폐는 바람을 일쿠며 계곡을 누벼갔다. 달구지나 자동차와는 달리 폐동에서 출발하면 종착점까지 단숨에 가야 하는 끝개떼였다. 바람처럼 소리도 없이.

그대신 해가 기울 무렵 그가 한창 군복을 입고 있을 때에야 사람들로 붐비는 군사동원부 마당으로 먼저 떠난 마을 친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서고있었다.

전선으로 떠나던 날 환송군중들로 꽉 찬 역구내에 그를 바래우러나온 친척은 많지 않았다. 어머니와 누이동생 그리고 목세루 두루마기에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뿐이었다. 친척이 많은건 부럽지않았으나 처녀들의 배웅을 받는 친구들을 보니 어쩐지 마음이 허전했다.

(모를 일이군. 저것들이 언제 친해졌나. 그래도 하나씩 다 친해두었는데. 예, 전쟁이 일어날줄 알았으면 어제 제창 처녀를 만나는걸...)

그는 군복안주머니에 소중히 접어넣은 편지를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렀다.

《덜커덩!》

기차가 움직이자 역구내는 벌둥지를 쭈서놓은 것처럼 소란스러워졌다.

《이돌아!》

할아버지의 거울진 고향소리가 주위의 소음을 누르며 울렸다.

《애, 이돌아, 영웅이 돼서 돌아오너라. 어디 하나두 상치는 말구우!》

노루빨손잡이가 달린 천년죽 지팡이를 허공에 휘둘러대며 웨치는 할아버지의 허연 수염발이 바람에 흩날리고있었다.

배웅나온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다가 산굽이 뒤로 사라진 다음에도 전신수처녀의 얼굴은 바람에 나

뭉기던 하얀 문보와 엇갈리며 오래도록 눈앞에서 사라질줄 몰랐다.

《동무는 고향이 어디세요!》

희끄무레하게 드러나보이는 메밀밭머리를 지날 때 처녀가 하는 말이었다.

《멀리 북쪽이요.》

총곤을 한번 주슬러올리며 그는 짙막하게 대답했다. 그것도 소나무막대기처럼 짹짹한 목소리로.

해저무는 물가에서 처음 만났던 못잇을 그 저녁부터 오늘까지 꿈속에서도 불비속에서도 고스란히 간직한 그리운 목소리가 마음속에 흘러드는 이 시각 무엇때문에 정중하고 딱딱한 말마디들만 튀어나올까? 술한 눈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처럼.

전쟁의 포성과 함께 영영 만나지 못할수 있리라 생각했던 처녀와 나란히 외진 밤길을 가고 있는 지금 그는 불같은 말들을 끝없이 쏟던가 아니면 묵묵히 견고싶을뿐 그 《중가운데소리》들은 하고싶지 않아서 그럴수도 있다.

《함경도 말씨라는것이 대뜸 알리는군요.》

김이들은 대답을 피하며 한동안 걸었다.

(이 처녀가 혹시 나를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숲덤불사이를 오가는 반디불들, 길센의 다래덩굴밑으로 흘러나오는 달삭지근한 향기, 길아래턱 어디선가 이는듯 지는듯 들리는 물소리... 전선너머 멀리서 으르릉거리는 포성과 구름덜인 하늘가는 부지런히 썰어대는 탐조등의 불빛만 없다면 전쟁전이나 다름없는 은은한 여름밤이다. 좋은 벗과 거닐며 부드럽고 밝고 뜨거운 정을 한껏 터놓고싶은 이런 저녁은 워낙 사랑을 꽃피워보지 못한 젊은이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지없이 선량한 모든것을 불려내기 위해 생겼으리라.

살같이 흐르는 홍계수물결우에서 이처럼 호젓한 기회를 안타까이도 그리였는지.

뜨거움이 솟구치는 가슴을 녹갯히며 물적하니 걸어가는 김이들의 귀전에 형만반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이렇게 부추기고있었다.

《말을 떼라, 어서! 저절로 달려와 네품에 덥석 안길 체네가 있을듯싶냐! 속마음을 그대로 사내답게 토설해라, 바보가 아니거든.》

이윽고 그는 《아니야!》 하며 도리머리를 저었다. 만약 형만아저씨가 정찰을 떠나는 내가 출발시간을 앞두고 처녀앞에 그런 말을 떼려는것을 안다면...

김이들은 주먹으로 자기의 옆구리를 툭 찌르며 숨가쁘게 씨근덕거리는 형만아저씨의 다른 목소리를 듣고있었다.

《당장 입을 다물지 못할가, 미웁한 녀석! 체네게절이 들어두 툴수가 있지 전투명령이 떨어졌다는건 때루 말하면 수문을 터놓았다는 소리나 같겠는데 때군이 그래 수문이 열린 다음에두 제볼

장을 보는 법이 있더냐. 떼동을 떠나면 하늘이 두쪽반이 돼두 다음 물동까지 한달음에 가닿아야 하는게 흥계수 떼군이야!》

이들은 먼구스레 웃으며 칠혹같은 밤이라는데도 잊은 모양 고개를 외로 돌리었다.

하긴 한시간후면 적후로 들어가야 할 내가 처녀를 붙들고 사랑을 고백한다는것도 어딘가 좀 낮이 뜨거운 일이지. 그가 만약 나를 마음이 없어한다면... 생사를 가늠 못할 싸움을 앞둔 병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이걸 너무 가혹한 짓이야! 처녀를 딱한 처지에 몰아넣어도 분수가 있지, 우리 성미엔 맞지 않아. 이제 정찰에서 돌아오면 그 즉시로 리수영을 만나자! 대낮이건 밤이건, 주위에 사람들이 열 스물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건 상관없이.

하지만 지금은 《떼목》 우에 올랐다. 송진과 이끼냄새가 호흡을 가리우고 바람이 귀뿌리를 때리는 흥계수 토장의 골개떼가 아니라 적후 중심길로 들어가는 위험천만하고도 영예로운 《떼목》 우에.

《대대부까지 아직 멀었나요?》

부드럽고 천진스러운 처녀의 목소리였다.

《차, 이 동무 걸으면서 말하면 안된다고 않소.》 이렇게 말하고난 이들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부끄러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때 《셋, 누구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사 김이들은 보초소알까지 왔음을 알았다. 위병소에서 보초장이 달려나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보초장동무! 무전수를 데려왔소. 대대부에 안내하라구.》

이들은 병실쪽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처녀의 광량한 목소리가 어둠속에서 들렸다.

《수고했어요-오!》

...먹장갈던 하늘에 금이 실리듯 희끄무레한 달빛이 새여내리는 전호가에서 정찰조장 김이돌하사는 두 병사와 함께 변신암호를 받으러 들어간 무전수가 나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습윤한 밤공기는 골짜기 저 아래, 며칠전 반돌격전투때 파괴된 적땅크의 잔해들에서 아직도 풍겨나는 역한 모빌유냄새를 실어오기도 하고 밤이슬에 축축해진 전호앞의 딸기숲을 어루쓸기도 했다.

《아주머니한테서 오늘 무슨 편지가 왔길래 상등병동진 하루종일 기분이 좋으시오.》

《응, 둘째가 걷기 시작한다.》

손바닥에 단도날을 썩썩 문질러보는 김이돌의 곁에서 전사와 나이는 상등병이 주고받는 말이였다.

《치이, 아이야 낳으면 차차 걷기두 하구 뛰기두하게 생겨먹은건데 그제 무슨 큰일이라구.》

《동문 아직 몰라. 처녀 손목 한번 쥐여보지 못한 꽃내기가...》

《셋, 사람을 어떻게 알구 자, 보시라요.》

전사는 두번째 단추를 벗기며 아주머니를 뒤지더니 고향처녀한테서 받은 편지를 흔들여보였다.

《음, 이 종각 보기하군 다르타아. 래일 아침 정찰에서 돌아오면 한번 읽어보세. 지금은 어두워서 못보겠으니.》

《우린 앞뒤집에서 살았는데 어릴적엔 주로 다루는 일이 많았구 그후엔...》

김이들은 그들의 말에 끼여들 생각이 별로 없어 위장그물에 풀대나 좀 더 꽃을 생각으로 가까운 풀숲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하긴 그도 며칠전 할아버지한테서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인즉 남보다 잘 싸워 무훈을 많이 쌓아서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부탁 절반, 혼시 절반이였다. 마감은 매번 쓰는 류사한 문장 즉 아무쪼록 몸조심하여 앓지 말고 상하지도 말며 몸성히 돌아오라는 요구로 끝났었다.

(영웅두 되래 상하지두 말래 참 답답두 하시지, 새끼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아 영웅이 되는 법두 있을가 원.)

그가 허거픈 미소를 지으며 키낮은 가독나무가지를 꺾으려 할 때였다.

《조장동지!》

변신참모한테 갔던 무전수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새로 왔다는 무전수처녀가 이걸...》

《뭐이라구?!》

뜻밖의 소리에 당황해난 이들은 어리뻑뻑한 낯색으로 그가 내미는 자그마한 수첩을 받았다.

《김이돌하사동지한테 주라고 하면서.》

《그 동무가 내 이름을 알더라 말이지.》

《그럼 모르는 사임니까?》

《어? 으-응!》

김이들은 열결에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다부지게 생긴 무전수는 고개를 한번 기웃거리더니 터벅터벅 전호쪽으로 가버렸다.

(그러니 아까 밤길을 함께 오면서 나를 알아보았었구나.)

그는 서둘러 수첩을 펼쳤다.

책갈피속에는 새노란 나리꽃 한송이가 식물채집을 한 표본처럼 정성스레 끼워져있었다. 그 수첩장밑에는 《기다리겠어요.》라는 여섯글자가 어스레한 달빛속에 드러나보이고.

일순, 김이들은 연필로 박아쓴 그 글씨가 도랑물같은 목소리로 변하여 들렸고 떨기떨기 꽃송이가 되어, 그 짙은 향기가 되어 가슴속에 갇아들었다. 멀리 떠나온 흥계수강, 새벽때로 내릴 때면 비둘기벼랑이며 《신선느그비》를 지나 읍에 이르기까지 산기슭과 바위턱에 그러히도 만발하고 소담하게 피어나 자기를 마주 향해 정답게 웃어주던 들꽃의 향취처럼.

새벽이 가까와올무렵.

어려운 정찰임무를 마친 정찰조는 적의 최전방

감시망을 벗어났다. 밤이슬에 축축히 젖은 새초 잎들이 바지가랭이에 휘감기는 언덕길을 툭아 잣나무들이 드문드문한 등성이에 이르자 김이돌하사는 휴식을 명령했다.

대대부 뒤산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어스크레한 룬곽으로 보이는곳, 잠시 다리쉬을 하고나면 단숨에 가닿을수 있는 거리였다.

(이렇게 전투임무를 척 끝낸 의젓한 걸음으로 리수영이앞에 나타나야 그게 제격이지.)

그는 이른봄 첫뼉을 내리우고 마일로 돌아오는 기분이였다. 게다가 기다리는 처녀를 만날 기쁨까지 합치니 가슴은 마냥 부풀기만 하고 온 하늘과 땅, 산천초목마저 자기를 향해 축복을 보내는 것 같았다.

파편조각이 여기저기 박힌 잣나무에 기대앉은 김이돌은 전투가방속에서 리수영이 준 수첩을 슬그머니 꺼내며 시무룩이 웃었다.

(언제 끼워넣은 꽃일까? 혹시 때목우에서 내가 뿌려던진 꽃단에서... 그럼직도 해. 그런데 이제 그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한다? 말은 무슨 말 그저 만나면 되는거지.)

멀리 건넌산 말기에 내리는 밤안개와 지어 미풍에 흔들리는 풀대들까지도 그 누가 함부로 처분할수 없는 신성한것으로, 자기의것으로 새삼스레 느껴지는 순간 그는 출발명령을 내리려고 일어섰다.

이때 누구인가 그의 옆구리를 툭 쳤다. 불길한 육감으로 주위를 살펴보니 바른편 새초밭에서 성냥불빛이 얼핏 보였다. 순간 김이돌은 철갑모의 한쪽 모서리가 번뜩이는것을 가려볼수 있었다. 각성무딘 적 보초병이 담배를 피우는것이 분명했다.

적의 일선경계를 빠져나온줄 알았는데 웬 놈들 일가?

이들은 조원들과 함께 배밀이로 그쪽을 향했다. 적보초를 우회하여 우묵히 패운 흙채기로 기여가던 그는 그만 아연했다. 나무가지들로 위장한 수십대의 땅크가 밀집되어있었던것이다. 아군의 턱밑까지 접근한 셈이었다.

만약 적들이 이 언덕을 타고왔아 포사격을 들이댄다면 아군진지는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날것이었다.

(진짜 적정은 여기 있는걸 모르구. 쥐새끼같은 놈들!)

그러나 무선기는 아까 리수영이와의 1 차 교신이 끝난후 적들의 추격을 받다가 수류탄 파편에 파손되었다. 두번째 교신시간도 지났으니 지금쯤은 아마 응답없는 우리를 향해 리수영은 불안스레 호출신호만 보내고있을것이다.

《달려가서라도 빨리 대대부에 알립니다.》

나이트 상등병이 수군거리는 소리였다.

김이돌은 입을 무겁게 다문채 고개를 가로저었

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탄을 마주한듯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을 바로 그때 무슨 기미를 알아 차렸는지 적땅크의 전조등들이 몽땅 켜졌다. 이상스럽게도 수십대의 땅크가 대가리는 일제히 바깥쪽으로 향하고 또아리처럼 틀고있었는데 그 모양은 마치 《뚝감자》꽃을 방불케 했다. 주위에 개미 한마리 얼씬못하게 만들어놓았었다. 그 한 복판에 아마 적땅크병들이 있을것이 틀림없었는데 벌써 하나 둘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뚫질놈들, 벌써 기동하려는게로군.)

거대한 괴물같은 땅크무리를 이윽히 내려다보던 김이돌이 말했다.

《들이칩시다.》

단호한 목소리라기보다 너무도 태연한 어조에 세 병사는 오히려 당황해났다.

《치다니요?》

《그럼 저걸 눈앞에 두고 그냥 가자는거요? 저놈들이 선손을 쓰면 야단이요. 그러니 꼼짝못하게 붙들어 매놓기오다.》

말뜻을 리해못한 상등병과 두 전사는 더욱 어안이 벙벙하여 눈만 슬쩍이었다. 대대 병력으로 도 엄두를 못낼 적의 기갑력량인데 무슨 타산으로 저러는지 알수 없었다.

《자, 이렇게들 말귀들이 어둡다구야. 들어보우다나. 먼저 내가 한방 갈겨 전조등불빛을 하나 꺼버린단말입니다. 그러면 깨진 전등이 밝히던 구역만은 새까매질게 아니요. 뚝감자꽃잎이 하나 떨어진것처럼 되는 그 틈바구니로 날아들잔말이요. 파발총을 휘두르고 수류탄으로 터치면 다 죽었지 재간있는가. 땅크병이 없는 땅크야 파고철이나 갈지워.》

아무런 현실성도 있어보이지 않는 작전이었다. 그러나 차츰 생각을 깊이 해볼수록 승산이 보이는 전투라는것을 모두들 인정하게 되었다.

이런 술기로운 궁리가 어떻게 떠올랐는지 스스로도 놀라왔던 모양 느슨한 웃음을 짓던 김이돌은 기관단총의 안전장치를 풀려고 할 때에야 아직도 그 자그마한 수첩을 한손에 꼭 거머쥐고있음을 알았다.

《전투준비!》

수첩을 옷 옆낭에 집어넣으며 그는 조용히 구령을 주었다.

한방의 총성과 함께 대낮처럼 밝은 새초밭에 먹물로 그은듯 한줄기 통로가 생겼다. 바로 그 길을 따라 김이돌하사는 세 병사와 함께 바람처럼 돌진하였다.

가다리는 처녀가 있는곳으로 가는 곧바른 길은 바로 이 《검은 오솔길》을 따라 뻗어있다고 확신한 청년, 그는 위험도 자기의 랑심도 에둘아갈 줄 모르는 흥계수 떼몰이군이였다.

언제나 보고싶던 사람들

정도희

항시 만나고싶던

사람들이다

꿈결에도 보고싶던

모습들이다

바람도 싱그러이 불어오는

여기 패궁전마루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영광의 대오속에 서있는 그대들을

여기서 다 만났구나

내 어린 그 시절

보천보전투위훈담 들으며

간절한 소원으로 남겼던 그리움

가슴속 소중한 꿈을 깨치는

행복의 이 마당

저분들이었구나

떠나온 고향은 구름아래 저 멀리

넘어온 그 령은 발밑에 련련히

날리는 붉은기 머리우에 펼쳐들고

장군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그리도 먼길을 헤쳐온 사람들이

저 투사가 아니냐

꽃피고 잎진 계절 열백번 바뀔대도

못잊어 못잊을 6월의 그밤

자주의 새넛을 겨레에게 심어주며

간악한 일제의 아성우에

세찬 불벼락을 퍼붓던 용감한 기관총수는...

저 늙은이었으리라

민족재생의 숨결을 받아안은 그날

아직 어깨우의 바줄을 벗지 못하고

물자운반의 길에 올랐던 백발의 로인이...

아, 한사람한사람

내 항시 보고싶던 사람들이어서

꿈결에도 그리던 모습들이어서

만나자 불우로 흘러내리는건

감격의 뜨거운 눈물뿐인가

정녕 조국의 푸른 하늘이 비긴

나의 맑은 눈동자에 티가 없으라고

내 가는 앞길에 즐거움만 있으라고

상기도 손과 손에 틀어쥔

총이며 낫... 농지를 못하고

옥죄인 신들메를 풀지 못한 저분들

북받치는 격정에 내 얼어붙은듯

오래도록 우리르는 불멸의 기념탑이여

해빛찬란한 이 땅에서

산악처럼 쌓였던 그리움을 터치며

아 나는 지금 영웅 1세대들과

기쁨의 상봉을 한껏 나누노라!

그대들처럼 내 그렇게 살고 살자고...

얼굴 외 1편

송천구

우리 집의 두툼한 사진첩
끝까지 다 번진 막내딸 영이
문득 까만 눈 포록이며 묻는다
할아버지 사진은 왜 없는가고...

대답을 기다리는 딸애앞에
내 입을 열지 못하는데
추억을 불러내며 다시 묻는다
할아버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가고...

아, 무슨 말로 설명하면
천진란만한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으라
나도 모르는 그 얼굴
나도 그리운 그 모습을

내 영이보다 더 어릴적
전선으로 떠난 아버지
사진 한장 남기지 않고
결전의 고지우에서 돌아오지 못했으니

정녕 무엇으로
그 모습 그 얼굴 펼쳐보인단 말인가

어린 날의 눈동자에 담아두었던
희미한 기억마저 사라져버렸으니

하지만 내
이것만은 자랑스럽게 말해줄 수 있구나
너의 할아버진
리수복영웅처럼 생겼다고
강호영영웅과도 같다고

그리고 보여줄 수 있구나
믿어지지 않는듯
머리를 가로챘는 딸애에게
소중히 보관한 아버지의 금별메달
할아버지의 얼굴처럼
영웅의 모습처럼

세월은 흘러도
변함없이 빛을 뿌리는 금별메달
어버이수령님 품속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기억속에
길이 영생하는 그 모습
네 할아버지의 얼굴이라고!

나는 가슴에 불을 안고 산다

나는 가슴에 불을 안고 산다
하루도 아니
일년도 아니
장장 40년 세월을

물로 끄지 못하고
흠으로 덮지 못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뜨겁게
더욱 세차게 타오르는 불

나는 가슴에 그 불을 안고 산다
이제나 저제나
활화산처럼 터쳐놓을
그 순간을 묵묵히 기다리며

50년의 음산한 가을날
미국놈과의 싸움에서 쓰러진 아버지

땅을 물들이며 흐르던 그 붉은 피가
불씨로 심어져

아버지를 잃은 그날에도
아버지가 된 행복한 오늘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나는 가슴에 불을 안고 산다

아, 이불
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기전에는
미제를 영영 태워버리기전에는
멈춰세울수도 끝수도 없으리니

판가리 그 시각
다가올 결전을 기다리며
나는 가슴에 불을 안고 산다
마음의 불, 심장의 불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투적소설문학

정순희

오늘 우리는 위대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개시 40 뽁을 맞으며 전화의 나날 미제와 그 주구 피뢰도당의 침략을 물리치는 거족적인 영웅적항전에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이 떨친 빛나는 가지가지의 위훈의 자취를 감회깊이 더듬어보며 아울러 이 시기 전쟁의 치렬한 불길속에서 창조발전된 영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을 돌이켜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전시문학의 전투적 강령을 높이 받들고 작가들이 싸우는 인민과 함께 숨쉬며 포화속에서 창작한 전시문학은 조국문학사우에 참으로 자랑차고 귀중한 성과로 아로새겨져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한 전시문학가운데서도 소설문학은 그 사명에 맞게 전투적이며 영웅적인문학의 특징을 체현하고있다.

영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은 인민대중이 모두 다 영웅적으로 싸우는 위대한 력사, 격동적인 시대를 반영하고 영웅적성격을 체현한 사회적전형들을 긍정적주인공으로 형상함으로써 시대와 인민을 영웅적위훈의 길로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한다.

전시소설문학이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문학으로 된것은 무엇보다도 영웅적사변들로 충만된 거창하고 격동적인 조국해방전쟁과 같은 위대한 시대가 펼쳐진것과 관련되어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그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 영웅조선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침으로써 격렬한 반미투쟁의 영웅적사변들로 충만된 력사적인 시대를 이 땅우에 펼쳐놓았다.

현실은 문학의 모체이다. 영웅적시대는 영웅적문학을 낳는다.

전시소설문학은 격렬한 투쟁의 시대의 필연적인 산물로서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문학의 품격을 갖추고 우리 문학사우에 자랑찬 화폭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고 또 전쟁현실이 영웅적이며 전투적인 사변들로 충만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반영한 문학이 곧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문학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지난시기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더라도 침략을

반대하는 큰 규모의 전쟁이 없지 않았으며 영웅적사변들로 기록된 력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 그 모든 력사를 반영한 문학이 곧 전투적이며 영웅적문학으로 된것은 아니었다.

한 시대의 문학이 영웅적문학의 품격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문학에 대한 수령의 옳은 령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전시소설문학이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문학으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시문학발전을 위한 전투적인 창작강령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여주시것과 전적으로 관련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을 전쟁승리를 위한 힘있는 사상적무기의 하나로 보시고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작가, 예술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1950년 12월 24일),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51년 6월 30일), **《우리 예술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1951년 12월 12일)와 같은 전시문학예술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창작강령을 발표하시여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작가, 예술가들은 인간정신의 기사로서 자기들의 작품에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견결한 투지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뚜렷이 표현하여야 하며 자기들의 작품이 싸우는 우리 인민의 강력한 무기로 되게 하며 그들을 최후의 승리로 고무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시 작가, 예술가들이 지닌 숭고한 사명을 깊이 인식시키시면서 전시문학에 담아야 할 주제사상적내용에 대하여서와 창작과정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인 예술적형상의 본질문제, 전시문학의 긍정적주인공들인 전사-영웅의 성격창조문제, 생활에 대한 예술적일반화와 전형화를 위한 방도문제, 작가의 세계관과 창작의 호상관계 등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전투적이며 영

웅적인 문학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으로 작가, 예술인들을 힘있게 고무하시였다.

전시소설문학이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문학으로 된것은 또한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선과 후방에서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소설들을 적극 창작한것과 관련된다.

작가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충성을 안고 미제침략자들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과 대중적영웅주의,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관주의, 미제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소설작품에 뚜렷이 표현함으로써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전시소설문학은 싸우는 인민군대와 인민의 수중에 장악된 예리한 투쟁의 무기로 전쟁승리로 인민을 고무추동하는 전투적이며 영웅적인문학으로 창조될수 있었다.

전시소설문학은 선행시기와 다른 새로운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전시소설문학의 주제가 전시문학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탐구형상된것으로서 높은 전투성과 예리성, 포괄성과 련관성을 띠고있는것이다.

높은 전투성은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려는 불굴의 투쟁정신을 의미한다.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인민과 그것을 침해하는 침략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을 반영한 전시소설문학은 필연코 그 내용에서 전투성을 띠지 않을수 없다.

만일 주제적내용에서 전투성이 구현되지 못하였다면 작품이 아무리 형상적으로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인민대중을 최후승리로 고무하는 전투적무기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었을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전투명령을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놈들의 대규모적인 인천상륙작전을 격퇴시킨 월미도 해안포용사들의 투쟁을 형상화한 단편소설 《불타는 섬》(1952-황건),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루를 이전날의 몇해보다 더 보람있는것으로 여기는 인민군습격조원들과 경찰병들의 형상을 창조한 단편소설 《명령》(1953-리종렬), 단편소설 《경찰병들》

(1952-천청송) 등 많은 소설들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주제사상의 전투성은 또한 싸우는 인민에게서 발양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백철불굴의 투지와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에서도 표현된다. 단편소설 《막심 156 호》(1951-황건), 《고지의 영웅들》(1953-리춘진), 《그가 돌아온 길》(1951-황건), 중편소설 《진두령》(1951-유항림)은 인간이 부닥칠수 있는 가장 간고하고 엄혹한 정황속에 전사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성격창조를 통하여 작품의 전투적성격을 강하게 체현시키고

있다.

전시소설문학은 또한 그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예리성을 뚜렷이 구현하고있다.

전시소설문학은 주제사상적내용의 어떠한 요소라도 전쟁에 대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립장, 지향의 견지에서 예리하게 설정묘사하였다.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군사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도에 맞게 우리식의 독창적인 전법들인 비행기사냥군조운동과 습격조운동의 생활력을 확증한 단편소설 《사냥군》(1951-김만선), 《남강마을의 새로운 노래》(1952-리종민), 《고향의 아들》(1951-천세봉), 《복수의 기록》(1953-리기영) 등과 지체없이 남으로 진격해나갈데 대한 1 차진공의 정신을 반영한 단편소설 《강》(1952-리갑기), 《최후의 피 한방울까지》(1950-유항림), 《나팔수의 공훈》(1952-윤시철), 《편지》(1951-윤세중), 《분대장》(1951-윤세중)과 같은 작품들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 당의 의도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것을 조성되는 정황과계기들에서 주인공들의 극적체험체계로 전환시켜 인물들의 성격을 특징짓고 전형화함으로써 주제사상의 예리성을 보장하고있다.

인민군전사들의 혁명적동지와 혁명적인생관 문제는 전쟁현실하에서 교양적의의가 큰 미학적 탐구가 아닐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떠한 침략자도 능히 타승할수 있는 힘의 원천을 밝히는것으로 되기때문이다.

단편소설 《구대원과 신대원》(1952-윤세중), 《우정》(1951-윤세중) 등은 가렬한 전쟁마당에서 동지호상간의 믿음은 무서운 힘을 낳고 배신은 죽음과 멸망을 준다는 철리를 밝혀내고있다. 중편소설 《행복》(1953-황건)과 단편소설 《행복한 사람들》(1953-변희근)은 조국의 미래와 인간의 참된 삶에 관한 의의있는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가 운명적인 문제로 엮어나간것으로 하여 주목되고있다.

중편소설 《행복》은 어느 한 인민군야전병원을 생활무대로 하여 인간의 값높은 삶, 참다운 행복의 진가를 궁지높이 주장하고있으며 단편소설 《행복한 사람들》은 주인공 박창선과 김탄실사이 에 맺어진 사랑관계를 통하여 우리 시대 참된 애정륜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다시말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맺어진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다.

작품들은 정당하게도 청춘들의 사랑과 애정륜리문제를 조국과 전쟁의 운명문제와 결부시켜 형상하면서 그것을 각이한 정황속에서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인간문제로 전환시켜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주제내용의 예리성을 돋구어주고있다.

주제사상의 예리성은 또한 혁명의 주체를 강화

하는데 장애를 주는 낡은 사상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표현된다.

단편소설 《회신속에서》(1951-류근순), 《계도우에서》(1951-리종민), 《춘보령감》(1952-리택진), 《투쟁》(1952-리준영), 중편소설 《흰구름 피는 땅》(1953-천세봉) 등의 작품들에서는 불탄 공장을 복구하고 전시 생산과 수송을 보장하며 전시식량증산을 위한 로동계급과 애국적농민들의 투쟁을 낡은 사상 잔재와의 대립과 충돌속에서 형상하고있다.

한편 전략적일시적후퇴시기 지하투쟁과 유격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간 후방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을 형상한 단편소설 《조가령삭도》(1953-김형교), 《기관사》(재 52-최명익), 《보비》(1952-리정숙), 《첫눈》(1952-변희근), 《안해》(1951-황건), 《조선의 딸》(1952-리복명), 《조국회》(1951-임순득), 중편소설 《싸우는 마을사람들》(1952-천세봉), 장편소설 《대동강》 1부(1952-한설야) 등도 당의 전략적의도에 맞게 그리고 승리할 래일과 잇닿게 형상하면서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힘의 성장과 그 불패성을 밝혀냄으로써 주제내용의 예리성을 보장하고있다.

장편소설 《대동강》 1 부는 전략적일시적후퇴시기 주인공 점순이를 비롯한 평양인쇄공장 로동계급이 놈들의 신문발간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투쟁을 기본사건으로 하여 적강점지구 로동계급의 불패성을 확정한 대표작의 하나이다.

전시소설문학의 주제사상적내용은 또한 포괄성과 련관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사상주제적내용의 포괄성과 련관성은 조국해방전쟁현실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전시소설작품들은 애국심과 영웅주의, 불굴의 투지와 락관주의, 동지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 등 그 주제내용이 다양할뿐아니라 그것들이 호상 침투되고있다. 그러면서도 작품들에서는 그중의 한측면이 위주로 되면서 이외의 측면들을 복종통일시키고 있다.

즉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특질을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그리면서 그 련관성과 통일성을 옹계 보장하였다.

이와 같은 전시소설문학의 제반 내용과 특성은 조국해방전쟁의 격렬성과 복잡성, 심각성을 반영한것이였다.

전시소설문학은 싸우는 인민의 전형, 전쟁현실의 중심에 선 애국자-영웅의 성격을 창조함으로써 시대의 문학발전과 전형창조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애국자-영웅의 형상은 해방후 우리 문학사에 특이하게 등장한 긍정적주인공의 성격이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인민이 발휘한 애국심과 영웅성은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을만큼 숭고한 높이

에서 발양되였다.

전시소설문학이 창조한 긍정적주인공은 참다운 조국애의 귀감으로서 애국자의 모습으로 부각되고있다. 애국자의 성격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확고히 체현하고 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바탕으로 하여 일관되어있는것이 특징이다.

전시소설문학이 창조한 긍정적주인공은 또한 영웅의 숭고한 모습으로 살아빛나고있다.

세상에는 오랜 옛날부터 영웅으로 불리우는 력사적인 인물들이 적지 않으며 인류문예사는 력사의 갈피속에 수많은 영웅들을 형상하여왔다.

그러나 계급적리해관계의 차이로 하여 영웅적성격의 본질에 대한 옳은 리해를 줄수 없었다.

력대의 지배계급은 착취계급사회를 유지하며 자기들의 노예적, 봉건적, 자본주의적 착취관계를 보존하는데 공적인 행위를 영웅적행동으로 찬양하였다. 그들은 인류사회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숭고한 목적을 지닌 위대하고 용감한 행동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향락과 정권유지를 위한 잔인하고도 폭압적인 행위에서 영웅적인것을 찾았으며 영웅적인 인물을 찾았다.

그러나 공화국이 낳은 새 시대의 영웅은 지난 시기의 영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영웅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의 한성원이라는 자각을 깊이 깨닫고 이 사회정치적생명체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새로운형의 인간전형이다.

특히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배출된 공화국영웅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목숨바쳐싸운 정의의 투사들이였다. 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우리 영웅들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상과 리념을 지니고 그렇게 숭고한 위업에 공헌한 영웅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영웅의 성격은 그 계급적바탕에서 인민적이며 그 발현에서 대중적영웅주의라는데 특징이 있다.

전시소설문학의 긍정적주인공의 성격속에 체현된 숭고한 애국심과 대중적영웅주의는 별개의것이 아니라 서로 떼어낼수 없는 불가분리적인 관계로 밀접히 통일되어있다. 대중적영웅주의는 자기의 향토와 조국, 겨레와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숭고한 애국심에 기초하고있으며 숭고한 애국심은 다름아닌 높은 희생성과 헌신성, 용감성으로 특징되는 대중적영웅주의로 표현되였다.

이처럼 전시소설문학의 긍정적주인공들은 숭고한 애국심의 체현자들로 동시에 집단주의적영웅주의, 대중적영웅주의의 산 모범으로 빛나는 주인공들이였다.

애국자-영웅의 성격은 모든것을 당과 수령과 혁명을 위하여 바칠줄 알며 자기의 리익을 계급적리익에 복종시킬줄 아는 희생적헌신성에서 표

현된다. 숭고한 희생적헌신성은 애국자-영웅의 기풍이었으며 그들의 성격을 특징짓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된다. 희생을 두려워하는 전사에게서 영웅적행동을 기대할수 없으며 위훈에 대하여 도저히 생각할수 없다.

단편소설 《소년통신병》(1953-유항립)은 자기의 피줄을 이어 대대의 지휘통신을 보장한 17살 나 어린 소년통신병의 자기를 초월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이러한 정신은 부대의 전투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는데 대하여 밝히고있다.

단편소설 《참된 사람들》(1952-김현구)은 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깡그리 바치려는 순결하고 참된 전선간호원의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을 보여준 작품이다. 작품에서 간호원 박옥선이 적진에 수류탄을 던지며 쓰러진 한 전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상병에게 날아오는 적탄을 몸으로 막아나서는 영웅적행동은 결코 기이한 일이 아니며 많은 우리 간호원들의 체험 그대로이다.

어쩔수 없는 막다른 정황에서 한몸의 희생으로 적들을 무리로 멸살시킨 단편소설 《벼랑에서》(1951-박태민)의 원주, 《운전수 길보의 전투》(1952-최명익)의 길보, 《기관사》(1952-최명익)의 현준, 미처 해제 못한 적의 반전차지뢰를 몸으로 폭발시켜 땅크의 앞길을 개척한 《당원증》(1950-김만선)의 리운식분대장,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공장의 생명인 전기로를 구원해낸 《행복한 사람들》의 김탄실, 수다한 영웅들의 성격속에 희생적헌신성은 공통적특질로 체현되어있다.

애국자-영웅의 형상은 또한 용감성과 대담성에서 표현된다.

용감성과 대담성은 전쟁시기 적과 맞선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기본자세였고 그들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었다. 용감성과 대담성은 주로 전투정황에서 전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어두운 밤 적진속을 행군하는 길에서 부상당한 다리를 제손으로 짚고 파편을 끄집어낼뿐아니라 적지휘부를 습격소탕하고 도망치는 적땅크를 까부심으로써 습격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박동구분대장(단편소설 《고향의 아들》), 원쑤들의 화약상자가 담긴 삭도와야아로프를 끌어버려 산중에서 몽땅 폭파시킨 삭도운전공 천보령감(단편소설 《조가령삭도》), 부상당한 몸으로 파괴된 적땅크우에 뛰어올라가 적기관총으로 놈들을 갈기고 벌여져가는 의식을 가다듬으며 나팔을 불어 전우들을 돌격으로 고무한 나팔수 기호(단편소설 《나팔수의 공훈》), 누구의 지시도 명령도 아니었으나 조국의 목소리에 응하여 스스로 힘겨운 전투에 달려가간 인민군전사들(단편소설 《조국의 목소리》)의 형상에서도 용감성과 대담성은 의연

히 성격적특질로 나타나고있다.

애국자-영웅의 성격은 또한 혁명적락관성과 백절불굴성에서 표현된다.

전시소설문학의 긍정적주인공들은 장렬한 최후를 앞두고 그 어떤 비극적감정을 체험하는것이 아니라 혁명적비장성과 랑만주의로 충만되어있다.

적들과 직접 대치하고있는 엄혹한 정황속에서 승리를 위하여 스스로 원쑤를 맞받아 최후의 순간까지 희생적으로 싸움으로써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값높이 이바지한 바로 여기에 혁명적락관성의 본질이 있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우리 애국자-영웅들이 발휘하는 애국심과 영웅성의 최고표현이며 그들의 성격적핵이다.

수령을 떠나서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존엄과 위력도, 혁명전사들의 삶과 투쟁도 있을수 없다.

전시소설작품들은 우리 인민의 애국심과 영웅성의 밑바닥에 굽이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경애하는 수령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였기에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심을 생활적으로 절절하게 형상함으로써 애국자-영웅들의 성격속에 체현된 숭고한 자기희생정신, 용감성과 대담성, 혁명적락관성을 생동한 화폭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여줄수 있었다.

생사관가름의 전투정황에서 위대한 최고사령관 동지의 숭고한 영상을 그리며 적기관총을 몸으로 덮는 전사의 형상을 창조한 단편소설 《승리》(1951-김영석), 최고사령관동지께 삼가 올린 맹세를 지켜 과거에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대중적영웅성을 낳는 전사들의 형상을 창조한 단편소설 《고지의 영웅들》, 인민군대와 인민의 영웅무쌍한 투쟁과정을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관철을 위한 투쟁과정으로 형상하고있는 단편소설 《명령》, 《충성》, 《정찰병들》, 《조선의 딸》, 《조국회》 등 수다한 소설들은 이를 형상적으로 확증해 주고있다.

물론 이것은 전쟁전시기 문학에서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고상한 사상감정은 혁명과 투쟁이 앙양되고 거대한 변혁과 위훈으로 충만된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보다 두드러지게 발현되고 풍부해지며 심오히 개방된다.

《싸우는 조선》, 《영웅조선》으로 온 세상에 자랑떨친 위대한 력사의 시기에 조국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함과 하나로 련결시켜 생각하는 우리 인민의 주도적사상감정은 가장높은 수준에서 발양되기 마련이다.

조국과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심각한 운명문제의 차원에서 발현된 충성심, 따라서 전시소설문학에 반영된 충성심은 그 열도와 심도에 있

어서 보다 뚜렷하고 강렬하며 열정적이었다는데 차이가 있다.

전시소설문학은 인간관계와 갈등설정에서도 외적인 격렬성보다 내적인 심각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시기 소설문학에서는 적대적, 혹은 비적대적갈등대상인물을 설정한 작품보다 적대적갈등을 배경으로만 깔아놓고 긍정인물 호상관계에서 야기되는 영웅적주인공의 극적체험세계를 파헤치는 방법으로 기본갈등을 예리화시키고있는 작품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

이것은 전시소설문학이 영웅적현실이 배출하는 영웅적인간을 위주로 보여주었다는것을 말해주며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는 현실긍정의 열정이 비상이 높아진 작가들의 창작적 관점과 립장의 산물임을 증시해준다.

전시소설문학은 또한 복잡한 극적사건들과 급변하는 정황들의 끊임없는 교체과정으로 편쇄되어있는 전쟁현실의 요구에 상응하게 줄거리의 긴박성과 속도를 높게 구현한 특성도 나타내었다.

전시소설문학은 특색있는 정서적색채로 형상적 화폭을 부각하였다.

대다수 소설작품들은 준엄한 전쟁현실을 비장성과 락관성이 결합된 생활정서로 묘사반영하였다.

가렬치절한 전쟁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적과의 대결에서 무비의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을뿐아니라 반드시 적과 싸워 승리한다는 드높은 신심에 넘쳐 온갖 시련과 부닥치는 난관을 용감하게 극복타개해나갔다.

전시소설문학은 이러한 전쟁현실의 본색에 맞게 비장성과 락관성이 결합된 정서적바탕을 기본으로 깔고있다. 이때의 비장성은 전투의 가렬성과 희생성으로부터 오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가렬성을 영웅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비장성이며 적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추상같은 증오의 서리발이 비낀 비장성이며 전쟁승리를 확신하는 락관성으로 충만된 비장성이다.

이로부터 전시소설문학의 형상적화폭에 구현된 비장성은 절망적이며 비극적인것과 인연이 없는 것으로서 승리한 래일과 잇닿은 혁명적이며 미래적인것이였다.

전시소설문학은 비장성과 락관성을 기본정서로 하면서 정론적이며 풍자적인 특성도 구현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 리승만괴뢰도당과 결사의 혈전을 벌리고있던 준엄한 전쟁현실은 잔인무도하고 포악한 원수놈들의 추악한 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며 놈들을 타승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 인민을 불려일으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예리한 정치적분석과 무자비한 규탄의 정신을

주요특징으로 하는 정론성과 풍자성으로 바로 이러한 전쟁현실과 전시소설문학의 성격으로부터 출발되고있었다.

예리한 정치적분석과 무자비한 규탄의 정신을 주요특징으로 하는 정론성과 풍자성은 바로 이러한 전쟁현실과 전시소설문학의 성격으로부터 출발되고있었다.

이 시기 많은 작품들이 원수를 예리하게 단죄하고 풍자적으로 경멸, 규탄한 내용으로 일관시키고 있었지만 그를 본격적으로 형상한 작품은 단편소설 《악마》(1951-리복명), 《승냥이》(1952-한철야), 풍자소설 《뽕다귀장군》(1953-김형교) 등이다.

단편소설 《악마》는 미제원수놈들이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지역에서 저지른 야수적만행에 대한 폭로규탄을 통하여 놈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와 같은 존재라는것을 확인하였다면 단편소설 《승냥이》는 해방전 우리 나라에 선교사의 탈을 쓰고 기여들어 조선인민에게 살인귀적만행을 감행한 미제승냥이놈들의 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한 작품이다. 풍자소설 《뽕다귀장군》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추악한 물골과 놈들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풍자회극적형상속에 확증한 작품이다.

이와 같은 양상적특성은 작품에서 보여주는 사상을 독자들에게 정서적으로 감하고 생동하게 체험할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과 필승의 신념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심어줄수 있었다.

작가들은 전쟁의 전략적단계와 립기응변하는 전투정황속에서 다양한 주제의 단편소설들을 적극적으로 창작함으로써 단편소설은 전시소설문학발전의 주류를 이루게 되였으며 이 시기 소설문학의 시대적과업을 담당수행한 기본양식으로 될수 있었다. 한편 전쟁현실을 반영한 단편소설창작경험과 작가들의 현실체험의 축적, 사상미학적수준이 높아진 주관적요인과 전쟁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단계로 이행하는 객관적조건은 전쟁과 인간의 운명을 보다 폭넓은 화폭속에 전면적으로 취급한 서사시적인 장중편소설의 창작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이 시작된지 1~2 년이 지나서부터 중편소설들인 《진두평》, 《싸우는 마을사람들》, 《행복》, 《흰 구름 피는 땅》, 장편소설 《대동강》(1부)등이 나오게 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전시소설문학은 그 주제사상적내용과 긍정적주인공의 형상, 구성조직, 양상과 형태에서 전투적이며 영웅적인 문학의 특성을 체현함으로써 전쟁의 최후승리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할수 있었다.

우리 소설문학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조된 이러한 경험들을 이어나가며 전쟁주제의 소설창작에 적극 구현하여야 할것이다.

히열

정현철

우리 작업반에는 리춘삼이라고 30 여년동안 수리공으로 일하고있는 아바이가 있다. 톱과 코밀에 이틀에 한번씩 밀어야 한다는 수염자리가 푸릿하여 첫눈에 벌써 수더분한 인상을 준다. 가느스름한 눈가녀에는 바늘끝으로 그어놓은듯한 실주름들이 부채살모양으로 간잔지런히 잡혀있어 웃지 않을때도 노상 웃는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누구말마따나 《인상은 만점》이었다. 마음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물이 깊으면 고기가 많이 모여든다고 그리하여 안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우선 유능한 수리공이다보니 공장의 큰 기계가 고장나도 그를 찾았고 작은 기계가 멎어도 그를 불렀다. 지어 어떤 처녀들은 가방열쇠를 고쳐달라며 퇴근길을 막아서기도 했다. 마치 자기 집의 삼촌처럼 무람없이 불러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며 무슨 일이든 그와 함께 의논하기를 즐긴다. 한번은 직장의 한 여인이 처녀들을 보고 《애야, 난 저런 무던한 시아버지가 있는 집이라면 새서방 보지도 않고 시집가겠다야.》 했다는것이다.

《어마나! 언니두 참. 그 아바인<딸딸이>예요.》 딸들만 있다는 소리였다...

아니다! 녀인들은 춘삼아바이를 다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너그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코를 닦대고 일하는 우리 작업반 사람들이 더 잘 안다.

어느날 춘삼아바이와 나 그리고 작업반장은 분공장에 나가서 일하게 되었다.

우리는 한기대씩 말아서 수리하였다.

나의 옆에서 조력하는 운전공처녀는 웃음이 혀렸다. 말끝마다 웃음이 따라나왔다. 공구를 섬겨주는것도 잊고 웃군하였다. 처녀의 웃음소리가 높아질 때마나 나는 그에게 눈을 흘기었다.

《차, 이런... 누가 보면 일은 안하고 웃기만 하는줄 알겠소.》

그리고는 아바이가 일하는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가 육할가봐서가 아니라 시간도 장소도 잊은듯 일에만 취해있는 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였다. 아바이의 옆에서 공구와 부속을 섬겨주는 운전공처녀는 우리가 부러운지 이쪽으로 자꾸만 눈길을 판다.

《저기 좀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할가요. 웃지도 않고 일하기가...》

나의 조력자는 종달새 삼씨까듯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낼줄 알았다. 하긴 말을 해야 일이 힘든줄 모른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애교가 찰찰 흐르는 처녀

가 노상 옆에 붙어서서 해해 호호 하고 웃겨서만이 아니었다. 사실 나에게는 호들갑스러운 이 처녀보다 더 어여쁜 처녀가 있다.

그 처녀는 인민대학습당에서 사귀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는 우리의 기본이야기에서 중요치 않기때문에 설명을 피하련다. 다만 갓 시작된 우리의 연애가 요즘 한창 단물이 오르고있다는것만은 부끄러운 생각도 들지만 솔직히 말해둬야겠다. 오늘도 우리는 대동강유보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내가 빨리 퇴근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어느덧 오전시간도 다 되었다. 나는 기름묻은 손을 걸레로 닦으며 일어섰다. 저쪽에서 일하는 춘삼아바이는 아직도 조립을 하기에 톱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

《아바이, 점심시간이에요.》

아바이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해빛이 눈이 부실 때처럼 두눈섭을 모아붙이고 나를 바라본다.

코잔등에서는 거뭇한 손가락자리가 났는데 피발이 선듯한 눈에는 왜 찾았는가, 방금 뭐라고 했는가 하는 의문이 담겨져있었다.

《점심시간이란말이에요.》

《어? 벌써 그렇게 됐나?》

그는 얼핏 손목시계를 보고나서 다시 손에 전볼트를 내려다보는것이였다.

《허 이런...조금만 더 빨리 다그쳤더라면 마저 끝내는건데...》

그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며 주섬주섬 공구들을 거두었다.

《빨리 가자요. 오후에 또 쓰겠는데 뭘... 발이 달렸다고 달아나겠나요.》

《허, 무슨 소릴. 공구가 절반 일한다네. 수리공이라는게 공구 귀한줄도 몰라.》

점심식사후에 나는 책을 펼쳐들었다. 나는 공장대학 졸업반이였다. 번역숙제를 하기 위해 사전을 펴놓았으나 글줄은 점차 아슴푸레 멀어져가고 대신 오늘 저녁 만나기로 한 처녀의 아릿다운 모습이 선명히 떠오르는것이였다.

오늘은 30 분정도 먼저 가야겠는데... 가다가 리발소에 들러 면도랑 할 생각이였다.

나는 싱송송송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책을 덮고 말았다. 춘삼아바이는 담배를 입귀에 삐뚜름히 물고 앉아서 낚시바늘을 손질하고있었다. 아마 저담배를 손 한번 대지 않은채 다 태워버릴것이다.

나는 웃으며 뭉을 던졌다.

《참, 아바이도 낚시질을 해봤어요?》

《허, 내 이래봐두 낚시질에선 8 급공에 속해. 이제 자네 잔치상에 중강아지만한 승어를 척 올려놔주지. 허허...》

입보다 눈가장자리의 주름살이 더 많이 웃는듯 한데 후더분한 인정이 함뿍 내비친다.

오후작업에서도 나는 운전공처녀와 재미나게 일을 하였고 춘삼아바이네는 따분히 일을 했다.

작업시간이 끝나기 몇분전에 나는 일손을 놓고 일어섰다. 힘든 부분은 다 해제졌다. 이제는 크랑크실뿔개를 맞추고 볼트로 고정한 다음 기계를 술술 돌려보면 되는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주무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다. 떠날 시간이 된것이였다. 반장한테는 이미 조용히 승인을 받았다.

《야야지, 그런 일이야 못보장해주겠나. 다 생활인데...》

그는 선선히 응했다. 고마왔다. 확실히 그는 리해력이 있는 사람이였다. 젊은 사람이니련애경험도 있을지 모른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나무칼로 귀를 베도 모를 정도로 일에만 파묻혀있는 아바이의 옆을 그냥 지나가기가 미안하여 한마디 인사치레를 했다

《아바이, 마저 수고해주십시오. 난 일이 있어서 먼저 좀 가요.》

《어?》 하고 그는 돌아보았다.

《자네 오늘 조퇴를 신청했던가?》

《아바이두 참.》

나는 픽 웃었다.

《아, 외판 분공장에 나와서까지... 이제 30 분밖에 안남았어요.》

《허, 엉터리군.》

그의 눈가녀주름들은 걱정이 깃들어 갑자기 더 깊어진듯하였다.

《왜 그래요? 반장한테 다 승인을 받았는데...》

《뭐 반장? 허, 이거 여기저기 고장이군. 중수리감이야...》

속생각을 흘리듯 중얼거리는데 나는 그만 화가 났다.

《아, 우리 세명이 나와 일하는데 누가 보기를 합니까, 알기나 합니까.》

《헛참... 누가 본다고 해서 지키구 안본다고 해서 안지키겠나. 그리구 반장이 뭐가 돼서 로동시간을 제주머니의 떡처럼 30 분씩이나 툭툭 싹싹 찢어 떼준단말인가. 반장이 아니라 그 할애비래도 그럴 권리가 없어.》

《참 아바이두...》 하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인차 얼굴색을 고치고 타협조로 말했다.

《아,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나요. 사람이 살아가느라하면 이런 사정도 있고 처런 경우도 있는건데...》

《그러지 말구 돌아서게. 지금은 길게 말할새가 없네만 하던 일을 다하지 못하고 일어서는건 로동자의 일본새가 아니야. 한두해 일했다구 그걸 몰라.》

아바이는 피곳 팔목시계를 내려다보고나서 다시 일손을 잡으며 중얼거린다.

《저런! 25 분밖에 안남았군.》

얼핏 들으면 나에게 하는 말같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자신에게 하는 말인듯도 하였다. 분명한것은 그 목소리에 아쉬워하는 심정이 다분히 숨배여있는것이였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있었다. 이제 옷을 벗느라하면 퇴근시간이 다 될것이다. 25 분이란 작업뒤겨두매를 하면서 천천히 손을 씻는 시간이라고 해도 크게 시비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런데 30 여년씩 로동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도...

흐려졌던 나의 기분은 처녀를 만나서야 해빛만은 안개처럼 흔적없이 사라졌다. 우리는 유유히 대동강유보도를 걸었다. 물리학연구소의 조수인 처녀는 자기들의 연구사업을 현장로동자들이 팔을 걷고나서 도와주고있는데 대하여 감동에 겨워 이야기하였다.

《우리 로동자들은 다 그렇소.》

나는 저도 모르게 긍지높이 말하고나서야 실수를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는 처녀에게 내가 일용품공장 수리공이라는것을 숨겼던것이다. 그러나 처녀는 나의 말을 새겨들지 않은 모양인지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하던 말을 계속하는것이였다.

우리는 달콤히 속삭거리는 정신에 시간가는줄도 어디에 서있는지도 모르고있었다. 문득 처녀가 《오늘도 낚시군들이 많군요.》 하고 말했을 때에야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유보도에는 낚시군들이 주련이 늘어서있었다. 낚시줄을 대어섯개 늘어놓고 지그시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장 부리질것처럼 해친해친하는 낚시대를 붙잡고 동동거리는 낚부기를 긴장하게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다. 물기를 머금은 한줄기 서늘한 바람이 우리의 머리칼을 가벼이 건드리며 지나갔다. 거울처럼 맑고 번들번들한 물결 위에 물오리떼들이 가는듯마는듯 동동 떠서 저녁한때를 즐기고있었다. 서쪽 앞에서는 적꼬만 아이들 한패가 낚시군 뒤에 오구구 모여서서 옥작벽작 떠들어대고있었다.

우리도 낚시군이 잡은 물고기를 구경하고싶어 그곳으로 다가갔다. 정말 그물주머니에는 팔뚝만한 승어가 다섯마리나 들어있었다. 입을 찹찹 다시다가 푸들쩍 꼬리를 쳤다.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

숨쉴있는 낚시군은 귀밑머리가 싹허영는데 앞

가슴에서는 3 대혁명붉은기휘장이 빨갭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또 구경군의 호기심으로 일어넙발자국 떨어져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다. 밀짚모자를 꼭 내려쓴 그 사람은 낚시대를 물우에 척 드리우고 웬 젊은 사람과 저쪽으로 돌아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눈여겨보니 무슨 도면같은것을 담배갑과 라이타로 네귀에 지질러놓고 토론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밀짚모자는 고개만 끄덕인다.

바로 이때 물우에서 동동거리던 감부기가 꼴깍 숨어들어가며 자맥질을 했다.

《아아… 저, 물렸다!》 내가 소리치자 밀짚모자는 책 돌아서며 날쌔게 낚시대를 잡아챘다. 그러나 때는 늦어 먹이를 떼운 허전한 낚시만이 허공중에 아쉬히 떠올랐다가 유보도에 맹랑하게 떨어져내렸다.

《허허, 또 떼웠군.》밀짚모자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는 《아!》 하고 입속으로 부르짖었다. 아바이, 우리 작업반 춘삼아바이가 아닌가?!

입귀에 담배를 뽀뽀름히 물고 새 미끼를 꿰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온통 웃음이다. 그 웃음은 샘물처럼 입에서 솟아올라 눈으로 넘쳐나는듯싶었다. 불현듯 점심식사시간이라고 찾는 소리에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길을 들던 땀이 송송히 맺힌 이마가 떠올랐다.

얼마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서로 잘 어울리는 모습인가!

그런데 유보도에까지 찾아와 설계도면을 토론하는 저 사람은 누군가?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고있을 땐가.

나는 황황히 처녀를 이끌고 그자리를 피했다. 아바이가 나를 알아보면 야단이였다. 앞서도 말했지만 나는 처녀에게 내가 노동자라는것을 정확히 그리고 몇몇이 밝혀두지 못했다.

처음에 처녀는 《전 물리학연구소 조수예요. 그런데 동문?》 하고 물었다.

《예 전…》 순간 나는 처녀에게 짝지치 말아야 한다는 자존심이 불쑥 솟아오름을 의심했다. 그리하여 그것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 모르면서, 하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것을 동시에 느끼면서도 나는 순간의 자존심에 못이겨 웃음까지 보태며 천연스레 말했다.

《저 역시… 일용품공장에서 그 비슷한 일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이 뜨거워졌다. 기회를 봐서 잘 이야기하려 했으나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얼마 안있으면 대학을 졸업하겠는데 그러면 정말 수리반에서 뜰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라올라 그것

으로 자신을 두둔하기도 하고 위안도 하였던것이다…

그날부터 보름정도 지났을까? 처녀는 예고도없이 우리 공장에 전화를 걸어왔다. 후에야 안 일이지만 그는 내가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알수 없어 교환수에게 내 이름만 대었던것이다. 다행히도 교환수는 몹시 바빴던탓인지 내가 수리반에서 일한다는걸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작업반을 찾았는데 일이 안될때라 전화기옆에는 춘삼아바이가 앉아있었다. 나는 그때 다른 작업장에 나가있어 이 모든 내용을 모르고있었다. 그리하여 일이 끝난 다음 아바이가 조용히 만나자고 했을 때 또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몰랐던것이다.

《임자, 요즘 처녀를 사귀는 모양이더구만.》

《예?》

《허. 아까 낮에 전화가 왔댔어. 아, 자네 <춘향>이 말일세. 오늘저녁 갑자기 일이 제기되어 그러는데 래일모레 만나자고 전해달라더구만.》

《그래요? …》

그제서야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런데 뭐 다른 말은? …》

혹시 아바이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바이는 내 말을 못들은듯 《헌데 참…》 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새새 바라보는것이였다.

《거짓말이야 하지 말아야지.》

《예?》

나는 가슴이 뜨끔했다.

《혹시 자네 수리공일을 하는걸 부끄럽게 생각하는건 아닌가?》

《아니요.》

나는 머리를 흔들며 필요이상의 큰 목소리로 부정했다.

사실 나는 다년간의 노동생활을 통하여 노동하는 사람들의 훌륭한 우점들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보면서 사무실에나 앉아있어야 큰일을 하는것처럼 생각하는 폐단도 없지 않는것이였다.

며칠전에도 나는 그것을 체험했다.

그날 나와 춘삼아바이는 분공장으로 가다가 책방에 잠깐 들렀었다. 아바이는 소설책 한권을 샀다. 나에게서는 새로 출판한 로조사전이 번쩍 눈에 띄었다. 이게 웬 떡이냐,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나는 얼른 돈을 꺼내들었다.

《저, 이 사전을 좀 사시다.》

도서판매원녀인이 이쪽으로 걸어왔다. 책을 집어드는데 《나도 하나 사시다.》 하고 내뒤에서 또 점잖은 목소리가 울렸다. 얼핏 돌아보니 머리가 휘연히 벗어진 학자풍의 사나이였다.

《어쩌나. 책은 하나밖에 안남았는데…》

보매 녀인은 우리 두사람중에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내뒤에 선 사람도 물려설 차비가 아니었다. 일은 아주 딱하게 됐는데 그런대로 판 매원녀인이 절충안을 생각해냈다.

《손님은 어디서 무슨 일을 보십니까?》

녀인은 내 뒤사람에게 먼저 물었다.

《전 공업대학 박사원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녀인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다.

《동무는? …》

《예. 전…》

나는 얼른 대답할수 없었다. 자신의 직분을 밝히기가 부끄러워선지 아니면 사람을 대조하여 차별하려는듯한 예감을 느껴선지… 스스로도 내 심리를 알수 없었다.

아니다. 나는 다음순간 반발심과도 같은 격렬한 감정의 충동에 떠밀리우고있는 자신을 분명히 깨달았다.

《전 일용품공장 노동잡니다.》

나는 그저 노동잡니다 하면 될것도 일용품공장이라고 구태여 똑똑히 찍어 밝힘으로써 따지듯 묻는 녀인에게 그래서 어쩔셈이요? 하는 감정을 로골적으로 내비쳤던것이다.

이것은 결코 긍지와 존엄의 웨침이 아니었다. 자존심의 반발과도 같은 저속한 감정의 투레질에 불과한것이였다.

《그럼 동무가 양보해야겠구만요.》

녀인은 상냥스레 웃었다.

나는 격분이 주먹처럼 솟아올랐다. 녀인의 웃음이 이렇게 혐오스러울줄은 몰랐다. 세상에 이런 모욕이 어디있는가. 책은 내가 먼저 사자고 했다. 그런데?

《사람을 업수이 보지 마시오!》

《아이, 그런게 아니예요. 동무, 책이란 단순히 상품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주는게…》

《그만두십시오! 그 책은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알구! …》

나는 내 목소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어떻게 책방을 뛰쳐나왔는지도 기억되지 않는다. 한참 씩씩거리며 가다가 돌아보니 아버지는 그때에야 책방문을 나서고있었다. 그는 나를 따라와 나란히 서면서 엄하게 꾸짖었다.

《이사람, 그게 무슨 망동인가?》

《아, 사람을 차별하는데두 가만 있겠나요. 노동자의 배짱은 똬다 어디 쓰겠어요.》

《허, 노동자란 이름이 뭐 그런 막된 뽕풀이때 함부로 휘두르는 막대기구 간판인줄 아나, 그럼 못쓰네. 이쪽 사람은 박사원에 있구 자넨 노동자라니까… 괜히 우둘쩍거리면서… 자 옻네!》

뜻밖에도 아버지가 내미는것은 사전이였다.

《?》

나는 선뜻 받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자네가 공장대학생이라고 했더니 그 박사원에 있다는 량반이 선뜻 양보하더구만, 뭘.》

《모르겠수다. 무슨 소린지? …뭘 또 구차스레 빌붙진 않았어요?》

《아니라니까.》

《어떻든 로동을 한다면 우습게 보지요.》 …

그때부터 내가 처녀에게 자기를 밝혀두지 않은것을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까지 생각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 인차 직업부터 바꿀 결심을 더욱 굳히웠는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은근히 《발전》을 꿈꾸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줄이야…

《그래서 전화할 때 아바인 내가 여기서 일한다구 말했어요?》

《아니. 그런건 본인이 얘기해야 되는거야. 헌데 왜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일이 이렇게 된바하고는 툭 털어놓고 말하여 마치 억울한 루명에서 벗어나듯이 그 리유를 분명히 해둬야겠다고 생각했다.

《처녀한테 짝지는것 같고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랬지요.》

《어떻게 생각하다니? 그럼 그 체네가 노동자를 싫어한단말인가?》

《참, 아바이두. 아 지금 어디 내놓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걸으려야 노동자? 아, 노동자가 좋지 하면서도 그뒤부터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은근히 낮추본단말입니다.》

《허…》

그는 입을 항 벌렸다. 눈에는 서글픈 빛이 언뜻비껴들었다.

《그렇다면 임잔 좋은 일도 남이 싫어하는 눈치면 하지 않겠구만?》

《아, 뭐 문제를 그렇게 까다롭게…》

나는 가슴이 후끈 달아올랐다.

《툭 털어놓고 말하면 아바이두 어디 가서 자기 신분을 밝힐 때 내 어디 부장이요 하는것보다 일용품공장 수리공입니다 하는것이 더 좋습니까?》

《음…》 그는 듣기가 피로운듯 고개를 쳐들었다. 지그시 눈을 감는다. 가슴속 감정의 반응처럼 고개가 몇번 끄덕이더니 슬며시 눈이 떠졌다.

《임잔 지금까지 로동을 헛했구만. 대학공부두 잘못하구. 그런 맘을 가지구 10 년을 일해선 뭘하구 20 년을 배워선 어디 쓰겠나. 그래 자넨 간관이 필요해서 대학엘 다니구 발전하는 기초를 닦자구 로동을 하나. 이보라구. 직위가 곧 그 사람 전부인건 아니야. 사람이란 참된 인간으로 되는것보다 더 큰 목적두 또 더 높은 발전두 없네.》

그는 근심이 하늘같은듯 한숨을 푹 내쉬었다.
《총화시간이 다 돼서 지금은 길게 말할새가 없
네만 우선 그 체네를 만나서 용서를 빌게.》

《알겠수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고 공감해서가 아니라
소쩍은 단김에 빼렀다구 말이 난김에 아예 그 처
녀한테까지 툭 털어놓아 무슨 죄지은듯한 마음에
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내가 그 처녀를 만날 계획을 짜느라
고 밤새껏 골머리를 앓았으나 신통한 수가 떠오
르지않아 후줄근한 모양으로 출근한 다음날 아침
이었다.

춘삼아바이가 새벽 봉창 두드리듯 《자네 <춘향
전>가극 봤나?》 하고 묻는것이였다. 《싫증나도
록봤수다.》 내가 심드렁히 대답하자 그는 《그래
두한번 더 보라구. 난 아직 못봤네만 볼적마다
재미있더구만.》 하며 초대권 두장을 척 내미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처녀를 생각했다. 얼
마나 멋들어진 기회인가. 호박이 이렇게 저절로
굴러오다니… 꿀을 바른 찰떡을 두손에 받쳐준들
이렇게까지 기쁘고 군침이 돌수 있을가?

《고맙수다, 아바이. 그런데 어디서?》

《어제 극장에 다니는 우리 막내가 갖다주더구
만. 헌데 참, 나랑 함께 가도 괜찮을까?》

그는 벌써 내 마음속 계획을 알아차렸는지 제
생각을 조심히 비치며 초대권을 또 하나 내들어
보이는것이였다.

《아 일없이 앓구요.》

이렇게 흔연히 말해놓고보니 차라리 잘된것 같
았다. 아바이는 처녀와의 관계를 잘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오랜 로동계급으로서 내가
로동자라는것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면 되겠지 나
쁘지는 않을것 같았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날 일이 끝난후 함께 거리
에 나서게 되였다. 처녀에게는 이미 극장앞에서
만나자고 전화를 했다.

우리는 뺨스를 탔다. 뺨스에는 언제나 각이한
직업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곳이다. 우
리앞에는 간부인듯한 풍채좋은 사람과 할머니가
앉아있었다. 차장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가벼운 향수내가 코를 자극했다. 돌아보니 씻은
배추줄거리처럼 희어벌쭉한 얼굴에 유난히도 맑
은 안경을 낀 청년이 서있었다. 나는 낮이 익다
고 생각했으나 어디서 왔던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의자우에 벌스레 불룩한 악어가죽가방을 놓
고 서있었다.

기세좋게 달리던 뺨스는 문득 재채기하듯 탁탁
소리를 내지르더니 점차 속도가 떨어졌다. 이어
천식증환자처럼 푹푹푹 숨찬 소리를 내면서 뺨
스는 멈춰섰다. 모빌유 타는 냄새가 풍겼다.

사람들의 눈길이 운전수에게 모아졌다. 운전수

는 뭐라고 투덜거리며 문을 열고 내려섰다.

5 분 또 5 분… 시계를 보는 사람이 점차 많아
지고 뺨스에서 내려 운전수가 똑딱거리고있는 두
바퀴사이를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아바이
도 어느새 내려서 허리를 굽히고 운전수를 바라
보고있었다.

《이사람, 어디가 고장인가?》

그는 네발걸음으로 엉금엉금 뺨스밑으로 들어
가는것이였다.

《스빠나를 이리 주게. 내 좀…》

《아니 괜찮습니다. 차, 이런…!》

나는 허리를 꺾어부정하니 굽히고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있었다.

《잡으라구. 같이 꺾도네. 가만, 이거 크게 상한
모양인데? … 이것보라구. 이 실린다를… 인차는
안되겠어…》

《에이 참…》 하고 운전수는 맥살이 나는듯 엉
치를 털썩 땅에 붙이고 잠시 앉아있더니 《할수
없지…》 하며 바퀴밑에서 벌렁벌렁 기어나왔다.
아바이만 그자리에 남아서 뺨작거리고있었다.

운전수는 뺨스에 올라섰다.

《저… 미안합니다. 뺨스가 고장나서 고쳐야겠
습니다.》

그러자 뺨스안은 술렁거렸다.

《얼마나 걸려야 하우?》

《시간이 좀 걸릴것 같은데 다음차를 리용해…》

《허 참, 한심하군. 시간이 바쁘네…》

《동무, 차를 잘 정비해가지고 다녀야지 이게 뭐
요?》

운전수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얼굴이 빨
개서 서있었다.

무중 뒤편에서 《기계라는거야 뜻밖에 고장날수
도 있지요.》 하고 동정하듯 말하자 《아, 그렇지
않구요. 리해해야지요.》 이렇게 너인의 목소리가
맞장구를 쳤다.

《에이구. 난 어떡하면 좋수? 이 짐을 들군 내
렸다 올랐다 하제두 힘든데.》

할머니가 푸념처럼 말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그럼 늦는셈치고 좀
기다려보지 않겠습니까?》

운전수는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듯 할머니의 손
을 잡으며 굼살굳게 말했다.

그러자 술렁거리던 사람들은 운전수에 대해 말
하기를 그쳤다.

이때 《동무!》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차안의
공기를 다시 얼켜어놓았다. 안경낀 젊은이가 맑
고 투명한 안경알너머로 운전수를 쏘아보고있었
다.

《그런다고 동무의 실책이 떨어지는건 아니요.
동문 지금 이 술한 사람들의 바쁜 사업을 방해하
고있다는걸 알기나 하오. 그만큼 우리 혁명의 전
진이 지연된다는걸!》

《뭐요? 다시 한번 말해보요!》

운전수가 발끈하여 맞섰다.

사람들은 이 급작스런 충돌에 말릴념도 못하고 긴장한 눈길로 두 젊은이를 지켜보고있었다. 안경진 청년은 손목을 들어 얼핏 시계를 보고나서 말했다.

《달리야 어떻게 설명되겠소, 그래 동무에게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정신이 있다고 말해야 옳겠소. 동문 우선 운전대를 잡기전에 우리 시대의 5분, 10분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부터 알아야 할것 같소.》

맏고끓는, 그 가차없는 목소리처럼 그는 핵 돌아섰다. 《실례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각듯이 레절을 차리며 서둘러 버스에서 내려갔다. 다시한번 손목시계를 보고는 바빠 가는것이였다.

운전수는 받지 못한 황소처럼 썩썩 더운 숨만 내쉬고있을뿐이였다. 다른 사람들도 말 한마디 없이 멀어져가는 청년을 바라보고만있었다.

문득 누군가 《아, 가방.》하는 소리에 사람들은 의자우에 놓여있는, 배가 볼록하여 볼모양없는 악어가죽가방을 바라보았다.

《펼하는 사람이라오?》

《글쎄요? 옷차림이랑 말하는걸 봐선... 전부<멋쟁이>로구만요.》

《몹시 바쁜 사람이라네 험둥히 알립디다... 오죽속이 탔으면...》

이때 그 청년이 뛰어왔다. 안경은 벗어서 손에 쥐고있었다. 뛰어오는데 불편했던 모양이였다. 그제서야 나는 도수없는 안경일수도 있다는 생각이들었다.

그는 곧바로 버스에 올라가 가방을 들고는 역시 올 때와 같이 바빠 뛰어내렸다. 그 순간 그의 가방이 문에 부딪치면서 철그덕 하는 쇠소리가 났다. 나는 가방에 무엇이 있길래 쇠부딪치는 소리가 날까 생각했으나 하나둘 흩어져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차를 타야했기에 더 신경을 쓰지않았다.

《아바이, 우리도 빨리 갑시다.》

나는 아직도 버스밑에서 푹푹거리고있는 춘삼 아با이를 향해 말했다.

《가만... 혼자 좀 가게. 난 아무래도 손을 댔던 김에...》

《예?》

《어찌겠나. 우리마저 가버리면 운전순 길바닥

에서 혼자 고생할게 아닌가.》

허 참... 쓴입을 다시며 나는 허리를 폈다. 소금팔리 가는 날 비가 온다더니 일이 이렇게 써돌 어질줄이야... 시계를 보니 공연시간까지는 얼마 남지않았다. 그렇다고 아با이를 버리고 혼자 갈수는 없었다. 범의 꼬리를 잡은격이였다. 운전수는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했는지 투덜거리며 버스밑으로 들어갔다.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참, 아바인 어디 계십니까?》

《난 일용품공장 수리공이네. 자, 같이 조임세. 아니 복스로, 그래... 꼭.》

나는 그들의 말소리를 흘려들으며 또다시 시계를 보았다. 초침은 시간을 이끌고 부지런히 달리 고있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저... 정말...》 하고 말하다가 《오래 걸리겠습니까?》 하면 그들이 미안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입을 다물었다. 함께 일손을 잡지 않고있는것이 죄송하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도울건 없을까요?》 해버리고 말았다.

《아니, 자네 아직 안갔나? 가라구, 어서. 체네가 눈이 까매서 기다릴텐데.》

그러자 바빠맞은것은 운전수였다.

《아니, 그럼 두분이 어디...? 어서 가보십시오. 제 혼자서도 합니다.》

《아니 이게 어디 혼자서 어림이나 있는 일인가. 함께 제껴 해제질세. 하던 일이야 끝을 보는 것이 있어야지. 그 쪽을 치게. 아니, 망치로! 그래 힘껏!》

내 립장도 딱하게 되였다. 그냥 서있자니 운전수가 죄스러워하고 혼자 가자니 반대로 내가 죄를 짓는것 같았다. 불현듯 나를 기다리다가 그만 어깨를 처연히 떨어뜨린채 가고있는 처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 속으로 얼마나 욕할까? 에이 참...

버스밑에서는 여전히 송구스런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이젠 정말... 빨리 가보십시오.》

《어서 붙잡거나 하게. 뭐 미안해할거나 있나. 손이 손을 돕구 발이 발을 돕는다구 사람은 원래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난거야, 허허. 그건 그렇구. 빨리 고쳐야 또 운행을 보장할게 아닌가.》

이제 아با이를 데리고 극장에 가기는 코집이 글렀다. 에이참, 괜히 아바이와 함께 떠났지...

《뭐니뭐니해도 그저 우리 노동자들이 제일이지

요.》

운전수의 감동에 겨운 목소리였다.

《어떤 사람들은 말은 멋들어지게 하는데…》

《허허, 사람들의 비판이 가슴에 언친게 아닌가?》

《아니 난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견이 없는데 물에 뜬 해파리같은 그 안경쟁이의 말만은… 운전수를 우습게 본단말입니다. 말치장이나 잘하면 누가… 우뢰소리가 크면 비방울이 작다구 다 수수대에 기름발린 소리지요. 참, 어디서 뭐나 해먹는 사람인지?》

《허허, 그 사람도 노동자라네.》

《예?》

그 소리에 나도 펄쩍 놀랐다.

《그게 정말이에요?》

극장생각은 벌써 십리밖에 달아났다.

《아바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쩐지 목소리가 귀에 익어서 내다보니 글썄 우리 인민반 사람이더구만. 난 세대주반장이거든. 허허.》

《그래요? …》

《그 사람이 자그만치 7 급기계공이야. 시적으로 손꼽히는 창의고안명수기도 하구. 그러다보니 늘 시간에 쫓겨댁기는 사람인데 요새두 무슨 발명을 하느라구 일전엔 내 낚시터에까지 찾아와 도면을 봐달라고 성화더군.》

순간 나는 낚시터에서 본 네귀에 담배갑과 라이터를 지질러놓은 도면이 생각났다.

《그거 참, 걸보기엔 삽자루 한번 안잡아본것 같던데…》

나는 감동하면서도 한편 의문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허허 참… 그럼 그 사람이 지금이라두 당장 스빠나를 같이 잡으면 노동자로 믿겠나? 아니야.

단순히 육체로동을 한다구 해서 노동자가 아니지. 글썄 사무실에 앉아 글만 쓰는 사람도 노동계급다운가 하면 현장에서 10 년동안 일했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나는 생각에 잠겼다. 나도 십년가까이 매일과 같이 손에 기름을 묻히며 일하고있지 않는가. 그런데 내가 지금 자신을 참된 노동계급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을까?

나에게 부족되는것은 무엇인가? 궁지인가 아니면 노동에 대한 사랑인가?

나는 실린더를 맞추느라고 씨름질을 하고있는

아바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바이는 지금 저기에 누워있는데 나는 어디에서 있는것인가? 이것을 단순히 시간약속의 조급성때문이라고만 자신에게조차 리해시킬 힘이 있는가?

나는 문득 악어가죽가방이 생각났다.

별스레 불룩하던 가방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공구? 부속? 분명 쇠부딴치는 소리였는데? … 결과 내용이 너무나 다른 가방이었다. 바로 그것이 아닐가? 그 젊은이와 나의 차이점은…

이윽하여 수리를 다 끝냈을 때는 공연시간이 퍼그나 지나서였다. 춘삼아바이는 나에게 미안스레 말했다.

《나때문에 오늘 좋은 구경을 못했구만. 약속두 어기구. 이제라두 가보세.》

그는 앞서걸으며 나를 돌아보았다.

《혹시 그 체네가 성이 나서 가진 앓았을까?》

《글썄요? 그렇다면… 할수 없지요.》

나는 가슴이 알찌근했지만 이렇게 대범한체할 수밖에 없었다.

《허허. 그래두 체내랑 함께 보는 재미를 놓쳤으니…》

《참, 아바이도련애를 해봤어요?》

《글썄… 이런것두 련애라면… 복구건설텐데 난 벽돌을 더 지우라구 떡 버티고 섰구 지금 우리로친은 몸을 돌보면서 하라구 떠밀군했지. 허허. 우린 그렇게 련엘 했구 평생 지팽이가 됐어. 참, 자네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게 뭔지 아나?》

《그야 뭐… 낚시질이겠지요.》

그는 요즘 낚시질에 얼마나 정신이 팔려있는가. 나는 낚시질에 재미를 붙이면 세상 못된 버릇까지도 푹 쫓는다는 옛말이 떠올랐으나 속된 말같이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허, 모르는 소리.》

《그럼 뭐예요?》

《일일세.》

《일이요?》

《그래 자네도 한번 일에 재미를 붙여보게나. 땀흘려 일하지 않구서야 낚시질인들 그렇게 재미있을 턱이 있나. 허허… 우린 로동으로 수령님 뜻을 받들어야 하구 로동으로 당과 국가에 충실해야 하는거야. 그래서 로동은 보람이구 세상없는 재미라는거지. 사는 맛을 주거든. 허허…》

나는 걸음걸음 생각이 깊어졌다.

로동에서의 성실성, 그것은 충실성의 마음이

아닐까? 인간은 모범을 보일 때 가장 높은곳에 오른다고 했다.

어느새 우리가 극장앞에 이르렀을 때 나는 문득 저쪽 앞에는 네온등불빛을 등지고 서있는 처녀를 보았다. 그것은 분명 나의 사랑하는 처녀였다.

아직 기다리고있었구나!

그러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기다린 그 마음으로 나의 모든것을 리해해줄거야... 나는 스스로 이렇게 확신하며 처녀를 향해 걸음을 빨리했

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없지 않을까?

아니! 아버지가 정말 텔레비존에서 두번씩이나 방영한 《춘향전》을 못봤을까?

나는 걸음을 멈추고 춘삼아바이를 돌아보았다.

그는 저쪽 뒤에 서서 구레나룻자리를 손으로 쓸쓸 어루쓸고있는데 흐뭇한 미소가 입이며 눈으로 넘쳐나 온 얼굴로 함뱍 넌즈러진다.

물이 오는 소리

리광선

끌짜기를 내려서 수십리

청계땅을 적시며 수십리

서흥호 푸른 물결

물이 오는 소리

다락발 등성이 산등도 넘어서

들가득 노래처럼

기쁨을 속삭이며

물소리 물이 오는 소리

가촌땅과

사리원 한복판을 흘러서

네 가는 그곳은

저 하늘밑 끝이런가

못잊을 추억의 머리 들면

나무리 나무리벌판개를 해야 한다고

눈비도 마다 앓고 오셨던

어버이수령님 모습

아직 저 청계벌에 서계시는듯

우리 봉산땅

아니 온 황해도 사람들이

물농사 논농사를 푸짐히 지을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고

그리도 기쁘시여 밤길도 걸으시던

그이의 음성 아직 귀전에 들리는듯

그 사랑 그 은덕에 보답하자고

물길을 째며

흙을 산같이 떠옮기며

한자욱 한자욱

행복의 길을 열어나가던

그날이 어제런듯 눈앞에 선히 떠오르고...

비가 온다 그칠가

눈이 내린다고 그칠가

물결은야 흘러서 끝이 없고

그 사랑도 끝없어라

물결이야 가다 멎었다 가지만은

달리는 우리 충성이야

어이 순간인들 멈추랴

아, 물소리 물소리

천년세월이 가고

만년세월이 가도

변함없을 서흥호 그 물결소리

봉산나무리벌에 높이 서니

은혜론 그 물소리 더 가까이

수로길따라 출렁출렁

이 가슴에도 출렁출렁

물이 오네 행복이 오네

온통 그 물소리에 이 가슴 젖네

빈자리

오혜선

참답게 살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회와 집단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위치를 두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때때로 나 자신이 사회와 집단에 얼마만큼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물음을 제기해보곤한다. 그것은 티끌만한 꺼리낌도 없어야 할 내 량심앞에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선뜻 답변할수 없었다.

한것은 나 자신에 대한 평가의 주인은 내가 아닐뿐더러 나의 혁명동지들만이 집단에서 차지하는 나의 위치와 존재가치에 대하여 정확히 말해줄수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의 삶이 보람있는것으로 되자면 영생하는 집단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는바가 있고 남기는것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인가 나는 한장의 편지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은적이 있다.

그 편지는 인민군전사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실한 참다운 충신과 효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인민군신문에 크게 소개된바도 있고 나 자신이 다녀오기도 한 어느 한 교사기관총중대의 중대장동무에게서 보내온것이다.

《…기자동지, 우리 정치지도원동무가 기억나시지요. …우리 정치지도원동무가 다른곳으로 조동되였답니다. 그를 떠나보내고나니 중대가 빈것같군요. 우리모두의 가슴에 웬일인지 <빈자리>가 생긴것처럼 허전하기 그지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그가 못건디게 그리워져요…》

얼핏 보기에는 무심히 읽을수 있는 내용인것같다. 또 떠나간 사람을 놓고 누구나 다 느낄수 있는 감정일수도 있어보인다.

그러나 나는 좀처럼 눈길을 편지에서 땔수 없었다.

《빈자리!》

그 말을 조용히 입속으로 외우느라니 나의 눈앞에는 늘 두볼에 홍조를 띄우고 인상 좋게 웃음짓던 그곳 정치지도원의 모습이 삼삼히 떠올랐다.

그 모습과 함께 내 귀전에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언제면 훌륭한 지휘관이 될수 있을까요?… 언제면 우리 중대 군인모두를 위대한 수령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참된 전사들로 키울수 있을까요…》

그의 절절한 음성이 쟁쟁히 귀전에 울리는 순간 나의 눈앞에는 그곳에서 목격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화면처럼 어려왔다.

만경대의 샘물을 소중히 떠안고 밤길을 달려와 전사들앞에 내놓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 이 물을 마시며 애국의 뜻을 키우셨다고 생각하니 그대로 올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할 때 뜨거움에 젖은 류달리 맑고 순결한 눈동자며 꿈에서 초소에 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뵈고 걱정애 들먹였다던 그, 전사들의 건강을 위해 약초밭을 조성하느라 터갈라진 손등, 행군길에서 주저앉은 한 전사를 두고 엄하게 타이르던 그 목소리…

일상 생활에서는 너무도 평범하게 느끼군하던 그의 그 모든 행동들이 왜 오늘에 와서 이처럼 전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면서 못잊게 하는것인가.

그는 아직 그 어떤 영웅적행동으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못한 평범한 녀전사이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서는 혁명과 집단을 위해 바치는 순결하고 참된 량심이 보석처럼 빛나고있었다.

바로 그것은 그의 뜨거움에 젖은 눈동자에, 격정에 들먹이던 가슴에, 터갈라진 손등에, 엄하게 울리던 그 목소리에, 그의 열정에 넘친 온 체취에 숨배여있었던것이 아닌가.

그가 떠나자 중대에 생겼다는 《빈자리》!

나는 나의 생활에서 만났다 헤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본다.

그들중에는 긴세월을 함께 생활했어도 일시적인 서운한 감정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있었던지 없었던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간 사람들도 있으며 나의 가슴속에,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큰 《빈자리》를 남기고 떠난 사람들도 있다.

《빈자리》!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효성의 마음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꾸준히 헌신하고 노력
할때 생기는 참된 삶의 자취이며 그 자취가 크면
클수록 《빈자리》는 더욱더 커지는 법이다.

사람들은 그 《빈자리》에서 그 인간에 대한 사
랑과 존경을 말없이 느끼게 되며 그를 두고 깊이
추억하는것이다.

그 추억은 조국이 그에게 주는 눈에 보이지 않
으나 영원히 빛나는 표창이 아니겠는가.

나는 나자신에게 다시한번 말한다.

《너는 사회와 집단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
가!》

나는 그 물음에 주저없이 대답한다.

-집단속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될 그런 인간이
아니라 꼭 필요하며 누구나 내놓기 아쉬워하고
일단 떠나면 《빈자리》가 크게 나는 그런 삶을
빛내이리라-고.

바로 그렇게 살 때 혁명전사의 삶은 빛나는것
이며 또 그것이 영생하는 삶인것이다.

젊음이란

리상건

젊음이란 무엇일까?

꽃나이 그것을 말함일까

꽃모습 그 아름다움일까

그 나이 그 모습만으로도

젊음은 부러움

산과 들, 꽃과 숲

그 모든 강산의 아름다움은

젊음과 잘도 어울리거니

허나 단지 그것만이라면

젊음은 한철의 꽃

다만 그것만이라면

젊음이 노래속에 있으랴

화폭속에 있으랴

내 젊음을 사랑하는것은

밝은 눈과 검은 머리

그 씩씩한 걸음새때문만이 아니여라

당의 부름 받들어

기꺼이 혁명의 불이 되고

투쟁의 마치가 되려는 각오

어려운 초행길도

낮익은 고장인듯 단숨에 가닿는

천리조의 그 날음새를 사랑한다

당의 의지를 절대의 진리로 삼고

앞날에 이룩하구야말

기적의 그 높이

힘에 겨운 일 따로 없고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의 그 불굴성을 사랑한다

돌이키면

영생하는 충성의 별들은 젊음이었거니

사색이 비낀 머리가 아니라면

미래를 안은 가슴이 아니라면

난관을 이겨내는 걸음이 아니라면

젊음이 무엇이라

아, 젊음이란

기적이어라, 위훈이어라

꽃나이로 만대를 펼치고

꽃모습으로 조국을 단장하는...

전사 민홍기

리정래

시가전은 인민군대의 벼락같은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췌-쿵! …따 따 따! …뚜루룩…》

귀청터질듯한 총포소리, 《와-만세! … 한놈도 놓치지 말라!》 아군의 함성과 멸적에로 부르는 구령소리, 원쑤들의 전몰어린 아우성과 비명소리…

달빛속에 음침한 그림자를 던지고있던 도시는 사시에 벌떡 뒤흔저졌다.

미군참모부를 벌등지처럼 쑥서놓은 중대도 곧 섬멸전으로 넘어갔다. 사단군의소의 간호원들까지 3 연대 1 중대 아무개라고 하면 벌써 대하는 품부터 달라지는 전선호랑이들이었다.

아직 미국놈과 맞다들려보지 못한 사람은 신병 훈련을 받고 갓 넘어온 민홍기뿐이었다. 나이는 열일곱 (정확히는 열여섯)이고 고향은 황해도 봉산이라고 한다. 웃을 때마다 움푹 패우는 볼우물과 오뚝한 코, 초생달처럼 곱게 휘어진 눈썹으로 하여 익살군들한테서 무척 놀림을 받는다.

그중에서 제일 성화스러운 사람은 중기분대장이다. 그는 홍기가 중대에 오자바람으로 《장인》으로 나서서 아예 《사위》다루듯 하려고들었다.

민홍기에게는 중대원들의 이 지나친 사랑과 어린애 취급이 진저리가 났다. 그래서 요즘 밤낮으로 생각하고 갈망하는것이 어떻게 하면 온 중대가 꿈쩍 놀라는 전투위훈을 세워 구대원이라는 소리를 들을것인가 하는것이였다.

헌데 연락임무나 수행하는것으로서 어떻게 위훈을 세운단 말인가.

민홍기는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자면 중대장의 연락병을 그만두고 중기사수나 아니면 부사수로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여 엇그제는 슬그머니 중기분대장에게 비쳐보았다.

《아주 좋아… 오기만 하면 이 가시애비가 사위를 부사수 시키겠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구 사수를 시키지.》

《롱담이 아니야요.》

《이것만은 진담이란데…》

그런데 이 《비밀회담》이 중대장의 귀에 들어갈줄이야…

민홍기가 무기소제를 한창 하고있는데 중대의 전투준비상태를 돌아보고 온 중대장이 엄하게 그의 앞에 다가섰다.

《전사 민홍기.》

《넛-》

홍기는 얼른 무기를 메고 일어섰다. 또 연락임무를 주려나부다 해서였다.

《연락병은 시시해서 못하겠다고 했다면?》

《…》

《사실인가?》

《…》

홍기는 고개를 떨구고 군화코숭이만 내려다보았다.

(일러바쳤구나.)

《이봐, 중기가 위훈을 세우게 하는것이 아니야. 전사의 위훈은 상관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서 마련된다는걸 알아야 해.》

《…》

《알아들었나?》

《예-》

홍기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하지만 연락병이 영웅으로 똘똘했다는 말은 없지 않는가.

중대장과 함께 방탄벽을 둘러막은 건물에 돌입하면서도 홍기는 그것을 생각했으며 오늘밤 전투에서 적어도 양코배기 다섯놈은 쏘아넘기리라 잔뜩 버르었다.

그는 앞에 마주치는 문짝을 힘껏 내쳤다. 성문같이 육중한 물건이 마술에라도 걸린듯 스르시 열린다. 순간 방 안에서 총성이 물방으로 터져나왔다. 호화로운 문양과 옷칠로 장식된 값진 문은 눈깜짝할새 국수분통처럼 되어버렸다.

일순 가슴이 섬적해서 바람벽에 비껴섰던 민홍기는 뒤늦게야 생각이 들어 수류탄을 더듬어 쥐었다. 슬쩍 던져넣었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밀려나오는 화약내를 맞받아 뛰어들며 연락사격을 들이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만신창이 된 방안은 텅 비어있었다. 놈들이 달아뺀 빈 방을 상대로 전투를 한 셈이다. 어이없는 얼굴을 하고있던 그는 약이 올랐다.

《개새끼들… 속았구나.》

그때였다.

《서라, 쏜다!》

건넌방에서 중대장의 벽력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홍기는 《아차!》 하고 몸을 돌렸다. 전투정황시 연락병은 상관의 결을 따지 말아야 하는것이다.

그는 건넌방으로 뛰어들었다.

《?…》

열려진 창문으로 급히 다가갔다. 중대장은 방탄벽을 넘는 웬 키다리리를 뒤쫓고있었다.

《서라… 쏜!》

홍기는 창문을 훌쩍 뛰어넘어 쏜살같이 뒤따랐다. 군적인 학생체육경기에서 룡상 2 등을 한 전적이 그한테 있었다.

키다리는 중대장의 위협사격에 흠칫흠칫 몸을 움송그리면서도 미친듯이 골목으로 달아난다. 홍

기는 기관단총을 뿌루룩 휘둘렀다. 중대장이 얼굴을 책 돌린다.

《생포하라...》

《? ...》

바로 그때 미국놈이 사라진 골목에서 물줄기가 뻗어나왔다.

《헉!》

중대장은 우뚝 몸을 솟구더니 천천히 주저앉았다.

《중대장동지!》

홍기는 경악해서 상관을 불안았다. 중대장의 오른쪽 허벅다리에서 내솟는 피가 달빛에 골탄처럼 시꺼멓게 보였다.

《음... 제길...》

중대장은 아픔을 참으며 이발을 부드득 갈았다.

《개인봉대를 꺼내주고 빨리 저놈을... 반드시 생포해야 돼.》

본능적으로 봉대를 꺼내든 홍기는 어찌할바를 몰라 잠시 멍청히 서있었다. 억이 막혔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두뺨에 줄줄 흘러내린다.

《전사 민홍기.》

돌연 중대장의 노한 목소리가 후려치듯 울렸다.

《옛!》

홍기는 흐느낌소리를 꿀꺽 삼키며 발뒤축을 모았다.

《명령을 들었는가?》

《들었습니다.》

《집행하십시오.》

그는 주먹으로 눈곱을 뺨 훑치고 돌아섰다. 그러나 피흘리는 중대장을 두고서 차마 발길을 뗄 수가 없었다.

《어서...》

중대장의 엄한 음성이 다시 맴짜게 울리자 그는 찻찻한것을 입술로 감쌀면서 골목에 뛰어들었다.

활활 타번지는 불길더미를 몇개나 뛰어넘었는지 모른다. 놈이 사라진 쪽에서는 계속 양갈진 불줄기가 날아와 귀전을 뽕뽕 스쳤다.

《개-자식.》

홍기는 어금이를 꼭 깨물었다. 중대장에 대한 불안과 위구심이 어느덧 원쑤에 대한 분노로 끓어번지었다.

얼마 안달려서 그는 시가지를 벗어나 공지로 내빼는 미군놈을 찾아내고말았다. 이제는 집도 없고 밋밋한 룡선이 달빛아래 펼쳐져있어 추격하기 한결 험해졌다.

그러나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등성이의 조발에 들어서던 홍기는 정면에서 번쩍하는 불길을 보았다.

《아-》

그는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움켜잡았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핑그르 돈다.

털썩 무릎을 꿇었던 홍기는 안간힘을 써서 총구를 우로 쳐들었다. 조성조문에 등성이를 넘는 원쑤의 심장부위가 걸려든다. 방아쇠를 당기면 엉악없이 저승으로 보낼수 있다.

별안간 중대장의 엄한 목소리가 고막을 울린다.

《전사 민홍기! 명령을 잊었는가?》

홍기의 눈앞에서 또다시 불빛이 빙글빙글 하더니 무수한 불씨들이 아물거렸다. 하늘과 땅이 한데 어울려 회전그네처럼 빙글빙글 돈다. 기우뚱 거린다. 그는 휘뿌리우듯 모재비로 넘어졌다.

풀섶에서 단잠을 자던 베짖이가 그바람에 화닥닥 놀라 뛰쳐나왔다. 길다란 더듬뿔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한동안 달빛어린 주변의 동정을 살피었다. 그러다가 뒤다리를 몸뚱이에 대고 슥스릭스릭 비비면서 잡자리에 다시 들어간다. 기척없는 인민군전사한테서 별로 위험을 느끼지 않은 모양이었다.

존 스미스대좌는 추격자가 자기의 총알에 맞았다는것을 확신하고서도 조발머리에 연거퍼 세발을 더 쏘아댔다. 그러고도 안심치 않아 납작 엎드려서 한참이나 그곳을 주시했다.

이윽해서야 남은 권총전 손을 후들거리며 내리었다.

《후-유》

턱에 닿아 막혔던 숨구멍이 조금 열리었다. 이제는 더 뒤쫓지 못할것이다. 놈은 마피아 (깡단) 시절에도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던 자기의 사격술에 십자가를 그었다. 그리고는 권총집에서 새 탄창을 꺼내 갈아끼운 다음 사냥군에게 쫓기는 승냥이마냥 뒤를 자주 돌아보며 걷기 시작했다.

사방은 고즈넉하고 시가쪽에서는 이따금 산발적인 총소리가 들려왔다. 스미스는 엉거주춤 몸을 일으킨다. 달빛에 희뵈하게 드러난 잡관목들에 힐끗힐끗 경계어린 눈길을 보내며 산비탈을 내려기 시작했다.

전투결과와는 볼보듯 뻗하다. 패전을 모른다면 미군이 그것도 이번에는 한개 련합부대가 총한방 변변히 쏘지 못하고 전멸한것이다. 아직은 몇백리밖에 있다고 하던 인민군대가 어떻게 그렇듯 번개같은 기습을 들이댔는가? ...

지난 2 차대전때 노르망디상륙작전을 전쟁사상 최대의 성공적인 기습전이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날에 들이닥친 조선인민군의 공격은 작전전문가로서 스미스에게 전률과 공포심을 안겨주었다.

노르망디상륙파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민군대의 전법에는 신의 조화가 있는듯싶었다.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도가니같은 전투에서 목숨을 부지한것이 꿈만 같았다. 아까 창문을 뛰어넘으려다 맞다들렸던 인민군군관의 범같은 기

상이 문득 떠오른다. 모퉁이 송연해진다. 그의 무쇠주먹에 하마르면 편포짝이 될번하였다. 금시라도 하느님의 심판관처럼 덜미를 잡아채는듯한 환각에 놓은 또한번 꿈틀 놀라며 흘끔 뒤돌아보았다. 룡선과 대기에는 삼복철의 무더위와 교묘한 달빛만이 흐르고있다.

그 고요한 정적이 스미스에게는 더욱 무시무시한 듯으로 느껴진다. 문득 여기 조선에 선교사로 와있다가 이 땅에서 운명한 애비의 림종이 생각난다.

그때 스미스는 열네살이었다.

어느날 집정원의 사과나무에서 벌레먹은 열매가 떨어져 울타리밖에 굴러갔는데 나 어린 동리소녀가 지나가다 그것을 집어들었다. 애비놈은 사나운 개를 부추겼다. 소녀는 단번에 피투성이가 되어 엄마를 애처롭게 찾았다. 스미스부자는 더욱더 개를 부추기며 좋아라고 웃어댔다. 그런데 그 웃음이 비싼 대가를 치를줄이야...

동리 어른들은 아직 논밭에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술한 아이들이 스미스네 집을 울망줄망 에워쌌다. 이어 뽕죽뽕죽 날이 선 돌맹이들이 우박처럼 날아들기 시작했다.

《하느님의 사도》는 총을 들고나섰다가 눈알이 툭 튀어나왔다. 안채와 룡마루에는 삼단같은 불길이 너홀거렸다.

일제경찰의 도움으로 가족들은 구사일생 목숨을 건졌지만 애비는 종시 그날밤을 못넘기였다. 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유언을 남겼을뿐이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오싹 소름이 끼친다. 두려움속에서도 복수심이 꿈틀거렸다. 그것은 다시 기질적인 야수의 광기로 번져졌다.

《조금만 기다려다.》

스미스는 이를 갈며 씨벌거렸다.

놈의 머리속에는 비상한 속도로 남진하는 조선 인민군의 공격을 일거에 좌절시키고 함정에 몰아넣을 맥아더사령부의 극비작전계획이 있다. 허나 작전이 거의다 여물어갈무렵에 아쉽게도 선회를 빼들던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속담에 《후에 보자》라는 말이 있다. 이제 이곳만 무사히 벗어나면 특수작전은 다시 개시될것이다. 문제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전선을 빨리 넘는것이다.

오늘밤에 병졸 수천이 황천길로 간것도 이제는 심상해졌다. 전쟁이 아닌가. 이 특수작전참모만 건재하면 병졸들은 아직 얼마든지 있다. 거기에 다 신행비행기, 탱크, 포, 세균무기...

스미스는 맥아더사령부에서 《텍사스의 맹수》라는 별명(그렇게 사납고 야욕이 강하다는 뜻이다)으로 불리운다. 놈은 자기의 이 아름답지 못한 별호를 만족하게 생각하고있다.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삼키우고 하는것이 그래 생존의 법칙이 아니란말인가.

어느덧 미칠듯한 야심이 그의 온몸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작전의 성공후 쏟아지는 황금소나기, 대좌로부터 단번에 중장으로 꺽충 뛰어오를 스미스, 번쩍번쩍 요란한 호화주택, 매일저녁 품속에 안겨서 아양을 떠는 요염한 계집들...

달콤한 공상을 련속 떠올리며 놈은 강에 들어섰다. 비록 허리를 치는 강이지만 물살이 빨랐다.

물때가 올라 미끄러운 바위를 밋디던 스미스는 허양 곤두박질을 했다. 어푸어푸 물장구를 치며 간신히 몸을 세운 순간 《악-》소리를 내지르면서 다시 풍덩 주저앉았다. 발목을 되게 접지른것이었다.

그는 강둑까지 벌벌 기다실이 나와 한참동안이나 발목을 주물렀다. 그리고서야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발목이 시큰거렸다.

민홍기는 고향집의 가마에서 풀떡풀떡 끓는 소리를 듣고있었다. 어머니가 동지죽을 쑤고있는것이다. 동지죽은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홀홀 불면서 먹어라, 허를 델라.》

어머니의 다심한 말이다. 그래도 홍기는 밖을 내다보며 술갈을 들지 않는다.

《왜 그러니?》

《저... 중대동무들이 올텐데... 함께 먹을래요.》

홍기는 목젖이 넘어가는것을 애써 참으며 밥상에서 물러난다. 어머니의 주름많은 얼굴에 측은한 빛이 어린다.

《인차 오지 않을거다.》

《왜요?》

《왜긴 왜겠니, 미국놈잡으러 갔지, 네가 그놈을 놓쳤다는구나.》

《뭐라고요? ... 내-가요? ...》

홍기는 소스라치듯 일어섰다. 그바람에 그는 혼몽에서 깨어났다. 축축한 조발머리에 쓰러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번 깜짝 놀랐다. 어깨가 몹시 아파나 저도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온다.

《양키놈은 어디로 갔을가? ...》

그는 급히 속옷을 찢어 한손으로 상처를 대강 동인다음 입을 옥물고 몸을 일으켰다.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다잡고 룡선을 넘어서니 저앞 강북판에서 허우적거리는 형체가 달빛에 어른거린다. 허양 물속에 곤두박질하며 어푸어푸 물장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놈이 분명하다.)

홍기는 언덕을 미끄러지며 뒤쫓기 시작했다.

상처의 아픔보다 더 뼈아픈 가책이 심장을 고통스레 파고든다. 중대장동진 지금 어떻게 되었을가? 우리 사람들이 제때에 응급처치를 했을가? 출혈이 심했는데 혹시...

(후- 난 진짜 인민군대가 될래만 아직 멀었어...)

문득 중대장과 처음 만나던 때의 일이 떠오른다

다.

《동문 암만 봐야 나이를 하나 속인것 같은데
알아보구 배치하겠소.》

딱딱하기가 이틀데 없다는 신병훈련소 대렬지
도원이 홍기의 아래우를 훑어보며 말하였다.

《글쎄 알아보나마나예요.》

홍기는 그만 울상이 되어버렸다.

《내보기엔 열여덟살이 됴직한데... 여보 지도원
동무, 난 저 친구가 마음에 딱 두누만.》하고 나서는
거울진 상위가 아니였더라면 그의 운명이 어
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1 중대장이 맘에 있다면야 문제가 다르지...》

의외에도 대렬지도원이 선선하게 나왔다.

《여, 가자구.》

홍기는 그 소리를 듣기가 바쁘게 달려나갔다.

《그래 나이는 왜 속였나?》

둘이 한동안 걸음을 축냈을 때 중대장이 넋지
시 물었다. 홍기는 친형처럼 여겨져 툭 털어놓았
다.

《...책가방을 메구 학교가던 누이동생이 직탄에
맞아... 찢어진 고무신 한짝만 남아...》

그날의 처참한 광경이 떠올라 치를 떨며 눈물
을 쏟았다. 귀엽고 마음이 착한, 오빠를 끔찍이도
따르던 애였다.

《흐-음》

멈춰설것 같던 중대장의 걸음이 별안간 빨라졌
다. 썩 후날에야 홍기는 자기의 말이 부모처자를
한낱한시에 잃은 그의 가슴속 깊은 상처를 아프
게 건드렸다는것을 알았다.

중대장은 홍기를 연락병으로 임명했다. 그러자
홍기는 중기사수가 되겠노라고 때를 썼다.

《중기사수만 원쑤를 갇는게 아니야.》

《그래두 제손으루 미국놈 몇백쯤 잡아치워야》

《고작해서 몇백? 아직 장독을 몇개 더 축내야
답이 커지겠구만.》

중대장은 그리고나서 연락병의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했다. 연락병직무를 여느
심부름과 같은 일로 홀시해서는 안된다는것, 뜻
밖의 정황일 때에는 중대장을 대신할뿐아니라 중
대전체를 대표한다는것을 실례까지 들었다.

하지만 비둘기마음 콩밭에만 가있다고 홍기는
중기에 점점 더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한번은 연락갔다 오는길에 중기분대에 들려 중
기조법을 익히느라 종이 두시간을 늦어 돌아왔었
다. 상관은 무섭게 노하였다.

《전사 민홍기》

《옛.》

《연락병의 임무 3조를 말해보시오.》

《옛, 대답하겠습니다. 연락병은 상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지정된 시간보다 최대한 앞당겨어
집행...》

홍기의 류창한 목소리가 툭 끊어졌다. 고개가
슬그머니 외로 틀어졌다. 중대장이 왜 연락병의
임무를 외우게 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던것이다.

《처음이기때문에 용서한다는걸 알아야 해.》

그때의 엄한 음성이 지금 이시각 왜 이다지도
가슴을 후덥게 울려주는것일까? 뿐만아니였다.
잠만 있으면 밭광스레 성화를 먹이던 중기분대장
이며 중대동무들이 무척 그리워진다.

(얼마나 내 걱정들을 하고있을가? 아마 지금쯤
나를 찾아 온 중대가 떨쳐나섰을지도 모른다!
...)

홍기는 기관단총을 단단히 틀어잡고 강물에 들
어섰다. 무슨 힘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그는 자신
만만해졌고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놈을 잡아끌어
다 중대앞에 둘러메치리라 마음다졌다. 그러자
상처의 아픔도 한결 덜해진듯싶었다.

마침내 홍기는 점질린 발목을 질질 끌면서 메
돼지처럼 씹씹거리는 양키놈을 따라잡았다. 그는
가까운 소나무에 의지하여 숨을 누른 다음 왼손
으로 기관단총을 받쳐들었다.

《셋, 손들엇!》

순간 스미스는 눈앞이 아득하고 숨이 껍 막히
였다.

(하느님 맏시사...)

운명은 이렇게도 판결되는가? 절망에 앞서 발
악의 검은 피가 얼어든 심장의 한구석을 비집고
꿈틀 솟구쳤다.

그렇다, 이 순간이야말로 운명의 주사위를 던
져야 할 시각이다. 놈은 천천히 손을 들면서 권
총을 뽑아쥐었다.

《탕!》

먼저 불을 뿜은것은 전사 민홍기의 총구였다.

《으-악》

스미스는 손에서 권총을 떨어뜨리며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놈의 머리털을 태우며 날아간것은
홍기의 기관단총에 남아있던 마지막 총알이었다.

총탄의 반작용으로 부상당한 오른쪽 어깨가 끊
어질듯 아파난 홍기는 한순간 비칠거렸다. 깔틀
하는 정신을 가가스로 다잡고 놈이 떨군 권총을
집어들었다.

《일어서, 이 개같은놈아!》

생각같아선 놈의 숨통에다 맞구멍을 내고싶었
다. 중대장을 중상입히고 사랑하는 내동생을 무
참히 죽인 야만 저주로운 양코배기, 미국놈... 그
러나 꼭 생포하라는 중대장의 명령이 이를 악물

고서라도 참게 했다.

스미스놈은 후들후들 경풍환자처럼 떨며 일어섰다.

《걸었!》

홍기는 놈이 오던길을 가리켰다. 올리막길이던 것이 이제는 내리막길이다.

그 내리막길을 자기의 운명으로 절감한 스미스는 공포와 두려운 눈길을 상대편에게 흘끔 던지었다. 순간 놈은 다시 얼혼이 빠져버렸다.

초생달처럼 곱게 휘여든 눈썹과 오똑한 코, 녀성적인 해맑은 얼굴... 이 애어린 전사가 나를,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이 스미스를 단 한방의 위협사격으로 포로했단 말인가?! ...

기관단총을 돌려메고 왼손에 미국제 권총을 틀

어권 민홍기는 포로한 미군장교를 물고가면서 기쁨보다 불만이 더 컸다. 그는 오늘밤 전투에서 적어도 다섯놈의 양키는 쏘아눕히리라 굳게 결심했었다.

그런데 큰산이 움직인 뒤에 쥐 한마리가 나왔다는 격으로 겨우 미군장교 한놈을 생포했을뿐이다. 그것도 중대장이 추격하던놈을 이삭주이한셈이다. 아마도 중대장이 이놈을 생포하려 하지 않고 그 명중사격술로 죽여버렸다면 자기는 아주 개판을 칠번했다고 생각되자 급기야 기본은 장마개천처럼 흐려졌다.

하지만 전사 민홍기는 모르고있었다. 이밤 자기가 어떤놈을 포로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큰 위훈을 세웠는지를...

나무리벌과 나

황용남

어릴적 나에게는

지평선 아득히 사라진 별 저끝이

세상끝이었다 그 세상끝으로

강아지처럼 달려가다 넘어 저도

벗겨진 무릎이 아프지 않았다

넓은 들에 물이 흘러들고 모가 나가면

그때는 봄이었다

모내는 기계를 몰아가는 아버지 모습에서

나는 봄이란 무엇인가를 알았고

모판위에 우짖는 종달이 울음이 즐거워

가슴속에 봄은 온통 노래였다

푸르른 벌판위에 밤마다

별무리인양 유아등이 켜지는 여름이었다

문지방 넘어 들려오는 보도랑 물소리

자장가소리로 들으며

나는 풍년가을을 꿈꾸었고

어른들처럼 오고가는 길에서도

이삭패는 벼포기를 살펴보면

여름은 기다리는 계절이었다

넓은들에 황금날가리

다투어 일어서면 가을이었다

탈곡장앞마당 쌀산우에 오르기가 즐거웠고

벼가울에 신바람난 고향사람들의 웃음소리 들

으며

나의 기쁨은 한껏 무르익었더라

철모르던 그시절에도 나는

모기불 피워놓고 들려주던

할머니의 옛말속에서

땅이 귀한줄, 고향 나무리가 귀중한줄 알았노라

길가에서 주은 벼이삭을 들고 찾아갔을 때

대견해하는 아버지의 미소속에

애국의 씨앗은 이미 움터났더라

아 나무리벌과 철없던 소년

나는 이 벌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나는 이 벌과 함께 자란 아들이다

이 땅을 가꾸어 조국을 받들어갈

나는 영원한 고향의 아들이다

분노한 조선의 6 월에

리덕진

행복한 생활의 숲은 우거지고
창조의 탑들은 솟아
세월은 멀리 흘러갔건만
미제가 전쟁의 불을 지른 6 월은
꺼질길 없는 우리의 분노속에 다시왔다

평화로운 로동으로
새 생활을 가꾸던 땅
창가에 고요히 깃든 새벽꿈을 깨뜨리며
우리를 향해 침략의 포화를 터친놈
그 누구냐

젖을 빠는 천진한 아기의 가슴우에
무한궤도를 굴리고
인디안의 생가죽을 벗기던 그 터럭손으로
처녀의 젖가슴을 도려낸 야수

새살이 꽃피던 마을들을 불사르고
배움의 노래 높던 학교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소중한 모든것을
불속에 잠근 미제침략자

잊지 않는다, 사무친 그 원한
긴긴세월로도 가실길 없건만
오늘은 또다시 저 남녘땅에서
핵참화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며
전쟁열에 미쳐날뛰나니

다시는 되풀이될수 없다
다시는 전쟁의 참화속에
내맡길수 없는 우리 땅 우리 하늘
민족의 자부높은 대기념비들과

행복에 미소짓는 억만창문들...

오, 조선의 6 월은
푸르른 생활의 환희를 펼쳐들고
이 땅우에 설레이며 일어섰거니
미제를 발밑에 눌러딘고
전승의 축포를 쏘올리던 그때처럼
수호자의 총검을 틀어쥐고
우리는 웨친다

함부로 날뛰지 말라 미제
50 년대 조선의 고지우에서
내리막길에 처박힌 그 운명
다시는 그 무엇으로도 변경시키지 못하리라

들으라
네놈들의 전쟁연습소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나아가는
우리의 대건설행군의 발구름소리를...
남녘의 거리와 대학가들에서도
반미항전에 펼쳐나선 저 거세찬 함성을...

물러가라 미제
우리 강토에 늘인 핵탄두들을
모두 걷어가지고 제 소굴로 돌아가라
만약 이 준렬한 경교앞에서도
분별없이 불을 들고 날뛴다면
네놈들은 침략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것인지를 알게 되리라

오호, 그때문에 정의의 총검이
분노한 6 월의 하늘가에 번뜩이고있다!

상승

석유균

1

요즈음 박진규는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렸다. 지어 강의시간에조차 정신을 집중할수 없었다.

오늘도 졸업반에서만 특혜로 차례지는 서교수의 초빙강의가 있었으나 고대하던 특강조차 먼 메아리처럼 아리송하게 흘러보낸것이 못내 안타까웠다. 그는 사색을 정리해보려고 강의가 끝나자 대학도서관으로 갔다. 얼마 안되는 학생들이 덤덤히 앉아있는 뺑뚱그레한 열람실의 구석진곳을 찾아 언제나 즐겨보곤하던 신간 기술잡지를 펼치였다. 차츰 마음이 가라앉으리라는 기대를 안고 서교수의 강의내용을 찾아 곱씹어보았지만 안개처럼 더더욱 몽롱해지는 사색을 집중시킬수 없었다.

(내가 무엇때문에 이리도 불안해하는것일까?)

책장을 번저든채 난해한 공식을 응시하면서도 생각은 자꾸만 멀리로 헤엄치고있는 자신을 발견한 진규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서고말았다.

긴 한숨을 내쉬며 그는 교정으로 나갔다. 삼삼오오 흩어져가던 학우들이 광고판에 쏠리고있는 모습이 멀리 눈에 띄어보였다.

(학생소요의 주모자를 잡겠다구. 리철군한테 막대한 현상금까지 내걸더니 또 새로운 지명수배명단이 나붙은게로군. 아니 마음이 피로우면 의심이 많아진다더니 내 공연한 걱정이겠지.)

진규는 착잡한 생각을 털어버리며 교문을 나섰다. 투박한 전투모를 쓴 전투경찰들이 지나가는 대학생들에게 눈총을 주며 트집을 걸려 했다. 병영도 아닌 교정에 그려진 이색적인 풍경은 마치도 그 어떤 위압감을 주려는것 같았다. 그래도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면서 하급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진규의 귀에까지 들리였다.

《반 <정부> 음모라두 있는것처럼 소란을 피우더니 변사체란건 또 뭐고?》

《눈감고 아웅하기지. 사람을 파리잡듯하는판에 무슨짓인들 못할려구?》

그들의 흥분된 열기가 눈빛에도 번뜩이였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무거운 저류가 흐르고있다. 진규는 애써 방심하려고 했으나 마음속에 드리운 그늘을 지워버릴수 없었다. 가슴앓이처럼 때없이 치밀어오르는 불안은 무엇때문인지?

얼마전 대학가에서 일어났던 소요때문인지 모른다. 아니 그것때문만도 아니였다. 허박사의 의뢰로 문헌초록작성때문에 진규는 거의나 도외시되다싶이하여 오히려 학우들에게 먼구스러울 지경이였다. 그렇다면 그것은 수련이때문에 오는것

이라고밖에 단정할수 없다. 《국토종단대행진》발대식에 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전투경찰한테 수련이가 련행되여간때부터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린것같았다. 허지만 그가 구치소에서 나온 뒤에도 쫓기기라도 하는듯한 초조감이 사라지지 않는것은 무엇때문인지 진규로서는 대중할수 없었다.

본시 심신이 약질인데다가 처음 당해보는 일이여서 구치소문을 나설 때 수련의 정상은 말이 아니였다. 수련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진규는 그것이 자기때문이라는것을 가슴아프게 느꼈다. 그가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만사를 꺾어놓고라도 뛰어들어 막아나섰을터인데 무슨 일이 생긴줄도 모르고 골방에 들어박혀 원서나 뒤지고있었으니 생각할수록 후회가 막심했다. 자책어린 그의 마음을 눈치챈듯 수련은 가냘픈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나마 제발로 가려고 했다.

《일없어요. 모두 당한 고초인데 저라고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 위안이 진규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때로부터 보름이 지났으나 수련은 아직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수련의 생각에 쫓기는 진규의 걸음은 자연히 큰길쪽으로 접어들었다. 그를 만나보지 않고서는 마음을 가라앉힐상설지 않았던것이다....

합승정류소 종착점에서 내린 그는 산자락으로 뻗어간 골목길로 향하였다. 정든 길이면서도 애끓은 추억이 새겨졌기에 진규로서는 선뜻 들어가기 저어되였다. 진규와 수련은 앞뒤집에서 자라났다. 어린 시절 진규는 수련의 어머니를 이모처럼따랐고 수련이 역시 그의 집에 스스로없이 찾아와 놀군했다. 진규가 열두살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혼자 살림을 지탱하기 어려웠던 어머니는 본가가 있는 대구로 내려가자고 했다. 그때 진규보다 수련이가 리별을 더 서글퍼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서울로 올라와 대학에 입학한 그가 퍼그나 어설퍼진 이 길을 따라 수련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성숙한 그를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오빠!》 하고 찾으며 풀어진 머리끄덩이도 서슴없이 매달라고 하던 유년시절은 어데로 갔는지... 《경심 오빠!》라고 수줍게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두사람사이의 거리가 아득히 멀어졌다는것을 새삼스레 느꼈다. 한해가 지나는 사이 오빠없이 자라난 수련에게는 진규가 오빠로 진규에게는 수련이가 멀리 두고온 경심이처럼 차츰 여겨지면서 자연히 교제가 깊어지는 가운데 수련은 초대학에 입학하게 되였다. 그들 사이의 우정

은 다시 두터워지기 시작했지만 단순히 옛정이 되살아난것이 아니었다. 미온의 심경속에 갇아드는 그리움만이 아닌 아픈 충고도 마다하지 않는 사실없는 우정속에 날이 갈수록 따뜻한 편정이 피어올랐다. 하기는 인정많은 수련의 어머니가 진규에게 딸의 크고작은 사말사는 물론 하찮은 실수까지도 늘어놓으며 잘 일깨워주라고 하는 진정어린 당부에서 호감을 가지고 운명의 궤도에 이끌린지도 모른다.

졸업을 앞둔 진규로서는 안착된 생활을 마련하여 어머니와의 옛정을 다시 이어주고싶은 생각이 나날이 커졌다. 그것이 외삼촌의 주선으로 자그마한 세탁소에 명줄을 걸고 고생하는 어머니의 말년을 편안하게 해드리는데있다고도 생각했다. 하기에 지금에 와서 진규의 생활에서 유일한 목표로되는것은 뛰어난 학파성적으로 대학원이 아니면 치열한 취업경쟁을 이겨내고 안착된 직업을 얻는것이였다. 요즈음 마음이 때없이 초조해지는것도 그사이 생활의 좁은 궤도에서 부디 탈선되지 말기를 바라는데서 오는 조급증이라고도 생각했다.

추녀가 건듯 들린 고색이 짙은 기와집을 바라보며 외통길에 들어선 진규는 주독이 오른 별건코를 벌름거리며 통장이 조심스러운 눈길로 지켜보는것을 감촉했다. 수련이 어머니가 열어주는 대문을 들어서며 뒤를 돌아보니 그때까지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고 고개를 기웃거리고있었다.

《어서 오게. 동무를 바래주러 나갔으니 인차 들어오겠지.》녀인은 수선을 떨며 진규를 건넌방으로 안내했다.

수련의 섬세한 취미그대로 아늑하게 꾸려진 방에 들어서자 진규는 그의 체취를 느끼는듯 마음이 포근히 가라앉았다. 뒤따라 소반에 다과를 담아가지고 들어온 수련이 어머니는 혼자 바재이고 있던 속심을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내 그러지 않아두 임자를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하자던 참이네. 너자란 중뽀나게 나서지 않구두 조용히 제 본분을 다하는게 미덕이 아니겠나. 나로서두 그 열 정숙한 처녀루 키우자구 애써왔네만 이번 일을 당하고보니 어쨌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구만. 아버지란 량반은 회사일 때문에 노상 나다니시다가 들어오면 언제 한번 따끔하게 타이르는 일없이 그저 호인답게 굶다구만 어루만지시니 이지경이 됐지.》

《제 잘못이 큼니다. 그때 함께 따라나섰어두 그런 봉변은 당하지 않는건데...》

《임자 마음인들 오죽하겠나. 다 제 불찰이지.》

제 설분에 겨워 눈굽을 훔치던 녀인은 말을 더듬었다.

《공부나 착심하게 한다구 생각했던 애가 무슨 바람에 학생위원까지 되더니만... 글썽 뜻이야 좋지. 허지만 제가 나서서 될것 같으면 벌써 통일

이된지 오래겠네. 강약이 부동인데 그게 쉽게 될라구. 임자라두 좀 타일려주게.》

《너무 걱정마세요. 이제야 채심하겠지요. 미련한 소두 한번 빠진 굵은 예돌아간다는데.》

《채심이 다 뭔가. 요즘은 몸이 좀 나은지 또 오금에 바람이 들어서 안절부절 못하네. 아까두 제동무가 찾아와서 썩덕공론을 하는게 아무래두 심상치 않아서 그러네.》

녀인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진규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되는것만 같아 마음이 어두워졌다.

녀인의 푸념을 위안해줄 말을 찾지 못해 그가 공연히 서성거리는데 때마침 수련이 들어섰다. 방안의 공기가 무거워진것을 눈치챈 수련은 말없는 시선으로 진규와 일별하고는 어머니에게 돌아섰다.

《엄만 또 공연한 걱정이시네.》

《나이 먹으면 걱정을 사서 한다더라. 애 수련아, 아버지두 말씀하셨지만 한두달 휴학할셈치구려수에 있는 언니한테 가서 정양을 하는게 좋지 않나. 그럼 몸두 다 추셀거구 또...》

《알겠어요. 벌써 몇번씩이나 말씀하시네.》

수련은 어머니의 애원하는듯한 눈길을 피해가며 그를 돌려세웠다. 그들 모녀가 안방으로 건너가자 진규는 긴 숨을 내쉬었으나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다. 이윽고 방안으로 들어온 수련은 밝은 낮으로 인사말을 할대신 우수가 질게 어린 눈을 내리깔며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몸은 좀 어떻소? 아직두 깨끗치 않은것 같구만. 다른 생각은 미루더라도 몸부터 돌봐야지...》

진규는 불편한 몸으로 혼자 외로이 지내는 그를 자주 찾아와보지 못한 자신을 속으로 나무랐다. 침대귀에 앉으며 고개를 짓던 수련은 조용히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제 걱정이 아니예요. 실은 현호씨가...》

《현호? 현호가 어떻게 됐소?》

《어제 한강에서 그의 시체를 건졌대요.》

《영?!》 뜻밖의 말에 진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대학에 입학하여 처음 사귄 그의 주선으로 제일 값싼 하숙에서 2년나마 한가마밥을 먹으며 우정을 두터이해온 현호였다. 거치른 세파에 부대끼며 힘겨운 고학생생활을 이어가는 그에게 남다른 고충과 아픔이 있었지만 생활의 다반사쯤은 웃음으로 묵새길줄 아는것이 사나이라고 믿으면서 래일의 꿈을 곳곳이 키워나갔다. 생활을 락관하는 그의 호기찬 기질에 감복된 진규는 형제처럼 각근히 지냈다. 라면 한봉지를 살 돈이 없어 끼니를 건느는 때가 드문했지만 남의 고충만은 참지 못해 입었던 옷까지 서슴없이 벗어주는 너그러운 성품때문에 그에게는 친구도 많았다. 학생회 위원으로 늘쌍 분주한 그에 이끌려 진규도 학생운동에 주저없이 뛰어들곤하였다. 룡인본

교의 통학거리가 멀어져 현호가 하숙을 옮기게 되자 진규는 마음이 허전해졌다. 학생회일로 컸 대학과의 거래가 잦았던 현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련의 소식은 물론 편지심부름까지 기꺼이 맡아하곤 했던 것이다.

지난번 소요일 때 수련이와 같이 런행되어갔던 그가 남달리 오래동안 고초를 당한 끝에 며칠전 풀려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보려 했는데... 죽다니?

《공연히 뜬소문을 잘못 알고 그러는게 아니오?》

《저두 미덥질 않아서 이자 알아봤어요. 시체를 의대병원으로 실어갔나봐요.》

온몸의 피가 발밑으로 새어나가는것 같은 허탈감에 진규는 그만 의자에 덜썩 주저앉고말았다. 소급해보면 광고판앞에 몰려있던 학우들의 열기 띤 모습이며 대학들레에서 서성거리던 경찰들의 행동이 다 그와 연루되어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죽었다오?》

《요즘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는 건수가 많아서 그럴수 있다고 처음엔 단정했나봐요.》

《아니, 절대로 그럴수 없어.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게도 생활을 즐기던 패남아인데...》

진규는 저도 모르게 어성이 높아졌다.

《혹시 익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도 있는데 모두 그 원인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해요. 진실이 밝혀지면...》

진규에게는 수련의 다음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방금이라도 웃음을 가득 안은 현호가 선듯 방안으로 들어설것만 같았다. 것처럼 껄껄 뛰던 친구가 죽었다는 믿을수 없는 엄연한 사실앞에 더는 수수방관하고있을수 없었다. 진규는 전후사연을 가려볼 생각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대문까지 따라나오며 하던 수련의 말이 또 마음에 걸리었다. 그가 말한것처럼 현호의 죽음에 놈들의 검은 손길이 미쳤다면 사후원인을 밝혀내는 감정결과에도 그 축수가 미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수 없었다.

《아니 절대로 그럴순 없어.》

진규는 착잡한 생각을 털어버리려는듯 고개를 저었다. 전번 문헌조사때 면식을 익힌 의대병원의 허박사를 만나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조급해졌다.

2

성복구까지 가자면 먼길이였으나 진규는 뺄스를 탈 생각도 못하였다. 수련이를 안심시키려고 가까스레 자제하였지만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울분을 어디다 터뜨렸으면 좋을지 몰랐다. 차라리 육체적피곤으로 마음의 고통을 다소나마 진정시켜보려고 그는 걷고 또 걸었다. 그럴수록 현호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려 진규의 생각은

한뼘으로 멀어져갔다. ...

대학학보에 발표되어 물의를 일으킨 논문집필 때문에 진규가 개학후에도 달포나마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모태기느라고 외계와는 거의 담을 쌓아 싫이하며 바쁜 나날을 보낸 지난 봄이었다. 논문을 발표한지 얼마 안되는 별이 좋은 일요일에 문득 수련이가 찾아왔다. 머리로 쉬일겸 봄놀이를 가자고 진규를 이끌었다. 유람선을 타고 북한강을 거슬러올라간 그들은 몸도 마음도 시원한 강바람에 씻어내는듯한 들뜬 기분이었다. 오래간만에 도시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싱그러운 자연의 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그들이 점심을 달게 치른 뒤였다. 로송아래 기대여 달콤한 명상에 잠겼던 진규는 청높은 소리에 놀라 돌아보았다.

마치 땅에서 솟아난것처럼 불쑥 나타난 현호가 인상적인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역시 뜻있는 사람들이 다르거든. 일할줄 아는 사람이 휴식할줄 안다더니 그게 다 진규 자네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보네. 어제는 서리발같은 논리로 대학가의 인기를 독점하더니만 오늘은 너그러운 자연의 품속에서 안정을 마련했구만... 그러고보면 휴식도 로동 재생산과정이라는 경제학의 논리를 나도 생활속에서 체험하게 됐네 그러. 자네 덕분에...》

《호호...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언제봐두 한발 늦어요. 남은건 식빵밖에 없는데...》

수련이 미안한듯 꾸레미를 내놓았다. 맥주는 한모금 추기고 사양했지만 빵만은 목이 메게 먹으면서 현호는 무릅없이 열변을 늘어놓았다.

《이성문제에선 논의한 나한테까지도 수련씨와의 교제는 공개된 비밀인데 공연히 눈치없이 미리 찾아왔더라면... 아니 그건 안될 말이오. 저 사람이 수련씨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특권을 행사하는 날엔 빵대접은커녕 곤장맛을 보기 일쑤지요.》

《허허...》

그 말에 진규는 크게 웃었으나 수련이는 귀밀까지 빨개져서 몸둘바를 몰라했다. 현호는 즐거운 덕담으로 웃음을 뿌렸다. 그에 이끌린 진규의 마음도 자연히 가벼워졌다. 언제봐야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부드러운 인정미로 하여 그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피어났다. 그 웃음속에 진규는 지금도 추위에 못이겨 이불을 뒤집어쓴채 밤늦도록 감문을 박하며 열변을 나누던 번잡스러운 지난날이 그리워졌다. 아마도 그와 함께 지냈더라면 자기 역시 운동권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으리라 생각까지 들었다. 이윽고 골짜기를 따라 길게 펼쳐진 송림으로 흩어져가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자 현호는 울 때처럼 불쑥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러 대학친구들이 모이는데 안가겠나? 뜻깊은 들놀이인데...》

현호가 진정으로 권고하는 말이었으나 진규는 가볍게 거절했다. 현호는 수련이에게 눈을 주었다.

《그럼 할수 없지. 수련씨를 모시고 갈수밖에... 하지만 걱정말게. 성실한 <보호자>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수련씨야 내 소청을 거절하지 않겠지요.》

《그런 권고를 어떻게 감히...》

수련은 마주 웃으며 선선히 따라나섰다. 그들이 사라진곳에서 웃음과 노래소리로 떠들썩하더니 인차 찾아들었다. 그제야 진규는 그들이 들놀이만이 아닌 학생회 회합을 가지러 왔다는것을 직감했다.

(학생회 회합, 성토대회, 시위...)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에 쫓기던 진규는 저도 모르게 허거운 웃음을 지었다. 진규 역시 정의감에 못이겨 한때에는 분주히 뛰어다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다할 결실도 보지 못한채 분망한 대학생활의 일단을 장식한 잊지 못할 추억으로만 생각되었다.

그가 자신의 대학생활을 다시 정리해보려고 한것은 지난번 농촌봉사대에 갔다가 돌아오던길에 어머니에게 들렸을 때였다. 밤차로 떠나는 그를 배웅하러 어머니와 경심이가 역두에까지 나왔다.

《부디 몸조심해라. 많지도 않은 세식구가 언제나 모여살겠는지 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차츰 멀어지자 진규의 가슴은 저릿해졌다. 서글픈 생각을 털어버리며 자리에 돌아와앉은 그는 경심이가 쥐여주던것을 펼쳐보았다.

《전 오빠를 믿어요!》 달필로 곱게 비껴쓴 글발이 진규의 눈앞을 흐리게 했다. 한푼두푼 저축해드었던 용돈이 그속에 있었던것이다.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심은 전학을 거부하고 어머니를 도와 생활전선에 나섰던것이다.

(그 어린것이 얼마나 공부하고싶었으면...)

의지할데 없는 그들의 정상을 그려보는 진규의 가슴속에는 이름할수 없는련민이 부각부각 고여올랐다. 자기 하나만을 크게 믿고 래일을 기원하는 모녀의 운명이 두어깨우에 무겁게 얹혀있다는 피할수 없는 사명감이 그를 모질게 채찍질했다. 세식구가 단란히 모여사는것도 경심이를 공부시키는것도 미룰수 없다는것을...

야음을 헤치며 달리는 련차칸안에서 진규는 앞으로 펼쳐질 생활을 랭철한 눈으로 투시해보았다.

금권과 판권이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에서 나에게 믿을것이란 두주먹과 머리밖에 없다. 나를 돌봐줄이도 없거니와 동정받을 힘마저 없다. 있다면 오직 나에게 래일을 기탁하고있는 늙으신 어머니와 아직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지 다는 모르는 동생뿐인데 그들마저 나에 대한 애절한 인

정박에 더는 줄것이 없다. 내가 만일 순간의 실책으로 세파에 밀리워 한결음이라도 탈선하게 된다면 남들보다 열배의 힘을 들이고 또 그만큼 오래동안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해도 제 궤도에 올라선다고 확답할수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미거한 나때문에 어머니와 동생은 얼마나 가슴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겠는가. 나를 구원해줄 힘마저 없는 자신들의 미력을 통탄하면서... 아니 나보다 더 소중한 그들에게 뼈아픈 눈물을 흘리게 할수는 없다. 오직 그네들의 화락한 래일을 마련해줄 길밖에 없다...

그때부터 진규는 강심을 먹고 학구에 열중했다. 아니 이전부터 미루어오던 연구과제에 달라붙어 그 결실을 찾으려고 조급히 서둘렀다. 방학마저 집에 내려가지 않고 석달나마 진지한 사색과 탐구를 거쳐 작성한 논문이 드디어 대학가에서는 물론 학계에서까지 이목을 끌게 했던것이다.

졸업후의 전망을 개척하게 될 첫 디딤돌을 마련하게 된 그에게서 얼마 남지 않은 대학기간이 아쉬웠다.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귀중한것은 시간이였다. 시간과 조건만 허락된다면 보장된 생활을 열어갈 열쇠도 남먼저 찾게 되리라는 신심이 생기였다. 하기에 여하불문하고 이제와서 시간을 랑비하는것은 돌이킬수 없는 일생후회로 된다는것을 철칙으로 삼고 그에 충실하려고 했다.

봄부터 찾아진 대학가의 소요에 외면한 진규는 제판에 랑심의 피신처를 찾으려 했다. 오직 하나만을 믿고있는 내 운명처럼 귀중한 어머니와 동생의 래일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여기까지 끝린 진규는 착잡한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수련이가 남기고 간 소설책을 펼쳐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림자가 퍼그나 길어진 뒤였다. 송림쪽에서는 아직도 잠잠하였다. 진규는 마치 홀로 판세상에 떨어져나온듯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불현듯 인기척을 느낀 진규는 서서히 퍼져가는 심중의 파문을 감추려는듯 얼른 책을 펼치였다.

한눈을 쫓곳거리는 현호의 모습이 앞을 가리웠다.

《이젠 그만 하라구. 생각이 깊어지면 행동반경이 줄어드는 법이야. 복잡한 세상을 살자면 단순하게 생각하는게 편리하네. 뭘 또 사색하나?》

《지성의 왕국을 세우려네.》

현호는 희떠운 그 말엔 아랑곳없이 지긋게 달라붙어 진규를 종시 일으켜세웠다.

《어서 일어나라는데두. 소임은 뒤로 미루구 어서 큰 인물이 오는데 내가 소개시켜주지...》

그제야 진규는 뒤미처 다가온 현호 못지 않게 키가 흰칠한 낯선 대학생들 가려보았다.

《이분은 츠대에서 총학생회장의 중임을 맡은...》

《아니, 채료과 리철입니다.》

그는 서둘러 자기 소개를 고쳐했다. 진규는 첫눈에도 지성이 깃들어보이는 번듯한 이마와 담담한 의지가 돋보이는 우뚝한 코날, 아니 갈기처럼 술진 눈썹아래 어글어글한 두눈은 무엇인가를 투시해보려는 의지가 어려있어 범상치 않게 느껴졌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진규는 악수를 나누며 자기 소개를 했다. 오고가는 인사말속에 그들이 인총을 피해 한적한곳에서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토의했다는것을 느낀 진규는 은연중 남의 놀음에 끼여든 어설픈 심정이였다.

미구에 수련이가 찬물에 담갔던 맥주를 가져왔다.

《우린 다음 배편으로 가요. 지금 가면 선창이 붐빌텐데요.》

그보다도 그들이 올 때처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흩어져가려는것임을 알고있는 진규는 말없이 수긍했다. 시원한 맥주를 마시자 이야기는 한결 더 활기를 띠였다. 첫인상에도 진중해보이는 리철은 호남아담게 스스로없이 주전을 토론했다.

《박형의 논문을 나도 읽었소. 전공이 달라서 그깊이를 다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학계에서도 범접하기 어려워하는 탄성체연구에 선뜻 들어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였는지 한번 꼭 묻고싶었소.》

리철의 진중한 태도에 진규도 사뭇 허심해졌다.

《웬걸요. 선진국들에서는 학술적인 범위를 벗어나 기술적인 도입을 서두르고있는데요. 더군다나 나로서야 실험조차 변변히 하지 못한채 다분히 이론적으로만 전개했으니까 절름발이 성과에 불과하지요.》

진규는 자신만이 알고있는 서글픈 성과를 외면하려고 슬며시 말꼬리를 가무렸다. 했으나 리철은 복잡하게 엉킨 원리들을 캐여물었다. 지어는 재료의 순도보장을 위해 여러 인자들의 국부적인 해결을 조리있게 제기하며 논문의 가치를 론증하려고 했다. 점차 열을 올리며 담론하는 과정에 진규는 그의 해박한 지식만이 아닌 투철한 탐구능력에 여간만 놀라지 않았다. 그보다 더 놀라운것은 것처럼 진지한 학구적인 자세를 가진 그가 학생운동까지 주도해나선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였다. 현소는 덤덤히 서있는 진규의 어깨를 툭 쳤다.

《별로 놀랄것 없네. 사색과 탐구란 특정한 사람들의 독점물이 아니니까. 하긴 자네처럼 명석한 두뇌와 지칠줄 모르는 정력을 가지고 학생회일에 참여했다라면 리철이도 회장님자리를 내놔을지 모르지.》

현호의 말에 모두 웃었으나 진규만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쭙게 웃음을 거둔 그는 넋지시 자기 뜻을 내비치였다.

《그래두 학구적인 자세만은 잃지 않길 바라요.

시간과 정력이 얼마나 귀중한지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나로서는 이즈음에 와서야 생각을 달리했소. 터놓고 말해서 금세기초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타민족들에게 놀리우고 뜯기우게 된 비극의 근본은 무엇이겠소. 대대로 물려받은 후진성때문이지요. 우리도 현대과학의 첨단에 올라선다면 약소민족의 너울을 벗어나고 현대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거요. 과학도로서 우리가 개척해야 할 길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소.》

리철의 안색은 점점 심각해졌으나 말이 없었다. 안타까운 눈길로 진규를 지켜보던 현호는 격해진 마음을 서둘러 터놓았다.

《그런 순진한 과학적리념으로 자신을 변명하지말게. 그것이 한 인간의 운명개척에선 해결책으로 될진 몰라두 결국은 현실도피를 분식하는것밖엔될수 없어.》

《그렇다면 현실참여에서 우리가 얻은건 무엇인가. 뼈아픈 희생밖에 더 있나. 나두 이 땅의 민주와 통일을 바라구 그걸 위해 피도 흘렸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건 폭압밖에 더 있나.

우리는 자신을 아꼈줄도 알아야 하구 그걸 어디에 바쳐야 할지도 깨달아야 하네. 시간이 모든걸 증명하게 될거네. 그래두 현실도피라구?》

얼굴이 벌거우리하게 상기된 진규는 저도 모르게 어성을 높이었다. 그럴수록 현호는 덜통한 성미에 어울리지 않게 진중한 어조로 조용히 말했다.

《내 그러지 않아두 자네한테 조용히 말하자고 버려던 참이네... 먼 실례는 그만두더라두 이번일만해두 그렇지. 실험비에 쪼들리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애걸하다 못해 종당에는 이론적인 고찰로 마무리하고말았지. (용서하게 가슴아픈 말을해서... 미안하이) 설혹 그것이 성사되어 빛을 보게된다 해도 그 열매는 누구것이 되겠는지 모르겠나.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를 낳는 치부수단으로밖에 될게 없어. 자네가 바라는것처럼 그 연구성과가 민족의 공동의 부로 되자면 그걸 위해주고 아껴주는 참사회에서만 가능하네. 이북에서처럼 말이네.》

진규는 항변하는듯한 눈길로 그를 마주보았으나 가슴속 한가운데서 무거운것이 지그시 내려누르는것 같아 종시 입을 열지 못했다. 그를 지켜보는 현호의 눈빛은 더더욱 진지해졌다.

《명심하게. 진규, 우리의 통일은 국토량단의 비극을 끝장내는것만이 아닌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서두 절실하다는걸 말일세. 그래서 통일을 더 갈망하구 통일을 위해서 청춘도 서슴없이 내대는것이 아니겠나.》

《박형! 통일성전에 의로운 사람들의 피가 얼마나 많이 뿌려졌소. 성스러운 그 길우에 흘린 선혈에 비긴다면 내 하나의 운명이 무엇이겠소. 나

두 통일된 이 땅우에 과학의 금자탑을 높이 쌓아
갈 리상만은 고이 품고있소.》

진규의 두손을 굳게 잡으며 하는 리철의 음성
도 퍼그나 젖어들었다. 그 손길을 타고 가슴속에
전류처럼 저릿하게 흘러드는 온정에 진규는 무
겁게 고개를 떨구었다.

《우리의 통일이 그리도 비싼 값을 치뤄야 하는
가. 하기야 그래서 더 귀중한지도 모르지...》

혼자말처럼 뇌이는 진규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
며 현호가 헉헉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들같은 인재들의 지혜와 힘이 합쳐진다면
이 땅도 남부럽지 않게 복락하는 낙원으로 꽃필
걸세. 인간의 재능과 정력을 아껴주고 꽃피우는
복된 사회가 그림네. 진규, 자네처럼 나두 푸른
꿈을 마음껏 펼쳐갈 날이 있을걸세. 두고보게. 통
일조국은 무궁할거네.》

현호의 절절한 말에 숙연해진 그들은 한동안
말없는 침묵속에 서로의 진정을 나누었다. 진규
역시 감히 승엄해진 침묵을 깨뜨릴 용단이 서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수련이 조심스레 침
묵을 깨뜨렸다.

《저... 통일을 절규하며 분신한 우리 대학의 성
복씨가 있잖아요. 그의 소원을 소중히 여겨 이북
의 학우들이 자기 대학의 명예학생으로 등록했대
요.》

처음 듣는 소리에 놀란 진규는 리철을 지켜보
았다. 수련의 말에 수궁하여 고개를 끄덕이던 리
철은 한동안 먼 하늘을 지켜보았다.

《한겨레, 한피줄은 어쩔수 없나봐요. 우리도 하
루빨리 통일행진으로 그들과 만나 분렬의 장벽에
돌파구를 열어가지요. 내 그 디딤돌이 된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소.》

《그리도 수난 많은 우리 민족사에 새 이정표가
세워진다면 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테네. 분
렬의 2 세로 자라난 우리가 통일의 1 세로 새 삶
을 다시 한번 더 영위하고싶어서 말이오.》

현호의 격동된 말마디는 저으기 떨리었다. 멀
리 피어나는 저녁노을이 벌거우리하게 어리운 그
의 얼굴엔 두줄기눈물이 번뜩이었다. 북받치는
걱정을 누르려는듯 현호는 조용히 휘파람을 불었
다. 휘파람곡조에 이어 그는 낮으나 절절한 음정
으로 노래를 불렀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가슴저리게 파고드는 절절한 그 음정에 정화된
듯 마음이 승엄해진 진규는 눈곱이 저릿해졌다.

리철이도 수련이도 함께 노래를 불렀다.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을 이루자

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백사장 저 멀리 푸
른강반으로 퍼져갔다. 하지만 진규만은 목이 메
여 끝까지 부르지 못했다. 교정에서 가두에서 수
없이 불려온 노래였건만 어찌면 그리도 절절하고
애끓는것인지 진규는 새삼스레 느끼었다...

지금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통일을 노래하던
현호의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진규의 눈앞은 자
연히 흐려졌다.

그렇게도 통일을 갈망하던 그가, 죽었다가도
다시 태어나 통일을 영위하겠단 그가 열렬한
지향을 안은채 눈을 감다니...

마음이 격해진 진규의 걸음은 빨라졌다.

3

무거운 구름이 낮게 드리운 대기는 숨막힐듯
답답하였다. 어스름이 깃들무렵에야 진규는 대학
병원으로 들어섰다. 땀에 절은 그는 여러곳을 뛰
여다녔지만 허박사를 만날수 없었다. 다만 집에
찾아갔을 때 부인이 말하기를 얼마전에 전화가
왔는데 급한 일이 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할수도
있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하더라는것이였다.

다급한 생각에 쫓기운 진규가 별관쪽으로 갔을
때 거기에는 이미 술한 사람들이 몰려있었다.

진규는 허박사의 근시안경을 전해야 하겠다고
우겨대며 무작정 별관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2
층으로 올라가는 접수구에서는 눈썹 사나운 두사
나이가 막무가내로 밀어냈다.

서너명의 기자들과 마주서 싱갱이질하느라고
그들도 퍼그나 신경이 날카로워진 모양이였다.

《안된다는데두 으 짜 성화요. 감정하기전엔 누
구도 들이갈수 없다는데두...》

《사진 한장 찍었다구 감정결과가 달리 될것 같
아 그러우.》

회색웃을 입은 기자가 야유조로 나오자 턱에
흠이 간 사나이가 벌척 성을 냈다.

《죽은놈 사진이나 찍어 뭘해. 못된짓을 혼자
저질러놓곤 뒤가 켤기니까 물에 빠져 죽은건데.》

《그럼 자살이라는거겠소? 수사관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보도해도 일없겠지요.》

《뭐가 으째? 보자보자 하니꺼니 기자나부랭이
들이란게 입만 까가지고...》

뒤이어 쌍스러운 욕설이 터져나왔다.

1층복도로 내려와 서성거리던 진규는 한참만에
야 전달을 받고 내려온 허박사를 만났다. 부인한
테서 받은 안경집을 꺼내주며 진규는 귀속말로
물었다.

《선생님! 현호때문에 왔습니다. 어떻게 된것입
니까?》

《심장마비라고도 의진하는데 실은...》

무엇인가 진한 말을 하려고 주뿔거리던 박사는 뒤따라내려온 턱에 흠이 간 사나이가 찾는 소리에 입을 다물었다.

《박사선생, 우에서 기다립니다.》

《알겠소. 이제 곧...》

박사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기색으로 고개를 설레설레 젖더니 하는수 없다는듯 그를 따라 황황히 2층으로 올라갔다.

진규는 수련이가 따라나오며 하던 마지막 말이 다시금 떠올랐다. 현호의 죽음에 검은 손길이 미친것이 분명하다. 허박사가 말을 하기 주저하는것도 그와 관련되어있을것이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불안한 의혹을 더 짙게 하였다. 현호의 시신을 보지 않고서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했으나 허박사조차도 다시 만날 길이 막연해져 한동안 피로운 마음을 안고 서성거리던 진규는 하는수 없이 돌아섰다. 병원문을 나서던 그는 정원수아래서 자기를 찾는 소리에 무춤해졌다. 수련이가 반달음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박사선생님을 만났어요?》

진규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수련을 보자 현호와 함께 구치소에 끌려갔던 그에게도 위험이 뒤따르리라는 예감이 들어 진규의 생각은 더 어두워졌다.

《뭐라고 해요?》

《심장마비라고 의진하는 모양인데 아직...》

수련은 미덥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진규로서는 서둘러 의혹을 털어놓아 그렇지 않아도 초조해하는 수련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싶지 않았다.

그들은 말없이 큰길을 에돌아 어두운 뒤길로 나섰다. 자기 얼굴에 비낀 그들을 수련이가 미처 가려보지 못하는것이 다행이라고 진규는 생각했다.

《우리 대학엘 좀 들렀다 가요.》

이맘때 대학으로 간다는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으나 진규는 묵묵히 뒤따라갔다. ㅈ대학후문으로 들어선 그들은 도서관청사 지하실로 내려갔다. 배관이 길게 뻗은 좁은 복도로 앞서가던 수련은 작은 나무계단에 올라가서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반 지하실로 된 서고에서는 서너명의 대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무슨 공문을 하고있었다. 문을 열어준 ㄴ대학생이 손가락을 세워 입에 가져다대며 소리를 내지 말라고 일렀다. 했으나 미구에 인기척을 느낀 잠바입은 대학생이 고개를 들었다. 종이말이를 들려주며 동료들을 보내고난 그는 그제야 마주다가왔다. 다음 순간 진규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놀랐다. 안경을 벗어들고 가까이 다가오는 그를 찬찬히 여겨보니 리철이 분명했다.

(아니 저 사람이? 놈들이 기를 쓰고 찾고있는데 어찌자고 아직 이런델...)

리철의 얼굴엔 놀라움보다도 오히려 못미더워하는 기색이 진하게 내배이었다. 진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해 미처 대답을 하지 못하고있는데 수련이가 다가가 허박사를 만난 사연을 이야기했다.

《홍, 심장마비? 박형도 그 말을 믿소?》

쓴웃음을 지으며 리철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수련에게 되물었다.

《하숙집에 갔던 일은 어떻게 됐소?》

《처음엔 다른 말 없었어요. 두번째로 찾아가져...(수련은 언뜻 진규를 쳐다보고 말을 이었다) 제가 현호씨와 남다른 사이처럼 간청했더니 주인집 녀인이 마지 못해 이르더군요. 그전날 저녁 늦게 낫선 사나이 둘이 찾아왔더라요. 현호씨는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고 따라간뒤 돌아오지 않았대요. 이 사실은 저만 알고있으라고 당부했어요.》

수련은 잣아드는 소리로 조용히 뇌이였으나 리철의 숨소리는 점차 높아졌다.

《전후사연을 이어보면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해진 사실을 가지고 뭐 심장마비?! 흥 모두 어리숙해보이는 모양이지.》

리철의 말이 그 소식을 가져온 자신을 타박하는것만 같아 진규는 아프게 입술을 깨물었다.

《놈들은 이제 또 무슨 계책을 꾸며갈지도 모르지. 지어 현호가 개심했다고도 할수 있소.》

하지만 현호는 구치소에서든 곳곳이 싸웠소. 잡혀간 첫날부터 그는 학생회일도 발대식도 혼자 주도했다고 우겨대며 학우들에게 들썩워질 고초를 제한품으로 막아나서려고 했던거요. 그의 강경한 주장으로 모두 무사히 풀려나왔지만 그는...》

분풀이하듯 뇌이는 리철의 말에 진규는 놀랐다. 아니 의협심이 강한 현호로서는 심상 그럴만했다. 소리없이 흐느끼던 수련은 진규가 알고싶었던 말을 물었다.

《놈들이 현호씨를 왜 석방시켰을가요?》

《주동인물로 점찍은 그를 통해서 수배자들의 행처를 알아내려는 역빠른 책략이겠지.》

모두 내 잘못이요. 그가 풀려나오자 인차 손을 써야 하는건데...》

울분을 참지 못해 모두숨을 내쉬는 리철의 두눈엔 물기가 그렇하니 고여올랐다. 진규는 그 앞에서라도 웅졸한 생각에 묶이여 사리를 밝혀보지 못한 자신의 용서를 빌고싶었다. 그는 수련에게조차 주저했던 병원에서 보고들은것이며 허박사가 저어하며 미처 못한 말들을 떠듬떠듬 터놓았다.

《알수 없는건 무엇때문에 현호를 죽였는가 하는거요?》

그 말에 리철은 쏘는듯한 눈길로 돌아보았다.

《그의 불같은 통일의지때문이지요. 굽히지 않

는 그를 강도의 논리로 죽여 버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모두에게 공포를 주자는것밖에 더 있겠소.》

안타까운 마음을 녹이지 못해 방안을 오가는 리철의 눈길엔 질책만이 아닌 비분이 짙게 어려 있었다. 그것이 진규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좋아, 래일 대학대자보에 놈들의 진상을 까발려놓겠소. 그의 죽음으로 더더욱 굳건해진 우리의 통일념원을 함께 담아서 말이요.》

리철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것은 진규만이 아니었다. 수련이도 대뜸 막아나섰다.

《아니 제가 쓰겠어요.》

《이것만은 미룰수 없소. 현호가 우릴 위해 모든 위험도 한몸으로 막아나섰는데 이제와서 내가 뭘주저하겠소. 그의 지향을 이어 우리가 통일행진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그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거요.》

《조심하게. 그러지 않아두 자넌 붙잡겠다구 놈들이 막대한 현상금까지 내걸구 날뛰는데...》

진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하였다.

《박형! 심사숙고할 때는 지나갔소. 놈들이 현호의 죽음을 통략하려는판에 무엇이 두렵소. 야수와 맞서싸우자면 마음을 모질게 먹어야 한다는걸 아직도 깨닫지 못했소. 현호가 그걸 알면 누구보다도 분해할거요.》 열풍처럼 달아오른 그의 입김을 온몸으로 느끼며 진규는 무겁게 고개를 숙이였다. ...

리철이와 헤어진 진규는 수련을 따라나섰다. 어느덧 칠혹처럼 어두운 밤하늘에서는 비방울이 떨어졌다. 진규는 그것마저 느끼지 못하는듯 허덕허덕 두서없이 걸음을 옮기였다. 마음은 갈 때보다 더 무거웠다. 갈수록 걸음이 빠지는 그를 돌아보며 수련은 차분한 어조로 말하였다.

《리철씨도 몹시 피로울거예요. 진규씨도 그 마음을 리해하세요.》

진규에게는 수련의 따뜻한 위안이 고마웠다. 설혹 리철이 절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과격한 말을

했다 해도 그는 량심에 찢리우는 충격을 피할수 없었다.

아니, 친구를 잃고 피로와하는 자기보다 더 안타까이 몸부림치면서 제 한몸의 위험도 서슴지 않고 마지막까지 현호의 뜻을 이어가려는 리철이 앞에 지금도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졌다.

《아니 내가 피로와하는건 그게 아니요. 난 친구를 위해 아무것도 한것이 없는데 리철군은... 실은 그와 몇번밖에 상충해보지 못했지만 오늘은 십년지기처럼 친근감을 느끼게 되요. 그를 도와줄 힘이 없는게 안타까울뿐이요.》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니...》

진규는 어둠속에서도 수련의 사려깊은 눈가에 비친 가룩한 마음을 읽었다. 애뜻한 련정만이 아닌 고락도 함께 나눌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살들

한 은정이 그의 차거운 마음을 따뜻이 덥혀주었다. 그럴수록 진규는 소중하고 애모쁘게 여겨지는 수련을 다시는 우악스러운 놈들앞에 내맡길수 없다는것을 절감했다. 차츰 굵어지는 비를 그으려고 산자락에 실히 자란 느티나무아래로 들어섰을 때였다.

《수련이 부모들의 뜻대로 정양을 가든가... 아니면 다문 얼마간이라도 나다니지 말아주요.》

수련은 놀란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왜요? 제가 또 봉변을 당할가봐요?》

《리철의 말이 옳지. 현호를 석방시켜 수배자들을 잡으려던 기도가 수포로 돌아갔으니 이번엔...》

《너무 걱정마세.요... 저두 처음 잡혀갈 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거기서두 학우들과 함께 있다가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은 든든해졌어요. 진규씨만 곁에 있으면 전 두렵지 않아요.》

수련은 세차치는 비풍을 피하려는듯 진규에게가 가볍게 기대었다. 진규는 젖어드는 련민의 정을 금할수 없어 따듯한 포용으로 여린 그 마음을 감싸주고싶었다. 하지만 엄혹한 현실이 박두했다는 생각이 앞서 마음을 달리 먹었다.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이번만이라두 내 말을 들어주요. 내가 수련일 대신해줄테니까.》

그 말에 수련은 진규의 두손을 따뜻이 잡았다.

《정말이에요! 우리 함께 나신다면 저에겐 힘이 되구 의지가 돼요. 하지만 저를 대신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저에게두 진규씨가 소중해요... 더우기 학우들이 모두 떨쳐나서는데 저라고 가만 있겠어요.》

《수련인 처지가 다르오. 학생위원인데다가 구치소신세까지 졌으니 요시찰인이요... 몸두 추세울겸 당분간만이라도...》

그러자 수련은 잡고있던 손을 살며시 놓았다.

《...어쩔 진규씨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자신을 속이고싶지 않아요. 언제인가 진규씨가 의분에 차서 웨치던 그 절규를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죽음도 서슴지 않고 의로운 투쟁에 나섰던 선배들이 대학문을 나서면서부터 열렬한 기질이 그렇게도 채처럼 싸늘히 식어버리는가고, 생활전선이 아무리 어렵다해도 민주와 통일을 부르짖던 지향을 그리도 쉽사리 놀려버릴수 있는가고 통탄했지요. 전 그때의 진규씨를 다시보고싶어요.》

진규는 오열에 몸부림치는 수련의 마음을 안정시켜보려고 그의 두팔을 감싸쥐었다.

《수련이 그 마음을 알겠소. 하지만 지금은...》

《아니예요. 현호씨의 령혼은 우릴 지켜볼거예요.》

수련은 단호히 그의 손을 뿌리치며 답답한 어조로 북받치는 걱정을 털어놓았다.

《현호씨는 제 한몸으로 통일성전에 나선 우리

모두를 고무했어요. 그에게도 남다른 꿈과 리상이 있었어요. 친구의 의리로 봐도 어찌면...》

그 말에 놀란 진규는 가슴을 치며 되물었다.

《그럼 내가?》

《그래요. 의로운 그네들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통일이 이룩되는 날 어떻게 머리를 들고 이 땅을 밟을수 있겠어요. 진규씨만은... 안돼요.》

수련은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진채 돌아섰다.

《수련이!》

진규는 목메인 소리로 불렀으나 수련의 걸음은 더 빨라졌다. 진규는 비발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모습을 망연히 지켜보며 어둑속에 홀로 서있었다.

4

ㅈ대학 대자보에 리철의 글이 나가자 대학가는 또다시 술렁거리었다. 아울러 고향에서 올라온 현호의 부모들과 병원의료진이 밝힌 그의 시체에서 얼굴과 후두부에 타격을 받은 흔적이 뚜렷하다는 사실이 신문들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도 여론이 분분해졌다. 당국의 비행에 격분한 대학들에서는 분화구를 찾아 꿰고있는 용암처럼 다치면 터질듯 팽배한 분위기였다. ㅈ대학에서는 현호의 학살주범을 잡아내라고 학생들이 수입을 거부하고 거리로 떨쳐나섰다. 전투경찰들이 곳곳에서 때없이 대학생들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고 잡아갔다.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진규는 피로운 나날을 보냈다. 때없이 갈마드는 불안한 생각에 쫓기여 그 날도 대학과 집에 찾아갔으나 수련이를 만날수 없었다.

밤은 깊어 사위는 조용했으나 진규는 좀처럼 잠들수 없었다. 사색을 즐기던 기질은 어디 갔는지 초점 잃은 눈길은 허공에서 방황했다.

현호의 모습이 눈앞에 어리는가 하면 리철이와 수련이 하던 말이 귀에 쟁쟁히 들리었다. 그렇다고 아픈 마음을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다. 고독이란 이렇게도 고통스러운것인가를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된 진규였다. 좌우명처럼 여기던 어머니와 동생의 래일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으나 허사였다.

한때는 내가 지탄하던 대학선배들의 전철을 자신이 지금 밟고있지 않는가. 오죽했으면 수련이 조차 나에게 아픈 말을 했을가! 이제라도 그를 만나면 쓰디쓴 고민을 허심하게 털어놓고나서 웃으며 손잡고싶었다. 했으나 눈을 감으면 환각처럼 떠오르는 현호앞에서만은 무슨 말로 용서를 빌었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래도 현호는 웃는 얼굴로 현현히 권하군한다.

《진규, 자네답지 않게 뭘 주저하나. 그게 다 자넨 크게 믿고 위해주려는 수련씨의 깨끗한 마음인줄 왜 모르나. 고결한 그 마음을 지켜준다는건 누구에게나 차례지는 행운이 아닐세. 이제 더는

돕지 못할 내 몫까지 합쳐 잘 돌봐주게.》

진규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싶었다.

《이자식아, 그렇게도 남을 위해주고 그렇게도 통일을 갈망하더니 그 뜻은 어디 두고 먼저 가다니. 아, 죽일놈들이 원수를 어떻게 갚누?!》

그리면 현호는 세모진 눈으로 쏘아보며 질책했다.

《그만하게 진규, 푸념이나 늘어놓기엔 우리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었어. 우리 의지가 하나로 합쳐진다면 통일성업도 이룩될걸세. 일어나게.》

진규는 눈을 번쩍 떴다. 늦게나마 성전에 나서지 못한다면 량심이 자신을 용서치 않을것이다. 진규의 마음은 현호의 뜻을 이어 한몸의 위험도 서슴지 않는 수련을, 리철을 따라나서야 하겠다는 절박감으로 조여들었다.

×

이른새벽 진규는 첫 뺨스를 타고 수련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것은 수련의 어머니였다.

《방금 대학으로 나갔네. 성토대회를 한다면서 밤새 성토문을 쓰더군.》

진규는 선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급히 돌아섰다.

ㅈ대학으로 가는 차도는 거의 마비되다싶이 했다. 좁은 외통길로 사람들이 몰려갔다. 마음이 조급해진 진규는 걸음을 재촉했다. 경찰 백차들이 아츠러운 경적을 울리며 질주하였다.

그가 대학에 다달았을 때 이미 주변은 전투경찰들이 두세겹으로 둘러싸고있었다. 진규가 겨우 비집고 들어서는데 뒤에서 경찰들이 몰려들었다.

《주모자들은 모두 잡아야 한다.》

불현듯 들려오는 악청에 진규는 몸을 떨었다.

도서관앞마당에는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모여했는데 회색잠바를 입은 리철이 열변을 토하고있다. 다급해진 진규가 달려나가자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나도 시시각각으로 위험이 뒤따른다는것을 알고있다. 하지만 우리앞에 나선 현실은 너무도 절박하다... 학우들! 하루빨리 이북의 학우들과 손을 맞잡고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자! ...》

리철의 말은 더 들리지 않았다. 《자주!》, 《통일!》 힘차게 화답하는 함성이 메아리쳤다. 성벽처럼 막아선 학생들을 헤쳐보려고 선전대놈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란투가 벌어졌다.

《학우들, 물러서지 말라! 우리의 투쟁은 성스...》

누군가 계단우에 올라서 웨쳤다. 다음 순간 그가 말을 잇기도전에 서너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그를 곤봉으로 내려쳤다. 그의 이마에서 붉은피가 흘러내려 옷자락을 적시는것이 진규에게는 고속촬영한 화면처럼 또렷이 안겨왔다. 경악한 진

규가 경찰에게 끌려가는 그를 구원하려고 몸을 뻗으나 군중의 힘에 밀려 도서관문안으로 끌려들었다.

혼합통에도 그는 복도로 밀려들어온 리철을 가려보았다.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번개처럼 떠오른 결심이 번뜩이었다. 진규는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았다. 놀란 리철은 무슨 말인가 외우며 뿌리치려고 했다. 그래도 진규는 그를 무작정 끌고 어둑컴컴한 계단으로 끌고갔다. 번뜩이는 눈길로 그를 쏘아보던 리철은 단호하게 뿌리치려 했다. 그래도 진규는 막아나섰다.

《안돼. 자네 피해야 하네. 어서...》

급히 옷저고리를 벗어 내어민 그는 리철의 잠바를 벗기려 했다. 모든것을 눈치챈 리철은 항변하듯 앞자락을 움켜 쥐었다.

《그럴수 없소. 박형에겐 나보다도...》

《뭘 주저하나. 큰 일은 앞에 있네. 어서 지하도로 빠지게. 시간이 급해. 통일행진을 잊었나. 어서.》

드디어 진규는 그의 잠바를 빼앗아입고 계단으로 뛰어올라갔다. 2 층로대에 나선 그에게는 도서관 현관문으로 돌입하려고 악을 쓰는 경찰들이며 저지선을 뚫고 시위를 거행하려는 학우들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수련의 모습을 찾아보지 못한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가 쇠란간을 잡고 옥상으로 올라갈 때였다.

《리철이가 저기 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걸 잡아라!》하는 외마디소리와 함께 《리철이 빨리피하라》라는 학우들의 웨침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그제야 진규는 그들먹이 교여오르는 자부심을 안고 몸을 솟구쳤다.

《학우들! 통일의 제단에 청춘을 바친 현호군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이 땅에 민주와 통일의 새날을 안아오려는 그들의 피타는 열망이 우릴 부른다. 이북의 학우들과 손을 맞잡고 한나에서 백두로 백두에서 한나로 힘차게 달려나가자.》

폭풍같은 환호가 터져올랐다.

《현호군을 참살한 주범을 잡아내라!》

《미국은 가면을 벗으라!》... 거세찬 함성에 받들려 진규는 몸도 마음도 끝없이 솟구쳐오름을 느끼며 또다시 웨쳤다.

머칠후

교외로 갈라지는 세종목에 위치한 교빌딩 2층 유축진 방에서는 비밀리에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리철이 나오자 기자들이 다투어 물었다.

물음; 날을 따라 높아가는 학생운동의 에너지(힘)는 무엇인지?

대답; 미군을 몰아내고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100만 학도들의 한결같은 의지다.

물음; 당국에서 막대한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이처럼 건재해있는 의장을 가리켜 《백가면》이라고 하는데 그 비결은 어디 있는지?

대답; 기자선생들도 보드시이 나는 평범한 과학도로 아직 변장술의 비결은 터득하지 못했다. 요컨대 이 땅에 민주와 통일의 새날을 안아오려는 하나의 지향으로 불타는 학우들의 웅위속에 나는 건재해있을뿐아니라 하나의 의장이 래일은 열, 백의 의장으로 상승하여 우리 투쟁을 주도하는데 그 비결이 있다고 본다...

반시간에 걸친 리철이와의 회견내용이 그날 석간신문에 실려 당국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담벽의 말

박영

철없던 어릴적에도
분노의 주먹으로 눈물을 흠치던곳
병사가 되어 찾아오니
나에게 말을 하는구나
신천의 옛 방공호 피문은 콘크리트담벽이

말을 하누나
휘발유를 마시고 타는 가슴 쥐어뜯으며
엄마를 찾던 그 어린것들이
저 담벽을 긁고 긁을 때 새겨진
그날의 피해인 손자욱들이

아니 웨치는구나
자식들의 피타는 울부짖음소리

어머니들의 가슴을 찢던 그 아픈 메아리로
옛 방공호의 담벽은 웨치는구나

아, 그저 총탄으로만 다 풀릴
그런 한이 아니라고
그래서 조국은 병사에게
검도 함께 주었노라고

오, 복수의 총검을 시퍼렇게 날 세울
숫돌이 여기 있다
수호자의 전투장구류에
이 숫돌도 지고가라
피문은 콘크리트담벽이 령을 내리누나

검차의 마치소리는 작아도 외 1 편

최호진

남으로
북으로...

가고오는 렬차들
역구내에 잠시 멎는 사이
나는 작은 검차마치로
단김 확확 풍기는
차륜들의 상태를 알아본다

딱, 딱...
두들기면
이상없다 대답하는듯
가슴에 울려오는 메아리
그 음향에서
나는 기쁨을 안고 모든것을 가늠한다

머나먼 천리만리 궤도우를
단숨에 주름잡아 달려오고 달려가며
황금벌 지평선을 지나
굽이굽이 산굽이를 쓴살같이 주름잡아온
무사고 주행의 그 속도도

수많은 역과 역을 맞을 때
정시도착의 기쁨 기적소리에 담아올리며
행복의 려행길에 꽃피운 그 웃음도
한차량의 집이라도 더 끌던 그 마음
공장과 광산에 보내준 그 자량도

환희롭구나
검차의 마치소리에서
더 많은 비날론숨이 쏟아져내릴 소리
풍년 카리비료가 폭포칠소리
200 만톤 강철이 넘쳐흐를 소리...
행복의 노래처럼 울려나고
기쁨의 웃음처럼 꽃피어나거니

사람들은 무심히 스치는 내 마치소리를
나는 더없이 소중히 듣는다
심장의 고동처럼 새겨안으며
다시 또다시 두들겨본다
때론 청춘의 희열을 느끼며
때론 희망찬 래일도 그려보며

보람차구나
청진기로 심장의 맥박을 들으며
세포들의 숨결을 검진하는 의사런듯
검차의 마치소리 들으며
조국의 동맥을 헤아리고
온 나라 행복의 음향을 하나로 이어주거니

아, 내 두들기는 마치소리 비록 작아도
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듣는다
두줄기 궤도의 경쾌한 음향에 실려
새로운 90 년대 속도로 내달리는
온 나라 일터에서 꽃피는 행복의 웃음을
조국의 크나큰 발걸음소리들!

《통표》와 함께

질주해온 렬차
역구내에 들어설 때
기관사와 역장은 말없이
넘겨주고 넘겨받는다
《통표》를

누가 알랴
이 《통표》속에
무사고 주행을 수놓아가며

인민경제 선행관
수송전선의 시간이
높이 고동치고있음을

미소어린 역장의 눈빛을
흐뭇이 바라보는 기관사의 가슴도

엄숙히 거수경례로
렬차를 맞는 역장의 심장도
손목시계를 보며
마음은 하나같이 높뛰누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그들은 이렇게 넘겨주고 넘겨받지 않았던가
이 하나의 《통표》를
조국의 시간으로

사람들은 모르리
저 《통표》의 시간속에
한걸음으로 발맞춰나가는
대건설의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전변의 시간이 창조되고있음을

정녕 모르리
강선의 정신으로
천리마의 정신으로
하늘이 들리도록 재부를 쌓으며
땅이 꺼지도록 난알이 영그는
위대한 년대의 진군속도도 여기서 꽃피고있음을

아, 기관사와 역장
서로 주고받는 《통표》

온 나라가 받아안고 넘겨주며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조국은 전진하거니

그들은 《통표》와 함께
혁명의 시간을
인제받고 인제한다
력사의 새 시대를 앞장서
마중하고 떠밀어간다

《힘들지 않습니다》

리연희

나이 어린 처녀라고
누구나 때없이 묻군해요
힘들지 않는가고-
그 마음 고맙긴 해도
그런 말 듣기가 나는 싫어요

돌격대복도 함께 입었는데
제법 빠기면서 다가와요
동창생 그 동무 사나이라고
자꾸만 묻군해요 힘들지 않은가
그럴 때면 나는 대답해요
-힘들지 않아요

이 가슴에 분대장경표 번쩍이던 그날에도
막내가 이 딸 찾아
건설전투장에 오신 아버지도
대견한 마음 담아 물으시네
힘들지 않느냐고

그때도 나는
방긋이 불우물 지으며 대답했어라
-힘들지 않아요

묻지 않았으면
이제 더는 묻지 않았으면
서리발 총창 비껴들진 않았어도
총탄이 비발치진 않아도
내 나선곳은 청춘의 열정 나래치는 위훈의 일터
당이 부르는 건설의 전초선

그 누가 불러서가 아니여라
나는 스스로 달려왔거니
어찌 힘들수 있으랴
돌격전에 나선 청춘의 이 가슴
희망으로 넘치고 피는 뚝어라

우리 어찌 속도를 늦추랴
동녘하늘이 흰히 밝아올 때도
하루밤이 왜 이리도 짧은지
샘솟는 힘을 어찌하랴

우리 힘 우리 열정
인제나 노래로 터져올라요
허리치는 감탕속에서도
언제나 노래하며 돌격하는 청춘대오
그속에 나도 한 대원

나의 소원은 오직 하나
그 언젠가 한번은 우리 현장 찾아주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나의 이 손 잡으시고 물으시면
힘차게 대답하리라
-힘들지 않습니다. 더 큰 파업을 주십시오!

아, 우리의 이름은
청년돌격대원
시련앞에 진할줄도 모르고
대건설의 앞장에 선 기수가 아닌가
조국이며!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 맡겨달라!

나는 탄부 외 1편

고호길

나는 탄부, 땅속에서
막장도 한끝에서 노래를 짓노라
정다운 채탄기 칠현금 삼아
빛과 열의 곡을 탄주하노라

그러면 절삭날에 실리는 가락
탄의 장벽을 뒤흔들고
사태처럼 무너져내리는 그 흐름은
멀리 화력타빈의 동음으로 울려가나니

날마다 밤마다 불야성 이루어
땅우엔 넘쳐나네 현란한 불빛들아
창박엔 눈보라 울부짖어도
방안엔 꽃이 웃네, 봄날의 훈향일어

그 불빛 어디서 비쳐오는지
그 훈향 어디서 풍겨오는지
빛없이 열없인 잠시를 못살아도
사람들 날마다 탄부생각 하는지

그 불빛은 땅속에서 땅우의 음향
밝은 선물 고르는 탄부의 마음
은백색고압선 철의 오선우에
빛의 음부 그리는 탄부의 눈빛

정녕 그 훈향은 끓는 용암 가까이서
검은금을 안아내는 탄부의 숨결
땅우의 열기를 뿜어올리며
불덩이처럼 뜨거운 마음의 체온

아 땅우에 흐르는 빛과 열이여도
그것은 땅속에 뿌리를 두었나니
눈부신 불빛도 탄부-나의 노래!
싱그런 훈향도 탄부-나의 노래!

그렇다 달리는 렬차의 기적소리
전기로 해탄로의 동음도
우람찬 기계바다의 대합창도
탄부- 내 노래의 장쾌한 메아리다

아, 우리 수령님 가장 즐겨들으시는
열정에 찬 탄부의 노래 더 뜨거울 때
광명에 찬 나의 노래 더 눈부실 때
조국은 창조와 건설의 위용펼치리니

나는 탄부, 대자연의 일터에서
끝없는 행복의 노래를 짓노라
나의 사랑, 채탄기 칠현금으로
시대의 교향곡을 탄주하노라

탄부의 주먹

막장의 휴식시간 굴진공과 채탄공이
소매 걷어붙이고 팔씨름에 나섰네
고속도굴진공이 이겨야지 될말인가
만톤중대 채탄공이 저서야 아니되지
여차 여차 넘겨라 버려라
와하하 굴진공이 이겼구나

떡메같은 주먹을 높이 쳐들고
굴진공이 우쭐대며 하는 말
-바위돌을 비틀어서 물을 짜는 이 주먹
300 메터 고속도굴진공이 저서야 아니되지

웃음소린 막장을 들었다놓고
채탄공의 통사정에 2회전이 벌여졌네
회수기로 쇠동발을 제끼듯이 넘겨보게
유압으로 천반돌을 막아내듯 버터보게
여차 여차 황소숨을 쉬더니
와하하 이번엔 채탄공이 이겼구나

술뚜쟁같은 두손바닥 툭툭 털며
채탄공의 어깨가 으쓱
-한발과에 석탄 천톤 뿜아내는
만톤중대 채탄공이 저서야 될말인가

응원소리 박수소리 막장을 흔들고
승부없는 팔씨름은 결승전에 올랐네
올리굴을 봉피하듯 속공으로 들이대게
적재기로 버럭실듯 단숨에 떠제끼게
여차 여차 뼈마디가 우직우직
와하하 비겼구나 비겼어

아, 저 주먹앞에 암반은 뒤걸음질쳐
혁신의 막장길은 끝없이 깊어가누나
저 주먹한테 탄맥은 목덜미를 잡혀
충성의 석탄산은 하늘가에 닿는구나!

군사분계선에서

박창민

누구든 군사분계선에 가면 국토량단의 비극을 절감하게 된다.

조국강산기행을 떠날 때는 그렇게도 기쁘고 즐겁다가도 분계선기행으로 열차에 오르면 벌써 민족분렬의 아픔이 못견디게 머리를 추켜든다.

며칠전에도 나는 군사분계선에서 분단의 아픈 상처를 안고 사는 우리 인민의 고통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그날 나는 분계선기행의 길을 이어 장풍군 사시리언덕에 올랐다.

거기서는 남녘땅이 바로 눈앞에 바라보았다.

유유히 흘러가는 림진강 푸른 물이며 저멀리 남으로 뻗어간 높고낮은 산발은 예나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첫눈에 가슴아프게 안겨오는것은 분계선남쪽지역에 쌓은 콘크리트장벽이었다.

징그러운 독사의 몸뚱아리처럼 남녘의 산발을 칭칭 감아안고 구불구불 흘러간 콘크리트장벽은 보기만 해도 저주로왔다.

밀의 너비가 10미터, 높이가 5~8미터나 된다는 그 장벽은 산릉선은 물론 개활지대와 강, 경사급한 계곡을 가리지 않고 끝없이 뻗어나갔다.

한지맥으로 잇닿은 조국강산에 인공적인 《국경선》을 만들어 국토를 두동강내어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을 이어온 단일민족의 혈맥을 끊어버리고 《두개 조선》을 만들기 위해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이 쌓아놓은 원한의 콘크리트장벽!

그것은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놈들의 반민족적범죄행위의 증거물이며 민족분렬과 북남대결의 상징이다.

저 장벽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과 남의 자유로운 래왕과 전면개방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북남대결도 가질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엇보다도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쌓아놓은 콘크리트장벽부터 허물어버려야 합니다.》

5천년의 오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단일민족인 우리 인민이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콘크리트장벽을 사이에 두고 사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다.

바라만 보면 분노의 피가 끓게하는 저 콘크리트장벽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있는것인가...

그날 우리가 분계선너머 원한의 콘크리트장벽을 바라보고있는데 여러명의 외국손님들이 분계선령마루로 올라오고있었다.

나는 인민군군관에게 물었다.

《외국사람들이 아십니까?》

《예. 저 콘크리트장벽을 보기 위해서 외국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콘크리트장벽을 보기 위해서요?》

《예.》

기막힌 일이었다.

산 좋고 물 맑은 명승의 나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에 명승지관광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원한의 장벽을 보기 위해 분계선을 찾아오고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 분단의 장벽을 직접 보게된 외국사람들은 민족분렬의 화근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과연 어느놈인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유럽의 한 외국사람은 세계 그 어느 나라 국경도 저렇게 높고 어마어마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한강토에 저린 장벽을 쌓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의 반민족적죄행을 격분에 넘쳐 단죄하였다.

외국손님들의 말을 들으니 불현듯 몇해전에 목격한 일이 떠올랐다.

그때 유럽나라들을 방문하고있던 우리를 태운 승용차는 어느 한 나라의 국경을 향해 경쾌하게 달리고있었다.

높고낮은 산발과 강, 초원...

이국의 특유한 정서가 차창으로 물결쳐왔다.

이윽고 드넓은 아스팔트길위로 길주하던 승용차가 나지막한 언덕에서 서서히 멎었다.

길 한가운데로 차단봉이 드리워져있었다. 국경이었다.

국경경비대원들이 증명서를 검열하고 통과시켰다.

언어와 피부색같이 서로 다른 수많은 외국사람들이 여기서 잠간 지체했다가는 국경을 넘어 목적지로 갔다.

나라의 경계를 표시하는 자그마한 표말들과 아스팔트 넓은 길을 가로건너간 차단봉, 크지 않은 초소막...

이것이 국경에 설치된 시설물의 전부였다. 국경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소박하고 평범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대대로 함께 살아온 한민족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자유로운 래왕은 고사하고 편지 한장 전하지 못하며 첨예한 대결속에 반세기가 넘도록 고통스럽게 살아가고있다.

1940년대에 시작된 민족분렬이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오늘까지 계속되고있는것은 민족자주성의

견지에서 보나 세계자주화의 견지에서 보나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력사의 비극이다.

세계적으로 식민지체계가 붕괴되고 압제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모두 자주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우리시대에 36년간의 일제식민지통치에 이어 40년이 넘도록 조국의 절반땅에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지속되고있는것은 참으로 절통하고 격분할 일이다.

그러나 갈라진 하늘밑, 끊어진 강토우에 우리 민족의 년분이 새겨지고 한세대가 다 자라도록 헤어져살지만 하나로 흐르는 겨레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써도 갈라놓을수 없다.

한해 두해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조국통일은 이제 더는 남겨둘수도, 더는 넘겨줄수도 없는 시대의 절박한 임무이다.

밤이 새면 새날이 밝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우리 민족의 념원은 반드시 실현되어 봄날의

눈석이처럼, 해빙기의 얼음장처럼 국토의 허리를 무겁게 지지누르던 콘크리트장벽은 갈라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터지고 녹아내려 마침내 통일의 대문 활짝 열리리라.

원한의 당국사에 오열의 피눈물을 뿌리던 그 시절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을 맞이하여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광복을 이룩했듯이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시대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백두에서 한나까지 온 강산이 환희에 설레는 장쾌한 그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그렇다.

통일의 그날 나는 분계선기행이 아니라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 남해기행을 하게 되리라.

여기서 만났던 저 외국사람들을 남해가에서 관광객으로 다시 만나게 되리라.

주추돌

황인섭

무성한 잡초에 묻히여
집이란 흔적마저 찾을수 없는 땅에
너 하나 옛모습 그대로 남았구나
여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한 농가의 기둥을 고였던
주추돌 주추돌

맑은 샘물 넘쳐나던 박우물마저
분간할수 없도록 변하고 변한곳에
너만은 옛모습 그대로 남았구나
그 어느 재간 많은 석공이
화강암을 다듬은 자욱 력력한
주추돌 주추돌

어디 한번 안아보자
네가 정말
송진방울 내뿜은 둥근 기둥이며
철늦은 가을까지 박이 굳던 지붕
한가정에 피어나던 단란한 웃음소리
드팀없이 받쳐주던 그 초석이란말이나

분여받은 땅에서 정든 땅에서
마음껏 농사지을 꿈도 많던 사람들
밤 깊어가도록 글을 배우며
잠들줄 모르던 그 소박한 마음들을
주추돌이여, 너는
오늘도 고스란히 간직하고있느냐

미제가 없고 매국노가 없었다면

강토를 동강낸 분계선이 아니라면
여기도 내 고향 풍덕마을 다름없이
은혜로운 햇빛아래 새집들 솟아올라
사람마다 행복을 누려가고있으련만

모든것이 불타고 깨어져버렸구나
지금은 인적마저 찾을길 없는 땅에
나무숲만 우중충 키높이 솟아올라
하늘을 덮었구나
이끼덮인 네 우에는
무거운 정적만 흐르고있구나

세상에 더는 없는
이런 참상 이런 비극
가슴찡는 이 아픔 다 모아 안고서
너는 남아있구나, 주추돌이여
전쟁의 불길에도 타지 않았고
쏟아지는 총포탄도 움직이지 못한
민족의 넋을 안고 뿌리내려있구나

세월은 흐르고 강토는 변하고
원한의 철조망 고삭아 녹쫓어도
너만은 영원히 변함을 모르리니
아, 통일된 우리 조국-
하나의 큰 집을 세워야 할
우리의 불같은 마음들을 떠받들며
너는 남아있구나
주추돌, 주추돌이여!

강감찬의 위업

강감찬이 한양관관의 벼슬을 받은것은 그의 나이가 서른다섯때다.

때는 성종시기(고려 6대왕, 982~987년)

고려왕조의 기틀이 이제는 잡힐대로 잡혔다.

왕은 3성, 6부, 7시(고려때 주요 중앙관청)로 정사를 보면서 인재선발은 과거제도로 하였다.

과거시험이 방금 끝난 다음이다.

왕은 여러 시험지들을 벌려놓고 이리저리 살피다가 어느 한 시험지에 눈길을 박았다. 만리창공을 헤치고 룡이 날으는듯 기묘한 필법이며 산천의 정기를 그대로 담은듯 활달한 문체가 왕의 눈을 끌었던것이다. 그래서 시험지를 들고 접어놓은것을 떼어펼쳐보니 궁진의 아들 은천(강감찬의 처음이름)의 시험지였다.

왕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에게 장원을 주었다. 궁진으로 말하면 고려를 세우는데 공이 큰 사람이었고 또 과거를 본 당자를 놓고보아도 문장과 필법이 출중하니 장원을 주어 아쉬울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왕은 곧 장원을 불러들이었다. 그런데 왕앞에 나타난것은 문체며 필법과는 판판 다른,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체구가 조그마한 사나이였다.

바라던바와는 너무도 어긋났으나 그렇다고 이왕 방을 내붙인 장원을 어찌할수 없어 왕은 짐짓 근엄한 기색을 지어보이며

《경의 아버지는 태조를 도와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거니 경은 짐을 도와 이름을 떨치도록 하라.》

하고 나서 외직으로 한양관관의 벼슬을 주었던 것이다.

강감찬이 한양에 이르러보니 온 고을에 숲이 우거지고 층암절벽이 사방을 에둘렀는데 고을 한복판에 있는 백고개라는 령이 사람들의 근심어린 말에 오르내리고있었다. 이 고장은 호랑이가 많은때문에 한낮에라도 고개를 넘으려면 일행이 백명쯤 되어야 마음을 놓을수 있다는것이였다. 그래서 고개이름도 백고개(뒤날에는 발음이 달라져서 배고개로 알려졌다)라고 하였다.

강감찬은 우선 고을안을 두루 다녀보았다.

인가라고는 여기 한집, 저기 두집, 기껏 모여살아야 대어섯집인데 집에는 앞마당 뒤뜰 할것없이 온통 호방(범을 막는 그물)뿐이라 온 고을이 호랑이때문에 고생한다는것이 첫눈에 력력하였다.

고을안을 돌아보고난 강감찬은 이 고을을 잘 다스리려면 호랑이부터 없애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날 대청에 나가앉은 강감찬은 형리를 불러 담이 크고 건장한 사령 하나를 등대시키라고 분

부하였다.

조금있으려니 과연 우악스레 생긴 사령 하나가 들어왔다. 두눈은 통방울같이 툭 불그러지고 시꺼먼 수세미같은 수염이 얼굴을 반남아 가리웠는데 짙방석같이 헝클어진 머리를 배수건으로 아무렇게나 동이고 휘청휘청 뜰안에 들어서더니 의아한 눈으로 관관을 올려다보았다.

《이 고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냐?》

관관은 몸집은 작았으나 목소리는 우렁찼다.

《삼각산 백운대가 제일 높소이다.》

강감찬은 사령의 대답을 듣더니 종이 한장을 펴놓고 무어라고 두어줄 적어서 사령에게 내주었다. 받아보니 배지(봉천사회에서 지체높은 사람이 아래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써주는 편지형식의 글)였다.

《네 그걸 가지고 삼각산 상상봉에 가서 중을 하나 불러오너라. 백운대꼭대기에 가면 얼굴이 기괴하게 생긴 늙은 중이 있을게다. 그에게 그걸 보이고 가자고하면 두말않고 따라올게다.》

사령은 관관의 분부에 고개를 외로 틀며 주춤거리더니 한동안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삼각산으로 말씀드리오면 이 고장에서 돌도 없는 험산이요 명산이오라 멀리서 바라보면 대낮에도 흰 구름이 자욱하옵고 예로부터 전해오기를 상상봉에는 선녀들이 하강하와 청명한 봄날이나 달밝은 가을밤이면 풍악소리가 은은히 들려온다 하나이다. 숲이 무성하와 길이 없삽고 호환이 잦아 산에 올라본 사람도 없사오니 황송하오니 분부를 거행하기 어렵소이다.》

그 말에 강감찬은 눈을 부릅떴다.

《내가 나라의 명을 받고 이고장에 부임하였은즉 이 고을안에 있는것이라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초목이건 다 내 분부를 들어야 하리로다. 네가 그만한 키팔에 이만한 분부를 어렵다고 칭탈하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관가의 난알을 축내느냐, 두말말고 어서 시행해라.》

사령은 더는 할말이 없어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삼각산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일가친척들이 모여들었다. 당장 죽을곳에 드는 사람처럼 사령을 붙들고 울음을 터뜨리며 관관을 원망하였다.

집안사람들의 이런 꼴을 보려니 사령의 마음에도 거북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껏 고을안에서 제일 담대한체하고 거드름피우던 그이교보면 산에 가보기도전에 초상난집처럼 소란을 부리는것이 남보기에 창피하였다. 그래서 얼른 길차비를 하고 문을 나서려는데 이번에는 또 안해가 앞을 막았다.

《삼각산은 호랑이의 굴혈이라 하온데 굳이 가 시려 하나이까. 잔망스런 판관이 써준 종이쪽지가 호랑이앞에 무슨 효험이 있으리까. 판관라야 백성을 다스리는 판관이웁고 호랑이를 다루는 판관은 아니오니 차라리 그 잘난 구실자리 내놓고 어디로 도망이라도 가사이다.》

사령은 안해의 꾸밈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안사람때문에 지엄한 판명을 어기었다는 소문을 듣는것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던것이다.

사령은 삼각산을 바라보며 대문을 나섰다.

산기슭에 이르니 산은 과연 험산이었다. 나무 아지를 헤치며 발걸음을 옮기고 츠렁바위를 뚫아 산우로 올라갔다.

한동안 땀을 흘리며 오르고나니 기암괴석이 웅장중장 솟고 잔솔이 들성들성한곳에 엮은 안개가 몽롱하게 어려있었다. 여기가 상상봉이라 생각하고 정신을 가다듬은 그는 있는 기운을 다해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섰다. 원근의 고을들이 발밑으로 바라보이는데 저멀리 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서해바다우에 푸른 섬들이 손에 닿을듯 가까와보이였다.

잠시 서서 사방을 살펴보고나서 운대아래를 굽어보니 과연 어떤 중이 홀로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잠들어있었다.

중을 본 사령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높은 산꼭대기에 웬 중이 있을까? 이런 절 관청에 앉아있는 판관이 어떻게 알았을까?)

사령은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한번 헛기침을 하고나서 중에게로 다가가 흔들어깨웠다.

중은 놀라게 기지개를 하더니 눈을 뜨고 앞에선 사람을 여겨보았다. 순간 사령도 그의 모습을 살폈다.

눈썹은 파뿌리같이 세였는데 두눈에서는 불꽃이 튀기였다. 두드러진 이마며 우무러진 볼이며 발은 목이며 높이 들린 어깨가 첫눈에 드세고 우악스러워보이며 사령은 은근히 겁이 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사령은 용기를 내어 판관이 써주던 배지를 중앞에 내보이며 같이 가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판관의 배지를 보더니 이제까지만 하여도 두눈에 살기를 띄고 앞을 노려보던 중이 갑자기 목을 움츠리였고 어깨를 추슬리며 기세를 보이던 몸이 서리맞은 배추잎처럼 폭삭 잦아드는것이였다. 중은 고개를 떨구고앉아 잠시 몸을 떨고있더니 말없이 일어나 앞서걸기 시작하였다.

사령은 늙은 중을 앞세우고 산을 내려왔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올라올 때 그토록 간난신고를 하였던 산길이 중을 앞세우고 내려가려니 탄탄대로를 걷는것처럼 수월하였다.

사령은 순식간에 판관앞에 이르렀다. 서쪽하늘

을 바라보니 해는 아직도 높이 걸려있었다.

사령은 늙은 중을 이끌고 판관앞으로 갔다.

늙은 중이 대돌아래 무릎을 꿇고 앉자 강감찬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를 꾸짖기 시작하였다.

《하늘이 만물을 내여 함께 살아가게 하였으되 각각 살아가는 거처가 따로 정하여져있거늘 너는 어찌하여 마을에 드나들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거냐? 더구나 마소를 몰어가고 사람까지 해친다고 하니 그 죄를 론한다면 큰 벌을 내려야 마땅하리로드. 내 이번만은 용서하고 죄를 묻지 않을터이니 너는 너희무리를 이끌고 멀리 떠나거라, 백두산밖으로 나가야 하느니라.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안에 들어서지 말아라.》

늙은 중은 고개를 숙이고앉아 꾸중을 듣다가 강감찬의 말이 끝나자 머리를 조아리며 애절하는 뜻을 표하였다.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형방이며 사령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호환을 다스린다는 판관이 애매하게 중을 데려다놓고 으름장을 놓으니 무슨 까닭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들이 어리둥절해서 강감찬을 바라보자 강감찬은 중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는 너의 원래 모습을 드러내보이고 물러가거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땅을 뒤 흔드는 으흥- 소리가 울리더니 중은 간데없고 커다란 범 한마리가 대가리를 주억거리며 문밖으로 나가는것이였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사람들은 기겁을 해서 몸을 피하느라 헤덤비였지만 강감찬은 태연히 앉아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일뿐이였다.

그날밤 달빛이 희미하고 바람이 잔잔한데 우로 삼각산으로부터 아래로 백악, 인왕산, 남무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들과 숲들에서 천군만마가 달리는듯한 소란한 소리가 온밤 들려왔다. 범의 떼가 떠나가는 소리였다.

다음날 강감찬은 고을안에 령을 내려 호망을 다 걷게 하였다.

수십, 수백년을 관습적으로 호랑속에서 살아온 한양사람들은 처음에는 판관의 말을 미심쩍어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모든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양에서는 사람들이 비로소 호랑이 근심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다.

한양사람들은 강감찬을 몹시 우러렸다.

강감찬의 공적은 이내 나라에 알려졌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임기도 끝이 났다.

임기를 마친 강감찬은 개경(개성)을 향해 한양을 떠났다.

그가 바야흐로 개경근방에 이르렀을 때다.

앞에서 이쪽을 향해 행차하다가 마주 오는것이 보였다. 강감찬은 무심코 길을 비켜서는데 행차는 곧바로 그를 향해오더니 어명을 전하는것이였

다.

강감찬은 꿇어앉아 왕의 명령을 받았다.

《짐이 들으니 경이 한양에서 호랑이를 다스려 호환이 없어지고 백성들이 생업에 안착되어 호구가 날로 늘어난다하니 가상한 일이다. 이제 경에게 경주고을을 맡기느니 부디 정사를 잘 돌볼지어다. 경주는 옛 신라의 서울이라 민심이 완고하여 옛 나라를 생각하고 조정을 받드는 마음이 부족하니 경은 각별 조심하여 짐의 근심을 덜게 하라.》

강감찬은 북쪽을 향해 네번 큰절을 하고 그자리에서 말머리를 돌려 남쪽으로 향하였다.

이마직에 와서는 강감찬이 한양을 잘 다스린 소식이 온 나라안에 자자해진터이라 그가 경주로 온다는 말이 돌자 경주사람들은 새로 오는 원이 어떤 위인인가 궁금해서 목을 빼들고 기다렸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원이란 얼굴이 오종충하고 키도 작아 위풍이라고는 볼것이 없었다. 새 원을 맞이한 경주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다.

《조정엔 과연 인물이 없나보군. 저런 위인이 무슨 재주가 있을고.》

《전에 나돌던 소문은 바람결에 뿔뿔히 흩날린 말들이었나보군.》

《글쎄 생김새가 어찌면 그 모양이요. 그 물결에서 무슨 궁냥이 나온담.》

속담에 첫째는 풍신이요 둘째는 언변이라 하듯이 사람은 우선 풍채가 좋아야 남의 호감을 사는 법인데 강감찬의 인품을 가늠해보던 사람들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더구나 멋없이 고집이 세고 거드름부리기를 좋아하는 경주사람들이고보면 그럴만도 한 일이었다.

신라가 망하고 그 땅이 고려에 합쳐진지도 어언 반백년이 훨씬 넘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신라를 그리워하며 제격하면 고려조정의 정사에 시비를 걸고 개경에서 내려오는 원들이 조금이라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그를 조롱하는 노래를 지어 항간에 퍼뜨리기가 일쑤인 경주사람들이었다.

강감찬에 대한 비방이 날을 따라 잦아졌다. 그것이 마침내는 강감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강감찬은 아무말없이 빙그레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강감찬이 여기로 온지 채 한달이 되기전인데 뜻밖에 송사장이 들어왔다. 송사의 내용인즉 이런 것이었다.

《고을안에 개구리소리가 요란하와 백성들이 권

안히 잠잘수 없사오니 성주님(고을원을 가리켜 이르는 말)은 백성의 부모된 마음으로 이 일을 밝게 다스려주옵소서.》

밤이면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잠잘수 없으니 이것을 없애달라는 것이었다.

경주는 본래 저습한 고장이다. 봄철 눈석이에 도 사처에 물이 고여 늪을 방불하게 하고 오뉴월 장마철에는 큰물이 저서 울안에서 물고기를 낚을 지경으로 된다.

때는 음력 사월, 초여름이라 아직 더워질 때가 멀었는데 벌써부터 개구리의 울음이 성화스러웠다.

강감찬은 송사를 받고 빙그레 웃었다. 이 송사란 것이 자기의 재주를 시험하려 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강감찬은 곧 사령들을 불러들이어 늪에 가서 큰개구리 한마리를 잡아오게 하였다.

얼마 안있어 사령 하나가 솔뚜껑만한 개구리 한마리를 잡아가지고왔다. 눈알이 주먹같고 발가락이 키같은데 뜰에다 앉혀놓으니 윤기흐르는 등줄기에 해빛이 비치여 눈을 시리게 하였다.

개구리를 잠시 바라보던 강감찬은 목소리를 낮추어 조용히 타일렀다.

《내 이제 너희들 입을 봉할터이니 다시는 이 성안에서 울지 말아라.》

개구리는 그 말을 알아듣는듯 두눈을 껌뻑이고 입을 널름거렸다.

강감찬은 사령에게 그 개구리를 다시 늪에 가져다 놓아주라고 분부하였다.

이 소문이 나돌자 경주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사포의 정사가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같다고 뒤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저녁은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이 든 그들이었다.

이튿날 늪이며 논두렁에 나와보니 개구리는 한 마리도 보이지를 않았다.

그제야 경주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딱 벌렸다.

《과연 사포님은 유명한분이신가보오. 무지한 개구리도 그의 위엄에 울음을 그치지 않았소?》

그리하여 경주는 다시는 말썽이 없는 고장으로 되었다.

강감찬은 이런 슬기와 위엄을 키워 후날에는 외래침략자를 물리치는 싸움에서 청사에 빛날 이름을 떨치게 되었던 것이다.

오희복

제 4 차 《3. 23 방송문학작품상》 창작경기요강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있어서 매우 큰 작용을 한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는 텔레비전소설과 방송극을 비롯한 방송문예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방송문학 창작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리기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1983년 3월 23일 로작발표기념일을 계기로 《3. 23 방송문학작품상》 창작경기를 조직한다.

1. 《3. 28 방송문학작품상》 창작경기작품의 종류

① 텔레비전방송문학

-텔레비전연속소설, 텔레비전단편소설

-텔레비전극, 텔레비전소품(짧은극, 재담)

② 라디오방송문학

-극부분

연속방송극(장, 중편), 방송극, 방송소설, 방송시극, 경방송극, 아동방송극, 방송실화극, 기행극, 짧은극, 재담

-시부분

서정시, 장시, 송가, 서정서사시, 방송음악서사시, 문예묵음

-주연속방송극

《천복이와 만길이》, 《한 투사의 추억》, 《남쪽에서 온 편지》

2. 창작경기작품의 주제

①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을 오로지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여 이 땅위에 세계만방에 빛을 뿌리는 인민의 락원 《주체의 조선》을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업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주제로 한 작품.

②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받들어 우리 당을 가장 존엄있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조국과 인민을 공산주의 찬란한 미래로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

③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고귀한

혁명전통과 그를 이어받아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 대중적영웅주의와 집단적 혁신을 일으킨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

④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진정한 사회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인 고마운 당의 따뜻한 품속에 사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민족적공지와 영예, 혁명적자부심,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을 내용으로 한 작품.

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90년대속도》 창조에서 불타는 충성심과 로력적위훈을 떨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숨은 공로자들과 애국자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

⑥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천명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방침을 받들고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는 남조선로동계급과 청년학생들, 애국적민주인사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

이와 같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충실성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혁명전통교양, 당정책교양의 내용은 다 창작경기작품의 주제로 될수 있다.

3. 창작경기 응모자격

《3. 23 방송문학작품상》 창작경기에는 방송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가, 형상일군들은 물론 전국의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을 비롯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면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다.

4. 창작경기시상

《3. 28 방송문학작품상》은 작품창작상을 기본으로 하면서 연출상, 연기상, 촬영상 등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5. 창작경기기간

제 4 차 《3. 23 방송문학작품상》 창작경기는 1990년 3월 1일부터 1991년 2월말까지 방송된 작품을 가지고 한다.

6. 창작경기작품을 보낼곳

창작경기작품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문예국과 텔레비전총국 문예처로 보낸다.